

---

# 인천 청년문화 활성화 연구

---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 목차 -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II. 청년문화 개념과 정책	6
1. 개념적 정의	6
2. 청년정책과 변화	13
III. 인천의 청년문화지원정책 환경	17
1. 인천 청년문화 환경	17
2. 인천 청년문화 주요 정책	26
3. 인천 청년문화 주요 지원사업	33
4. 인천시 특성과 시사점	39
IV. 의견수렴 및 타 지역 사례	43
1. 기존 사업에서의 인천 청년문화 의견수렴	43
2. FGI 내용 및 분석	49
3.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및 분석	54
4. 타 지역 사례와 시사점	60

V. 인천시 청년문화지원정책 방향.....	81
1. 주요 이슈 분석.....	81
2. 정책 비전과 목표.....	89
VI.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	101
1. 정책 제언.....	101
2. 향후 과제.....	105
참고문헌 .....	106

- 표 목차 -

---

<표 II-1> 청년문화의 시대적·문화적 특성.....	10
<표 III-1>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수정계획안 비교표.....	28
<표 III-2>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 지원사업 총괄표(2022.10. 기준).....	35
<표 III-3>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활성화사업 세부내용.....	37
<표 IV-1> 지역기반 청년 문화예술 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회차별 대상.....	45
<표 IV-2> FGI 개요.....	49
<표 IV-3>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54
<표 IV-4> 타 지역 청년문화 사례와 관련 정책사업.....	66
<표 IV-5>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팀 2022년 추진사업 및 2023년도 추진 예정 사업 목록.....	71
<표 IV-6> 경기문화재단 2022년 청년문화지원사업 현황.....	71
<표 IV-7> 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팀 조직 및 시설.....	72
<표 IV-8> 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 육성지원 사업 목록.....	73
<표 IV-9> 대전문화재단 2022년 청년문화지원정책 추진 현황.....	74
<표 IV-10> 울산문화재단 2022년 청년문화지원정책 추진 현황.....	75
<표 IV-11>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2년 청년문화지원정책 추진 현황.....	75
<표 IV-12> 충북문화재단 2022년 청년문화지원정책 추진 현황.....	75
<표 IV-13> 경북문화재단 2022년 청년문화지원정책 추진 현황.....	75
<표 IV-14> 전남문화재단 2022년 청년문화지원정책 추진 현황.....	76
<표 IV-15> 광역문화재단별 청년문화지원사업 개요.....	76
<표 IV-16> 광역문화재단별 청년문화시설운영 현황.....	77
<표 IV-17> 광역문화재단별 청년문화지원사업 목록.....	79
<표 V-1>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지원정책 정책 대상.....	83
<표 V-2> 인천 청년문화 활성화 SWOT분석.....	85
<표 V-3>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지원정책 정책 대상 분류체계.....	85
<표 V-4> 인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목표 1 세부 과제.....	90
<표 V-5> 인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목표 2 세부 과제.....	92
<표 V-6> 인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목표 3 세부 과제.....	94
<표 V-7> 인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목표 4 세부 과제.....	96
<표 V-8> 인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목표 5 세부 과제.....	98
<표 V-9> 인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목표 6 세부 과제.....	100

---

---

- 그림 목차 -

<그림 II-1> 제주문화예술재단·텀블벅 협력 기획전 화면.....	14
<그림 IV-1> 중소벤처기업부-통영 인디 페스티벌.....	61
<그림 IV-2> 천안 문화도시-룩 비온드.....	62
<그림 IV-3> 창창더하기-대구 더 풀락.....	63
<그림 IV-4> 중소기업 옴부즈만-속초 칠성조선소.....	64
<그림 IV-5> 청년마을-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65
<그림 VI-1> 인천 청년문화 지원 사업 구조(안).....	101
<그림 VI-2> 경기상상캠퍼스 주요 공간 구성.....	103

---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 ■ 공공정책의 주체와 대상으로 호명된 최근의 청년세대

- 2000년대에 들어서며 청년의 빈곤·실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
-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접근은 초기에 고용 등 주로 일자리 문제로 집중되었으나 현상이 장기화하자, 교육·사회 진출·주거·결혼 등 청년 계층이 생애주기 상 당면하는 여러 이슈로 관점이 확산함.
- 정치권 등에서도 청년문제 해결이 의제로 부상하여, 그 연장선에서 2021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마찬가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정책 관련 조례들을 제정하며 정책적 대응에 나서고 있음.

#### ■ 공공 청년정책에서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

- 청년 이슈가 등장한 초기 정책 대응이 주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치중되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일상의 지평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남.
- 청년 계층 일상에 포진해 있는 다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문화를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문화’가 갖는 통합적 성격을 고려하면 여타의 청년 의제 역시 청년문화지원정책 공론장 안에서 유연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음.
- 2021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도 “문화”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다루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함.

####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사업·청년문화지원사업의 확대

- 민선8기의 인천시는 문화예산을 현행 1%대에서 3%까지로 인상하는 목표를 내세우며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 청년정책 역시도 상위법(청년기본법)에 따라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년문화지원정책 및 사업들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2022년 1월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정책·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인천광역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제16조(청년문화의 활성화)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도 역시 청년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여타 분야와 동등하게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인천문화재단 역시 2022년 ‘청년문화팀’을 신설하여 청년 문화예술 지원을 양과 질의 모든 측면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지역(인천)에서의 지속적인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역자원으로서의 활용

- 청년문화예술 활동 및 인적자원은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의 주요한 미래 자산이며 성장의 촉임.
- 지역예술 측면에서는 후속 세대가 성장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 지역예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도시 문화정책 측면에서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문화적 매력을 고취하고 다양한 창의인력들을 지역사회에 유입시키는 것이 도시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문화예술의 산업적 순환에 있어서도 지역 청년층의 문화적 ‘리터러시(literacy; 해석력)’를 배양하는 것은 잠재적 문화소비층을 두텁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2. 연구의 목적

### ■ 인천 청년문화예술지원 현황 분석 및 진단

-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의 청년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의 현황 정리 및 분석.
- 이를 통해 현재 정책 및 사업의 강점과 약점,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여 향후 인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정책적 방향을 도출.

### ■ 최근 청년문화정책의 분석

-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고 있는 청년문화 주요 이슈와 정책을 분석.
- 다방면에 걸친 청년문화정책 흐름 안에서 인천의 방향을 진단.

### ■ 청년문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사례조사

- 타 광역문화재단 사례 조사.
- 타 지역의 유사한 사례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
- 이를 통해 인천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도출.

### ■ 인천광역시의 4개년(2023~2026) 청년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목표 설정

- 정책분석·사례분석·관계자 인터뷰·전문가 자문을 통해 2023~2026년 사이 인천시의 청년문화지원정책 및 청년문화 활성화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

### ■ 청년문화 활성화 계획의 주요 사업 및 과제

- 비전과 목표에 따른 주요 사업 과제와 추진전략 도출.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가. 연구의 범위

##### ■ 시간적 범위

- 2023년~2026년(기준년도 2022년).

#####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 ■ 내용적 범위

- 인천 청년문화 현황 및 의견조사 분석을 통해 인천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 설정, 그에 따른 주요 사업과제와 추진전략 도출함.

#### 나. 연구 방법

##### ■ 문헌 연구

- 보고서·논문·언론보도 등 청년문화 관련 자료.
- 2010년대 이후 주요 청년정책 자료.
- 청년문화지원 정책 및 계획.

##### ■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팀 사업 대상자 및 인천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및 기획자를 대상으로 함.
- 연구사업의 취지·목표·세부 내용을 설명한 뒤 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함.

##### ■ 전문가 자문회의

- 청년문화정책 연구 전문가: 대학 중심 청년문화 연구 / 중앙·광역·기초 간 청년문화 정책 협력체계 / 청년문화정책 연구.
- 인천 청년문화정책 연구 전문가: 인천 청년문화 환경 / 인천 청년문화정책 기본방향 / 인천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청년문화 기획자: 지역 기반 청년문화 기획자 정체성 / 청년예술가 주도 문화기획·창업·교육 활동.

## Ⅱ. 청년문화 개념과 정책

### 1. 개념적 정의

가. 청년문화 개념의 형성과 변화

#### ■ 개요

- ‘청년세대’, ‘청년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논의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한 흐름을 소개함.

#### ■ 서구에서 청년문화 개념의 흐름

- 청년들의 문화는 늘 존재해 왔지만, 구체적으로 기성세대 문화와 구분 가능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 후반 영미권 중심의 서구사회로부터이며 1950년대~1960년대 사이에 사회학적 담론의 주제로 자리 잡았음.
- 미성숙하거나 성년기 초입에 막 들어선 10대~20대 젊은이들의 문화에서 부모 세대 문화와 구별되는 가치와 취향, 태도와 행위가 두드러져 구체적 양식으로 발전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세대 간 문화적 차이가 나타난 것은 다음의 이유로 해석됨.

첫째, 산업화·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촌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기성세대의 문화적 영향력 약화.

둘째, 물질적 풍요로 인해 청년(청소년) 계층의 문화적 소비력 증가.

셋째,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벌어진 기존 질서의 해체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신감.

- 미국에서는 1940년대 후반 등장한 ‘비트세대(Beat Generation)’가 대표적으로, 대공황으로 인해 “상실의 시대”라 불렸던 1920년대~1930년대에 태어난 이들은 기존 사회 문화 구조에 저항하는 문화예술인들로 뉴욕-그리니치 빌리지, 샌 프란시스코-노스 비치 등 거점에서 약물·프리 재즈·섹스·동양사상에 탐닉하며 개인의 해방과 정화를 추구함.
- 비트세대는 직접적인 정치사회적 운동보다는 개인주의와 감각주의, 보헤미안적 삶을 추구했으며 그들의 반문명주의, 반군국주의(반제국주의), 평화주의적 지향은 이후 1960년대 후반 등장하는 ‘68세대’와 ‘히피(hippie; hippy)’ 문화의 정신적 기반이 됨.
- 영국 런던에서는 1950년대 후반 ‘모드(mod)’족 하위문화(subculture)가 등장했는데, 마찬가지로 비트세대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주로 청년 노동자 계층으로 일찌감치 노동 시장에 들어와 주말이면 고급 수제양복을 맞춰 입고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등) 예술영화와 재즈·소울 등 복고적 음악을 즐기는 동시에 스쿠터를 몰고 다니며 클럽에서 밤을 새우는 라이프스타일을 드러냄. 이후 로커·보보스·스킨헤드 등 스타일로 분화함.
- 비트세대와 모드족 등 유행이 주로 일부 대도시에서의 청년 하위문화 성격이 강했다면 1960년대 후반 부상한 히피 문화는 훨씬 포괄적인 규모로 벌어진 광범위했으며 정치적

성격의 68운동으로 발전하거나 기성 대중문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침.

- 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항의하는 소규모 시위로 시작된 68운동은 점차 프랑스 전역의 대학가로 번졌고, 노동자 파업과 결합해 기성사회의 전통과 자본주의적 사회체제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체제·반문화(counter-culture) 운동으로 확산했으며 국경을 넘어 미국·서독·스페인·체코슬로바키아·일본에까지도 그 자장이 미쳤음.
- 히피운동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한 반전운동의 흐름 속에 역시 앨런 긴즈버그(Allen Ginsberg) 등 비트 세대로부터 인도의 동양철학·정신적 해방 추구 등 영향을 받는 한편 기성의 사회적 일상을 거부하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번졌는데 68운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68운동이 주로 정치사회적 운동의 성격이 강했다면 히피 운동은 반문화적 실천의 성격이 더 강했음.
- 히피세대는 1980년대 이후 기성세대로 성장하며 그들 중 일부는 대도시 젊은 지식노동자 출신의 전문직 중산층(young urban professionals), 즉 ‘여피(yuppie)’로 탈바꿈하는데 이들은 기존 화이트칼라 중산층의 계급적 성향에 따라 자유주의, 능력주의, 자본만능주의 같은 보수화 성향을 보이면서도 탈권위주의, 개인주의, 다문화주의적인 태도와 같이 과거 보수층과는 구분되는 문화적 성향을 드러냄.<sup>1)</sup>
-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히피세대를 부모로 둔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문화적 특징을 보이며 이들에 대한 ‘X세대’ 담론이 등장했고 이제는 또다시 X세대의 자녀 세대가 할 수 있는 ‘MZ세대’ 담론이 등장함.

■ 한국에서의 초창기 청년문화 논의 - 존재했지만 새로운 의식과 가치관을 제시하지 못한 미완의 1970년대 청년문화

- 서구에 비해 자본주의적 산업화·정치적 민주화·도시화가 늦었고 특히 전쟁으로 인한 복구 시기가 길게 이어졌던 한국에서 청년문화가 호명되고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초반이며 이는 한편으로는 경제적 성장과 도시화의 영향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명백히 68운동, 히피운동과 같은 전 지구적 문화운동의 영향이라 할 수 있음.
- 1970년대 청년문화 논쟁을 다룬 언론보도<sup>2)</sup>에 따르면 고(故) 최인호 소설가, 한완상 서울대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기사, 김병익 문학평론가의 글이 당시 논쟁의 주요 맥락을 보여줌.
- 고(故) 최인호 소설가는 ‘청년문화 선언’(《한국일보》 1974년 4월 24일자)에서 청년문화란, “선택된 개념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 “침묵의 다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상향식 문화”라고 주장하며 당사가 청년문화의 태동기라고 진단함.
- 한완상 교수는 ‘청년문화는 창조적이라야’(1974년 《신동아》 6월호)에서 청년문화란, 반문화의 창조적 의식을 보여주어야 하나 한국에서는 분단의 특수한 정치 상황, 권위적인 유교문화, 타율성을 내면화하는 교육제도로 인해 표피적 팝송·청바지·고고춤·생맥주·통기타 외에 반문화로서 청년문화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진단함.

1) 히피에서 여피로 변신한 대표적인 인물로 스티브 잡스(Steve Jobs)를 꼽을 수 있으며 그가 애플사를 통해 만들어낸 개인용 컴퓨터(애플, 맥킨토시, 스마트폰-아이폰에서 히피세대와 여피의 문화적 감성이 공존하는 모습이 보여짐)

2) 경향신문, “(18) 청년문화 논쟁”, 2015.8.4.

[https://m.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508042158165#c2b](https://m.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508042158165#c2b)

-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은 ‘지금은 진정한 목소리가 들려야 할 때다’(1974년 6월 3일자)에서 청년문화를 한낱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퇴폐 문화로 규정하며, 청년들이 진취적 태도와 투철한 민족주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 김병익 문학평론가는 ‘청년문화와 매스컴’(《신문평론》 1974년 11월)에서 “청년문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 부재”, “언론의 기사 남발”, “제한된 언론 자유”로 인해 청년문화 논쟁이 결국 무용해져 버렸다고 진단함.
- 1970년대의 초기 청년문화 논의가 충분히 진전하지 못하고 미완의 형태로 사그라든 것은 앞서 김병익의 지적도 시사하듯 한국의 1970년대가 유신 체제라는 정치적으로 극도로 억압적인 반민주적인 사회였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으며 당시의 정치권력은 반독재·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치적 억압뿐만 아니라 두발 단속·예술 검열(금지곡 지정, 영화 검열) 등 청년세대에 대한 문화적 억압도 동시에 실시함.

#### ■ X세대 담론의 등장 - 한국 청년문화의 실질적 출발

- 1970년대 청년문화론이 사그라든 이후 1980년대에도 새로운 문화적 흐름과 실천들이 등장했지만 주로 민족문화론·민중문화론·노동문화론 등 정치사회적 지향의 하위개념으로 존재하여 세대 담론으로서의 문화적 지향이 호명되지 못했는데 이는 1970년대 후반부터 6월 항쟁이 일어난 1987년까지의 한국 사회는 “민주 대(對) 반민주”와 같은 정치적 격전이 끊이지 않는, 매우 정치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임.
-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청년세대의 주축이 1960년대 출생에서 1970년대 초반 출생으로 교체되던 1990년대 초반 무렵 ‘신세대’, ‘신인류’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다가 1993년 태평양화장품에서 “트윈엑스”라는 신제품과 함께 서구에서 조금씩 사용하던 X세대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들여와 당시 20대 초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광범위하게 쓰임.
- 이 용어를 마케팅 용어로 들여온 동방기획의 보고서<sup>3)</sup>에 따르면 1970년대 출생들의 엄청난 인구수 및 경기호황에 따른 높은 자기 가처분 소득에 주목했고 이러한 점에서 연유하여 X세대는 앞선 세대와 차별화되는 높은 소비성향이 핵심이었음.
- 한국에서 X세대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략 1970년대 초반~1980년 사이에 태어나 1990년대 대도시에서 생활한 젊은이들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그 이전 세대에 비하여 개인주의·자유주의 성향이 강하고, 정치적 집단주의가 약하고, 탈권위주의적이고 높은 문화욕구를 보였음.
- 한국의 X세대는 IMF사태로 말미암아 경제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소멸했으나 그들이 이후에도 초기 IT벤처 업계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1.5세대로 편입되어 현재는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히피세대가 여피로 편입되는 것과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X세대는 홍대앞을 중심으로 한 인디밴드 문화, 서울프린지 페스티벌 등으로 대표되는 다원-독립예술<sup>4)</sup>과 같이 그 이전 시기와는 단절되어 청년세대를 소구하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했던 시기로 평가되며 이 밖에도 1990년대 후반부터 21세기 초반 영상-게임 등의 문화산업 성장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의 주요 동력으로 작

3) 임현철(1995), 광고사례 - X세대 화장품, 광고학연구 제6권 1호.

4)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시작은 1998년 대학로에서 시작된 서울독립예술제가 기원임

용했음.

- 반면 IMF 이후 등장하게 되는 '88만원 세대', '밀레니얼 세대', 'MZ세대'의 경우는 급변하는 사회경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정서를 나타내고 있음.

#### ■ 국내 문화연구에서 나타난 하위문화로서의 청년문화

- 이동연(2001)은 '10대 문화이야기 - 하위문화 관찰기록'<sup>5)</sup>에서 1970년대 영국의 청년하위문화론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청년세대 문화를 분석함.
- 영국의 청년하위문화론은 1950년대 런던에서 있었던 재개발이 슬럼가가 담당해왔던 도심의 공동체적 기능을 파괴한 동시에, 핵가족을 기준으로 진행된 주택 공급이 친족 간의 유대관계를 소실시켰으며, 산업구조 개편이 비숙련 노동자를 양성한 결과 부모세대와 지배계급 양자 사이에서 방황하며 세대의식과 계급의식을 동시에 드러낸 청년세대의 문화를 하위문화로 설명함.
- 그러나 하위문화는 청년세대의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의식화라기보다는 모드족·스킨헤드족·핑크족 등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의 구별 짓기를 통해 세대적·계급적 모순을 폭로하는 정체성 정치임.
- 이와 같은 영국의 청년하위문화론에 근거해서 이동연은 가리봉동·화양리·노원 및 상계 지역·봉천동 및 미아동에서 현장연구를 진행한 결과, 저소득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하위문화란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문화정체성 확립과 문화적 권리 추구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함.

#### ■ IMF 이후의 청년: 청년세대에 물질적 자원의 재분배

- 우석훈·박권일(2007)은 공저 《88만원 세대》에서 비정규직 양산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20대 인구의 물질적 자원의 재분배를 논하였는데, 이는 비교적 최근의 'N포 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으로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청년세대의 빈곤이 화두임.
- 2007년 즈음 한국의 전체 비정규직 임금(월급)은 119만원, 전체 임금 대비 20대의 임금 비율은 74%, 이 두 가지를 합산한 88만원을 20대의 세대명으로 호명함.
- 부모로부터의 독립·주거·동거 및 결혼·대학등록금 마련·노동시장 진출을 아울러 88만원 세대는 충분한 예산과 소득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각의 생애주기 단계가 지체되는 사회적 통제 아래에 있음.
- 이는 88만원이 표상하는 당면한 빈곤 속에서 직접적이고 극단적인 '세대 내 경쟁'이기도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나 기금 등을 둘러싸고는 현세대가 미래세대의 자원을 미리 사용하는 '세대 간 경쟁'이 가속화하는 양상임.
- '다안성(diverstability)'이란 '다양성(diversity)'과 '안정성(stability)'의 합성어로, 이 두 가지가 한 생태계 내에 갖추어진 균형적 상태 또는 경향성이자 88만원 세대를 위해 이 책에서 제시하는 사회경제적 지향점임.

---

5) 이동연(2001), 10대 문화이야기 - 하위문화 관찰기록, 디지털문화예술아카데미  
<http://www.artnstudy.com/Olecture/Special/freeSpeLectureMain.asp?LessonIdx=dyLee01&LessonPart=Culture&asf=1>

<표 II-1> 청년문화의 시대적·문화적 특성

구분	시기	시대적 특성	문화적 특성
청년문화 세대	1970년대	권위주의 정부에 따른 정치적 부자유, 표현의 자유 억압. 경제성장, 대도시의 급격한 성장. 대도시 청년노동자, 대학생의 급증. 해외 청년문화의 영향.	청바지, 통기타, 록밴드 등 서구대중문화의 급격한 확산. 민족문화,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탈춤, 한국문학 등). 정치적 억압과 기성가치에 대한 저항.
X세대	1990년대	민주화 시대. 거대담론의 붕괴와 탈정치적 성향의 증대. 경제적 호황기와 이전 세대에 대비해 급격히 높아진 소비력. 해외여행 자유화. 신성장산업(IT)의 맹아기.	높아진 개인주의 성향과 개성 강조. 문화적 취향의 다양화와 전지구적 트렌드에 실시간으로 반응. MTV로 대표되는 영상문화의 확산. 독립·다원 예술의 확산. 벤처 등 새로운 사회적 진출에 대한 관심.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	21세기 이후	경제적 위기감. 청년 빈곤층의 증대. 성장기의 다양한 문화체험.	가성비에 대한 집착. 경제적 보상 요구. 문화적 취향의 다양성 확산. 성취욕과 능력주의 문제.

■ 소결: 청년문화의 개괄적 특성

- “청년문화”는 단순히 연령적 청년계층의 문화라기보다는 산업화·자본주의·민주주의·도시적 일상이 보편화된 근대 이후 사회 전반의 문화적 다양성과 세대 간의 괴리가 표면화되면서 등장한, 기성문화와 차별화된 개념으로 형성되었음.
- 청년문화가 활성화되는 시기는 청년세대들의 경제적 자립·사회적 주도권이 강하게 작동하는 시기와 맞물리며 그런 상황에서 기성세대로부터 자율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자기발언의 시기를 맞이함.
- 청년문화는 연령적 특성에 따라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는 보편적 측면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함께 갖고 있으며 전자의 특성이 자유로움에 대한 추구, 기성문화에 대한 변형과 극복, 이상주의와 같은 성향이라면 후자는 각각의 시대에 따라 다른 특성으로 나타남.

나. 청년정책: 청년기본법 관련하여

■ 청년의 삶의 질 향상

- 「청년기본법」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청년문제에 대처하고자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담아 2020년 제정되었음. 이를 위해 청년정책을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제3조4항)으로 규정함.
- 특히, 「청년기본법」의 제2조1항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종합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제2조2항).
  -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 기본이념은 청년의 ‘행복한 삶’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년발전에 관한 규정 또한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제3조2항)으로 삶의 질 향상을 가리킴. 따라서 기본이념과 청년발전, 청년정책 정의를 가로지르는 「청년기본법」의 지향점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볼 수 있음.<sup>6)</sup>

■ 연령주의와 미래사회정책

- 그러나 이러한 청년정책은 수혜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물질적인 지원과 재분배를 제공하는 점에서 복지정책의 틀을 답습한다는 지적이 있음.<sup>7)</sup> 복지정책의 틀은 ‘정상성(normality)’과 ‘비정상성(abnormality)’을 나누어서 후자를 수혜자로 상정함.
-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3조1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연령주의에 근거”(김선기, 2022)하여 수혜자를 특정함.
- 「청년기본법」이 갖는 복지정책의 틀에 따라 비정상성의 위치에 놓이고 연령주의 규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속하는 경우, 역설적으로 수혜자 개인은 공적인 적대감·무시·모욕에 처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은 청년의 지위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구성원이 아닌 수혜 대상으로 격하하는 오류가 발생함.
- 따라서 청년정책은 비정상성을 답습하는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new normal)’으로 비정상성을 대체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
- 이는 연령주의에 따라 수혜자를 특정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와 다른 정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그들이 중심이 되어 필요한 정책을 설계하는 “미래사회정책”(김선기, 위의 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6) 노수경 외(2021), 청년문화의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7) 김선기(2022), 세대론을 넘어서는 청년문화정책(1), 발표문



다. 청년정책에서 청년문화정책으로

#### ■ 청년정책과 문화정책의 관계

- 청년정책 그리고 문화정책의 관계는 전자에도 후자의, 반대로 후자에도 전자의 비중이 협소한 양상이 모두 있어 왔음.
-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지난 몇 년간 청년정책이 다방면으로 활성화되어 왔음에도, 주로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빈곤 해소”(최지연·이정수, 2018), “고용·주거·교육”(노수경 외, 위의 글) 등 분야로 편중되었고 “최근에는 산업구조 상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하는 데 한계”(이선정·최영화, 2021)에 직면하며 정책 방향이 변화하기 시작함.
- 마찬가지로 문화정책 내에서도 청년을 위한 정책은 “신진예술가 지원 같은 정도”(최지연·이정수, 위의 글)에 그쳐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해 “문화예술에 있어서의 청년정책”(노수경, 위의 글)이라는 관점이 부상해 왔음.
- 즉 청년정책과 문화정책이 교차하는 청년문화정책을 도출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각각의 관점에서 모두 요구되는 상황임.
- 이는 문화적 기본권·문화다양성 등을 포함한 문화민주주의와 같은 정책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며,<sup>8)</sup>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 지원조례 제정 등 정책 시행의 방향 전환에도 걸친 사안임.<sup>9)</sup>
- 청년들은 디지털 정보화 역량이 뛰어난 가운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문화체육관광부, 2021)에는 일반인과 청년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 청년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sup>10)</sup>

#### ■ 대안적 청년문화정책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의 5개년도 시행계획 중 2021년도 전략과제들은 일부 몇 가지를 제외하면 기존에 시행되어 온 콘텐츠·문화활동·예술 및 창작·경험 및 창업 분야의 것들과 중복됨.
- 이에 따라 청년문화정책이 과연 실재하는지 의문이 제기되어 앞서 언급한 미래사회정책으로서 ‘대안적 청년문화정책’의 요구로 이어짐.<sup>11)</sup>
- 미래사회정책의 방향은 청년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정책설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대안적 청년문화정책에서도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가 요구됨.
- 청년정책의 측면에서 이 거버넌스는 수혜자에게 일자리나 경제적 지원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미로 문화를 다루어야 할 것임.
- 문화정책의 측면에서 이 거버넌스는 신진예술가 지원 등 청년예술정책뿐만 아니라 상위의 정책적 패러다임으로서 문화적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방향을 고려해야 할 것임.
- 두 가지 측면 모두 연령주의가 아닌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의 순환적 관점을 전제로 하여, 청년의 지위를 수혜자로 격하하지 않고 반대로 청년예술정책 중심으로 고착되지 않

8) 최지연·이정수(2018), 지역 기반 청년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수원시정연구원

9) 이선정·최영화(2021), 인천 청년 문화향유 실태 연구, 인천학연구 제34호

10) 노수경 외(위의 글)

11) 신민준(2022), 세대론을 넘어서는 청년문화정책(2), 발표문.

도록 하는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할 것임.

## 2. 청년정책과 변화

가. 하위문화로부터의 청년문화정책

### ■ 지역문화 관점: 지역에 대한 사명감 및 생산-매개-소비의 재생산 구조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된 청년문화정책 연구의 경향은 수원시에서 “지역문화진흥”(최지연·이정수, 위의 글), 인천시에서는 “지역문화 생태계의 지속성 확보”(이선정·최영화, 위의 글) 등 지역문화 관점이 강조됨.
- 학술적 의미에서 하위문화가 강조하는 청년문화의 정체성은 지역 청년문화의 정체성으로, 다시 지역의 정체성으로 이어져, 청년문화의 ‘생산’<sup>12)</sup>이 수원시에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동력으로 간주됨.
- 인천시도 위 연구를 인용하며 청년문화가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문화진흥으로 이어진다는 논의에 동의하나, 주간인구지수<sup>13)</sup>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고 청년들 문화활동 및 ‘향유’<sup>14)</sup>의 역외유출이 지속되는 인천시의 상황을 전제로 지역문화 생태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청년문화정책 차원의 지원을 강조함.
- 수원에 청년들이 정착한 계기는 수원에서 출생 또는 성장한 경우, 문화예술이나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이 계기가 되어 활동하는 경우 등임.
- 이들의 정체성에는 수원에 대한 애정, 서울에 대한 반발로서 지역에 대한 사명감이 반영됨. 서울에서의 경험과 수원에서 주어진 기회를 모두 활용함.
- 과거 청년문화는 정책적으로 지원 및 육성 대상이 아니라 주로 통제 및 규제 대상이었으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적 기본권·문화다양성 등 문화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지역문화 생산을 위한 청년문화정책의 방향은 장차 청년들의 문화활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산-매개-소비의 재생산 구조를 성립하는 데 기여할 것을 강조함.

### ■ 온라인 비대면 향유

- 인천시의 경우, 주간인구지수가 낮고 청년들 문화활동 및 향유의 역외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 등은 기존 청년정책의 방향을 답습하는 동시에 《인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도 문화정책의 예술지원에 치우치는 등 미래사회정책으로서의 청년문화정책이 부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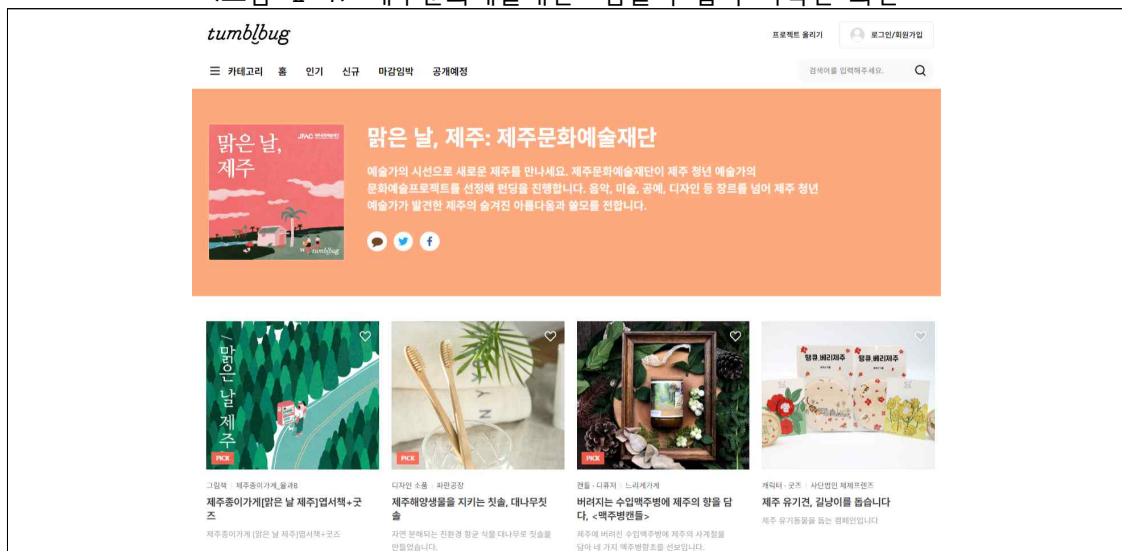
12) 수원에서 문화의 생산, 매개, 유통 영역에 있는 20~30대 문화기획자, 활동가,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였음

13) 통계청, “주간인구 (5년 2005~2015)”, 2022.7.1. <https://bit.ly/3fXKUM9>

14)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중 인천시 표본 651명 중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가 정의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제3조1항)에 해당하는 총 209명의 데이터를 추출해 재분석하였음

- 인천 청년들도 인천을 거주지 이상으로 여기지 못하며 문화적 활동의 공간적 장소성을 얻지 못하는 실정임.<sup>15)</sup>
- 그러나 청년문화는 지역 정체성, 미래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중요함. 생산-매개-소비의 재생산 구조를 성립해 인천의 지역문화 생태계 형성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청년세대는 특히 온라인·모바일 중심 문화향유가 일상적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문화예술도 비대면 향유로 빠르게 전환 중임. 따라서 비대면 향유가 청년들에게 문화접근성을 제고하고 향유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생활청년문화팀과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당시 대표 임재승)과 협력 개최한 기획전 <좋은작허여>(2018), <맑은 날, 제주>(2019)를 참고할 수 있음.
-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텀블벅은 2018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온라인 클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을 통해 민간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이후에는 청년예술인, 창작자들에게 1:1 전문컨설팅·사진영상촬영·배송비·수수료·교육·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음.<sup>16)</sup>
-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사업의 자생적 재원 확보, 청년들의 참여 진작, 문화적 정체성 확립, 청년예술인 및 창작자들의 수익 창출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림 II-1> 제주문화예술재단·텀블벅 협력 기획전 화면<sup>17)</sup>



#### 나. 청년기본법,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등 법·제도를 감안한 청년문화정책

##### ■ 국제 및 국가 단위 시사점

15) 최영화·이선정(2020), 인천시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16) 생활문화청년예술팀, “2019 청년문화예술 콘텐츠펀딩 텀블벅 기획전<맑은 날, 제주> 개최”, 제주문화예술재단 웹사이트.

[http://www.ifac.kr/contents/index.php?mid=070101&job=detail&ebcf\\_id=notice&eb\\_seq=1538](http://www.ifac.kr/contents/index.php?mid=070101&job=detail&ebcf_id=notice&eb_seq=1538)

17) 텀블벅 웹사이트. <https://tumblrbug.com/collections/ifac2019>

- 민간영역에서 미래사회정책으로서 대안적 청년문화정책의 필요와 구상이 제기되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청년정책과 문화정책의 균형을 맞추고자 ‘문화예술에 있어서의 청년정책’을 연구함.<sup>18)</sup>
- 이는 하위문화·대안문화·반문화 등 청년문화 현상 또는 학술적 의미보다는,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문화예술·문화관광·문화산업·지역문화·문화여가·문화복지에 있어서 청년주체 및 청년대상 정책의 기반과 세부 방안을 찾는 것임.
- 청년 대상 설문조사<sup>19)</sup>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기할 지점은 다음과 같음.
  - 청년소외계층 지원 등 중요도와 시급성
  - 온라인·오프라인 기반 정책의 균형
  - 지역격차 해소 또는 완화
  - 문화부문 일자리 및 교육 수요에 대응
- 그런 측면에서 청년문화정책의 주안점과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청년들의 역량 강화·교류 증진·일자리 정책을 마련해 청년문화정책의 영역 확장
  - 인구 사회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
  - 청년문화정책 지원체계·정보체계 구축하여 청년이 정책을 주도하는 기반 마련
- 유엔,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의 경우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교육 및 훈련에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청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함.
- 청년은 “유년기의 의존 상태에서 성인기의 독립 상태로 전환하는 시기에 처한 사람.” (원문: “YOUTH is best understood as a period of transition from the dependence of childhood to adulthood’s independence.”, UN, 2013)

#### ■ 청년문화와 청년예술

- 인천시는 2018년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인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sup>20)</sup>을 통해 다방면으로 청년정책을 제안해왔음.
- 이는 두 가지 경향을 가져왔는데, 기존 청년정책의 기초를 답습해 “여전히 일자리와 생활안정 측면에 주안점”(이선정·최영화, 2020)을 둔 것, 그리고 “청년대상 창작지원(직접 지원)”(인천문화재단, 2021)에 대한 압도적인 수요임.
- 우선, 청년문화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일반 청년들을 위한 문화사업이 미흡함. 공공차원의 청년 공유공간·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공간이 있으나 규모가 작고 활용도도 제한적임. 청년들이 자유롭게 문화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그들이 상호 교류하여 창의성과 독창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됨.
- 청년예술인·청년기획자를 위한 창작지원은 새로운 시도와 실험이 가능한 영역이어서 여러 지원사업 중에서도 중요한데, 연령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고 지원금 규모도 턱없이 부족함. 청년 문화예술 거점공간 또한 지속가능성·사업 안정성이 부족하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음. 문화정책과 도시정책 전반에서 청년예술인들은 당사자·파트너·미래세대로서 정책을 주도하고 지역에서 삶과 활동·교류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함.

18) 노수경 외(위의 글)

19)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1,000명을 대상으로 문화 및 문화 외 분야를 포괄하여 조사함

20) 서봉만 외(2019), 인천광역시.

- 이처럼 청년문화와 청년예술의 관점이 병존함에 따라 인천시의 청년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제도와 토대를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부상함.
- 청년문화와 청년예술 공통으로는 각각의 공간을 확충 및 개선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됨. 또한 문화 분야 기관 및 단체, 대학 등은 물론 주거·생계·산업·도시재생 등 사업영역 간의 연계도 요구됨.
- 청년예술인들을 위해서는 ‘창작-발표-유통에 이르는 문화예술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요구되는데, 이는 앞서 ‘하위문화로부터의 청년문화정책’에서 살펴보았던 ‘생산-매개-소비의 재생산 구조’와 관점이 유사함.
- 청년들의 관심사, 취향, 수요를 발굴하면서 이와 연계해 위의 선순환 구조 및 재생산 구조를 성립하는 것부터가 인천시 청년문화정책의 시발점이 될 것임.

#### 다. 연구계획상의 개념적 표기

##### ■ 청년문화지원정책

- 이상 ‘청년정책’, ‘문화정책’, ‘청년문화정책’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바 각각의 개념적, 정책적 혼동을 최소화하고자 이 보고서에서 인천시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는 정책과제와 사업의 범주를 “청년문화지원정책”으로 일괄 표기하고자 함.
- 타 지역에서 등 유사한 방향과 지침을 갖는 정책 및 사업이 구체적인 이름을 갖는 경우에는 그 이름대로 표기함.

### Ⅲ. 인천의 청년문화지원정책 환경

#### 1. 인천 청년문화 환경

##### 가. 인천 청년 인구 실태

##### 1) 청년 인구 구성 실태

###### ■ <<2021 인천광역시 청년통계>><sup>21)</sup>

- 인구·복지·일자리 등 청년층(만 19세~39세)의 삶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기준년도 2020년)

###### ■ 인천 청년 인구 통계

- 2020년 11월 1일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 19~39세 청년인구: 853,655명.
  - 전년 대비 2.4% (20,701명) 감소.
- 성별: '남자'(52.3%), '여자'(47.7%),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인구: 109.8명).
  - 성비 '전국'(110.8명)보다 낮은 수준
- 연령별: '35~39세'(26.4%), '25~29세'(25.6%), '19~24세'(25.1%) 순임.
  - '25~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 대비 감소
-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 29.0%로 전년 대비 0.6%p 감소함.
  - 군구별 청년인구 비중: 전년 대비 모든 군구에서 감소
  - 군구별 청년인구 비중: '연수구'(30.6%), '미추홀구'(30.0%), '중구'(29.9%) 등이 높고, '강화군'(16.1%), '동구'(23.1%), '옹진군'(23.2%) 등이 낮음
- 청년가구의 가구원 수: '1인 가구'(42.3%), '2인 가구'(21.8%), '3인 이상 가구'(35.9%).
  - 전년 대비 1인 가구(12.4%) 및 2인 가구(1.1%)는 증가, 3인 이상 가구(7.9%)는 감소
- 2020년 다문화가구의 가구원(25,449가구/73,298명) 중 '19~39세' 가구원은 19,136명으로 다문화 가구원 전체의 26.1%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6.2% 증가함.

###### ■ 청년 인구 이동

- 청년 전입 인구: 전년 대비 5.7% 증가한 192,316명.
- 청년 전출 인구: 전년 대비 9.6% 증가한 199,113명.
  -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음
- 주된 전입 사유: 동일 시 내 전입은 '주택'(46.5%), 시도 간 전입은 '직업'(37.4%)임.
- 2020년 인천시 청년 전입 인구: 전년 대비 5.7% 증가한 192,316명.
  - 군구 내 전입(31.7%), 군구 간 전입(30.1%), 시도 간 전입(38.3%)를 차지
- 청년인구의 순이동: 2020년 순유출 청년인구 6,797명.

21) 인천광역시(2021a), 2021년 제61회인천통계연보.

<https://www.incheon.go.kr/data/DATA010001#none>

- 연수구와 중구를 제외한 모든 군구에서 순유출 발생
  - 순유입 발생지: '연수구'(6,985명), '중구'(2,178명)
  - 순유출 발생지: '부평구'(-6,685명), '계양구'(-3,380명), '남동구'(-3,097명) 등 8개 군구
  - 지역인구 대비 순이동자 수 비율: 순유입률은 '연수구'(6.2%)와 '중구'(5.3%)에서 높고, 순유출률은 '동구'(-4.8%), '부평구'(-4.6%) 등에서 높음
- ※ 인천시는 2020년까지 순유출 인구가 더 많다가 2021년 순유입으로 전환되어 172.5% 증가율을 보임. 집값과 일자리가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됨. 교육·주거환경·자연환경 등 인프라적 요소는 하위권에 위치함.<sup>22)</sup>

#### ■ 문화 복지

- 2020년 인천시 19~39세 청년층 중 문화예술 및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사람의 비율: 72.0%.
  - 전년 대비 5.6%p 감소
  - 음악·연주회, 스포츠 등에서 크게 감소. 행사 유형별로 보면, '영화' 관람 비율이 93.9%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연극·마당극·뮤지컬'(20.1%), '스포츠'(14.0%) 순임. 스포츠를 제외한 문화예술 관람 비율은 여자가 남자를 상회

#### ■ 경제활동

- 2020년 하반기('20년 10월) 인천시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586천명.
  - 전년 동기 대비 40천 명(6.4%) 감소
- 취업자: 546천 명, 전년 동기 대비 44천 명(7.5%) 감소.
-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3.9%p 감소한 66.9%.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90.6%로 전년 동기 대비 0.7%p 증가한 반면,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9.4%로 전년 동기 대비 0.7%p 감소함.
- 청년 사업자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96,013명(남자 60.0%, 여자 40.0%).
  - 연령별로는 '35~39세'(45.7%), '30~34세'(29.5%), '25~29세'(19.1%) 순으로 많음
  - 사업 상태별로는 '활동 사업자'(69.4%), '비활동 사업자'(15.9%), '폐업자'(14.7%)를 차지하며, 특히 전년 대비 비활동 사업자가 크게 증가(32.2%)

2) <<2021 인천광역시 사회조사>><sup>23)</sup>

#### ■ 문화예술 시설 수

- 인천시의 문화예술 시설은 149개로 전년 대비 4개 증가함.
- 문화예술 시설 중 '공연시설'(72개소)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서시설'(60개소), '문화

22) 로이슈, "'충남' 인구 순유입 증가율 '전국 1위'...전년비 1050% 늘어", 2022.10.12.  
<http://bit.ly/3TVLckR>

23) 인천광역시(2021b), 2021 인천의 사회지표-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보고서.  
<https://www.incheon.go.kr/data/DATA010001#none>

보급전수시설'(12개소), '전시시설'(5개소) 순임.

- 서구와 중구는 공연시설, 강화군은 전시시설, 미추홀구는 문화보급 전수시설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많음.

#### ■ 예술행사 수

- 인천시의 공연예술: 1,186건, 전년(908건) 대비 278건 증가.
  - 전국(28,927건)의 공연예술 중 4.0%의 비중을 차지
  - 양악이 54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극'(406건), '혼합'(108건), '국악'(75건), '무용'(57건) 순
- 인천시의 시각예술: 545건, 전년(620건) 대비 75건(12.1%)이 감소함.
  - 전국(15,256건)의 시각예술 중 3.6%의 비중을 차지

#### ■ 문화부문 예산 현황

- 인천의 일반회계예산 중 문화 부문 예산은 8,03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4%p 증가함.
- 동구의 문화부문 예산비율이 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구'(7.6%), '중구'(7.0%), '미추홀구'(1.2%)순임.

#### ■ 문화예술 및 스포츠

- 지난 1년간 문화예술 및 스포츠 행사에 참여한 인천시민은 16.0%로 나타남.
  - 2021년 참여율은 '2019년'(62.4%), '2020년'(51.7%) 대비 큰 폭으로 감소
  - 성별로는 '남자'(15.4%)보다 '여자'(16.5%)의 참여율이 1.1%p 높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높은 경향
- 문화예술 및 스포츠 행사의 참여 횟수는 '영화'(3.4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포츠'(3.1회), '박물관'(2.3회)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및 스포츠 행사의 참여 만족도는 '연극·마당극·뮤지컬'(3.91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술관'(3.78점), '영화'(3.7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인천시의 문화체육시설 수에 대해 '문화시설'은 39.9%가, '체육시설'은 38.2%가 부족하다고 응답함. 군구별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모두 '강화군'(각 56.1%, 51.0%)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우선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문화시설은 '공연시설'이라는 응답이, 우선적으로 확충이 필요한 체육시설은 '구기운동시설'이라는 응답이 전년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 ■ 여가생활 만족도

- 인천시민의 문화여가시설 만족도(접근성과 충분 정도)는 2.72점으로 '만족'하는 비율(13.8%)보다 '불만족'하는 비율(38.0%)이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20~29세'(2.75점)에서 문화여가시설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많



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경향성이 나타남.

- 인천시민의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는 2.73점으로 '만족'하는 비율(13.1%)보다 '불만족'하는 비율(36.5%)이 높게 나타남. 연령별로는 '20~29세'(2.78점)에서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 여가활동

- 평일과 주말의 여가활동으로 'TV 시청'(각각 89.1%, 77.6%), '휴식 활동'(각각 78.2%, 76.6%) 등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말의 여가활동에서 '휴식 활동', '취미, 자기계발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스포츠 활동' 등의 여가활동은 전년 대비 증가함.
- 여가활동 중 '문화예술 관람' 활동 비율은 전년 대비 20.2%p 감소함.
- 20~29세 주말의 여가활동 중 문화예술 관람이 10.2%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39세도 5.6%로 나타나 전체 연령대 대비 3위로 나타남.

나. <<인천 청년 문화향유 실태조사>><sup>24)</sup>

#### ■ 인천 청년 문화향유 실태 분석

- 조사대상: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중 인천시 청년(만 19~39세 이하) 209명 데이터 추출해 재분석함. 일부 예외 있음.
-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실태: 89.1%(20대 85.0%)가 인천 내에서 관람한다고 응답함.
  - 대부분 영화(영화관 28개, 상영관 175개)로 추정
  - 다른 대도시 청년(91.0%)에 비해 인천 청년들은 지역 외부에서의 문화향유 비율 높음
  - 참여율은 21.1%로 다른 대도시 청년(11.3%)보다 상회
  - '미술 전시회 및 창작', '대중음악·연예'가 다수
  - 참여 경험이 재참여 의향으로 연결
- 문화예술교육 경험 실태: 유아기 및 아동기(3~5세)의 교육 경험률은 비교적 높으나, 청소년기와 20대를 지나며 급격히 감소해 다른 대도시 청년들 수준을 하회함.
  - 교육 경험이 이후 재교육 이수 의향으로 연결
- 문화예술동호회 참여 실태: '참여 경험 없음' 응답이 89.5%로 다른 대도시 청년(92.0%)에 비해 낮지만 절대적 수치는 높음.
- 매체를 이용한 문화예술행사 관람 실태: 98.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텔레비전·라디오'(83.0%), 'PC·노트북'(30.8%), '스마트기기'(29.8%)
  - 만족도: 5.38/7(척도). '뮤지컬', '대중음악·연예', '영화' 등 관람 만족도가 높은 편
  - OTT 이용률: '20대'(58.1%), '30대'(41.9%)
- 인천 청년 80~90%가 적극적으로 향유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로 재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것임.
- 가장 큰 걸림돌은 '시간 부족'과 '경제적 부담'임. 온라인 콘텐츠 등 공급 다각화하고 '청년 문화바우처' 등 할인이 필요함.
-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은 '주간인구지수'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음. '문화기

24) 이선정·최영화(위의 글).

반시설' 104개소로 서울, 경기도에 비해 부족함.

■ <<2019 인천시 청년실태조사>><sup>25)</sup>

- '6장 문화예술 여가분야' 결과.
  - 설문조사의 전체 조사대상: 인천거주 만 19세~39세 남녀 2,000명
  - 설문조사의 전체 조사기간: 2019.7.9.~7.16, 8.9~8.18.
- 여가시간은 평일평균 2.92시간, 주말평균 6.10시간. 나이가 적을수록 여가시간이 많음.
- 여가활동 분야: 휴식(32.3%) > 취미오락(26.5%) > 문화예술활동(20.3%) > 스포츠활동(13.8%) > 관광활동(5.3%) > 사회 및 기타활동(1.8%) 순임.
- 최근 관람한 문화예술행사: 영화(56%) > 공연(55.6%) > 미술(25.5%) > 음악(21.9%) > 문화재(20.7%) > 문학(13.9%) 순임.
  - 연령별 19~34세까지는 공연관람률이 높고, 35~39세는 영화관람률이 가장 높음
- 주로 이용하는 문화공간: 영화관(71.8%) > 문예회관(32.2%) > 도서관(23.3%) > 미술관(19.3%) > 박물관(18.5%) 순임.
  - 조사 결과 인천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관광 중 문예회관·박물관·미술관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영화관과 도서관을 이용
- 최근 문화예술교육 경험: '없다'(83.6%), '있다'(16.4%).
  - 옹진군 거주 청년들 교육경험(0%)
- 최근 1년간 문화예술동회 활동경험: 없다(89.5%).
- 청년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필요정책 수요: 질 좋은 프로그램 개발(30.3%) > 다양한 문화시설 조성(25.8%) > 지역화폐 연계 문화활동비 캐시백 지원(12.5%) >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정보제공(10.5%) 순임.
-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8).
  - 전체 조사표본 10,498명 중 인천시 표본 637명의 조사결과 발췌 분석
  - 인천시민의 지난 1년 동안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2.9시간으로 전국평균 3.3시간에 비해 적은 편
  - 1년간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 중 문화예술 관람비율은 전국평균보다 높고 혼자서 여가를 보내는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편
- <<문화향수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8).
  - 전체 조사표본 10,558명 중 인천시 표본 646명의 조사결과 발췌 분석
  - 문화예술행사 참여경험 전국 1위, 문화동호회 참여경험 전국 2위, 문화예술교육 경험 전국 2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전국 6위
  -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지역 조사 결과 인천시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지역이 인천시 85.5%, 타 지역 14.5%로 타 지역 관람비율이 전국 2위
- SWOT 분석 결과.
  - <강점> 청년의 문화향유 참여 욕구 높음, 게임 및 관광콘텐츠 사업 통한 청년문화향유 활동지원 특화사업 운영
  - <기회> 주5일제로 인한 여가시간 지속 증가, 지역 청년문화인력 양성정책 증가, 지역 청년문화일자리 창출 지원강화, 신진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증가, 청년예술인

25) 서봉만 외(위의 글).

창업, 취업지원확대

- <약점>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공간 부족, 다양한 청년전용공간 조성미흡, 청년주도, 참여 문화행사 지원부족, 청년 문화트렌드 반영 콘텐츠 부족,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미흡, 섬지역(강화, 옹진)과 내륙의 문화격차 심각
- <위협> 서울시에 수준높은 문화공간과 문화행사가 풍부하여 인천시민과 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역외유출, 서울시의 청년전용공간 지원 확대

다. 인천 청년문화예술인 현황

1)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 및 육성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sup>26)</sup>

#### ■ 조사개요

- 조사대상: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의거한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548명임.
  - 인천 연고 기준: 인천 거주자, 인천 소재 학교 재학·졸업자, 인천 출생, 인천 소재 직장·단체 소속
  - 활동 범위 기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의거한 “문화예술”에 부합하는 활동  
→ 문학·미술(응용미술 포함)·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건축·어문·출판 및 만화
- 조사기간: 2022년 9월 13~14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내용: 활동 분야·직업·주로 하는 활동형태·전공 여부·거주지·문화예술 활동기간 / 활동정보 / 활동의 안정성 / 활동비용 및 애로사항 / 청년예술인 전용공간 필요 여부 / 청년예술인 지원방안으로 구성됨.

#### ■ 인천 청년예술인 애로사항

- 인천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혹은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부족이 37.9%로 가장 많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21.3%), ‘타 지역 활동으로 바빠서’(20.9%) 등의 순임.
- 예술활동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비용은 ‘작업공간 임차료’(33.2%), ‘개인활동비’(26.1%), ‘발표·행사경비’(17.9%) 순임.
- 예술활동 시 겪는 애로사항은 ‘기회부족’(34.7%), ‘활동비용 마련의 어려움’(26.5%), ‘활동공간·장비부족’(22.1%) 순임.
- 최근 3년간 예술활동 경력단절을 경험한 응답자에 한해 문화예술활동 수준의 회복 정도에 대해 47.3%가 회복하지 못했다고 응답함.

#### ■ 청년예술인 전용공간

- 응답자의 64.1%는 평소 사용하는 작업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6)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2022).

- 평소 사용하는 작업공간이 있는 응답자의 56.3%가 본인의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실'(28.4%), '소속단체 사무실 또는 연습실'(9.6%) 순으로 나타남.
- 청년예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 '개인창작실'(43.6%), '공연연습실'(25.9%), '사무공간'(13.0%) 순으로 나타남.
-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전용공간의 위치선호도로는 교통이 편리하고 상업활동이 활발한 도심지역이 51.1%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지역 문화예술기관 주변'(17.7%), '청년들이 많은 대학가 주변'(13.9%) 순으로 나타남.

#### ■ 청년예술인 지원

- 최근 3년 이내 인천에서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해 인천에서 '청년예술인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8.8%로 나타남. 반면 응답자의 71.2%는 인천에서 청년예술인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활동으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2.8%로, 문화예술 활동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는 문화예술활동으로 지원을 받은 경험이 66.7%임.
- 문화예술활동으로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52.8%가 발표 및 활동기회 제공(공연·전시·축제 등), 창작·발표 활동경비 지원(52.0%), 공간지원(시설·장비 포함)(39.2%), 전문교육프로그램 지원(24.8%), 타 단체·지역과의 교류지원(14.4%), 소속단체 운영비 지원(13.6%), 경력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7.2%), 타 예술가와 공동활동(합동공연, 전시 등) 지원(4.8%) 순으로 지원을 받음.
- 문화예술활동 지원받은 유경험 응답자에 한해 공공지원을 받은 기관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32.8%가 인천문화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음. '인천광역시'(28.0%), '타 지역 지자체·기관'(24.8%), '군구 문화재단 문화원'(24.0%), '중앙예술지원기관'(16%), '타 지역 문화재단·문화원'(14.4%), '민간기업'(12%), '인천시 교육청 및 학교'(11.2%) 순임.
-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고, 공공지원이 문화예술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지원금 사용항목이 제한되어 있어서', '서류 작성이 힘들어서', '자율적인 활동에 방해가 되어서'라는 이유가 고르게 나타남.
- 공공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한해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정보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62.6%), '신청자격이 맞지 않음'(43.5%), '신청서류 작성의 번거로움'(34.8%) 순임.
- 청년예술인에 대한 별도 공공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93.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45.5%), '기존 공공지원은 경쟁이 심해서 청년예술인이 선정되기 어려움'(32.7%), '기존 공공지원은 청년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17.1%), '기존 공공지원의 지원방식은 청년예술인에게 적합하지 않음'(4.3%)이었음.
- 청년예술인에게 필요한 공공지원 형태로는 '예산지원'(50%), '활동기회 제공'(25.9%), '활동 공간지원'(13%)으로 나타났고, 예산 중 '발표·행사 경비'(25.9%), '작업공간 임차료'(25.4%), '물품구입비'(23.7%)로 나타남. 문화예술 활동기간별로 살펴보면 '1년 이상~3년 미만' 활동한 응답자는 물품구입비를, '3년 이상~5년 미만' 및 '5년 이상~7년 미만' 활동한 응답자는 작업공간 임차료를, '7년 이상~10년 미만' 활동한 응답자는 개인활동비 지원이 1순위로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2) <<인천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방안>><sup>27)</sup>

### ■ 청년예술인 활동 실태 조사 방법

- <<2021 인천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 중 청년예술인 표본 342명 추출 및 재분석함.
- 인천거주자 외 인천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인도 포함됨.
- 조사내용: 예술활동 / 예술환경 / 예술노동 및 예술계 부당대우 / 사회보장 및 건강 / 예술정책사업 수요 및 만족도 / 생활 여건 및 소득으로 구성됨.

### ■ 예술활동

- 주된 종사 직업: 배우(17.2%) > 연주가(14.9%) > 작가(10.6%) > 화가 및 조각가(8.6%) > 가수(5.7%) > 작곡가 및 편곡가(5.7%) > 성악가(4.6%)
- 최근 1년간 활동지역: '인천시'(45.7%), '서울시'(41.1%), '경기도'(5.7%).
  - 전체 인천시 예술인 조사 결과에서는 인천시에서 주로 활동한다는 응답이 66.9%, 서울에서 활동한다는 응답이 24.1%인 것과 비교하면 청년예술인이 타 연령대 예술인에 비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음.
- 지원사업 참여경험: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긴급지원과 예술인패스 카드 발급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에서 참여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높음.
- 창작활동 관련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 '지원사업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74.9%로 전체 조사결과 68.2%인 것과 비교하면 청년예술인의 정보취약성이 더 큼.

### ■ 예술환경

- 응답구분: '개인 창작공간이 없다'(58.3%), '거주공간 내 별도 공간이 있다'(23%), '거주공간과 분리된 별도 공간이 있다'(18.7%).
- 개인 창작공간 소유 형태는 '월세'(75.4%), '전세'(7.7%), '자가 소유'(6.2%).
- 공유 창작공간 입주 의향 이유: '창작공간 마련 및 유지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53%), '공유 창작공간에 입주한 다른 예술인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어서'(22%), '창작공간 운영기관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예술활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21.7%).

### ■ 청년예술인 인력 현황

- 2022년 5월 26일 기준 인천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누적 예술인 수는 총 6,121명, 이 중 20대~30대 청년예술인은 3,401명으로 전체의 55.56%.
- 지역별 현황: 부평구 721명(21.2%) > 남동구 610명(17.94%) > 서구 585명(17.2%) > 미추홀구 452명(13.29%) > 계양구 440명(12.94%) > 연수구 382명(11.23%) > 중구 122명(3.59%) > 동구 46명(1.35%) > 강화군 40명(1.18%) > 옹진군 3명(0.09%) 순임.

27) 최영화(2022), 인천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방안, 인천연구원.

- 장르별 현황: 음악 1,238명(36.4%) > 연극 528명(15.52%) > 미술 291명(8.56%) > 영화 283명(8.32%) > 연예 271명(7.97%) > 복수분야 222명(6.53%) > 문학 177명(5.2%) > 만화 168명(4.94%) > 무용 111명(3.26%) > 국악 93명(2.73%) > 사진 19명(0.56%) > 건축 0명 순임.
- 예술활동증명 미신청 이유: 증빙서류 준비 등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37.2%) > 본인의 예술활동 경력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30.2%)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잘 알지 못해서(27.9%) 순임.

#### ■ 청년예술인 시설 현황

- 인천 청년문화창작소 “시작공간 일부”: 청년예술인 전용시설.
- 서구 예술나루 레지던시: 청년예술인 전용 레지던시.

#### ■ 인천시 주요 예술인 지원사업 인지도

- ‘신진예술가 기획지원 사업’을 알고 있다(53.4%) > 인천형 예술인 지원(41.4%) > 인천 예술인지원센터 운영(37.4%) > 청년문화창작소 운영(32.5%) > 국내외 예술인 교류협력 지원(32.2%) >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27%) > 문화예술단체 지원보조(17.8%) > 인천 미술활성화(17.5%) 순임.
- 예술활동 관련 필요 정보: 공공의 예술관련 정책 및 지원정보(40.8%) > 예술강사 등 일자리 정보(28.4%) > 창작공간 등 예술활동 관련 공간정보(14.7%) 순임.
- 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인천시 역점사업 수요: 예술지원사업 공모 기회 확대(30.7%) > 예술인 창작공간 및 임차료 지원(18.7%) > 예술인 생애주기별 지원사업(17.2%) > 작품 발표 공간 시설 확충(12.4%) > 예술인 경력단계별 지원사업(10.6%) 순임.

#### ■ 청년예술인 활동 여건

- 예술활동증명 통계자료 분석결과 인천시 청년예술인의 주된 활동분야는 음악, 연극, 미술, 영화, 연예, 복수분야 순이나 2021년 인천시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음악, 미술 연극, 연예 및 국악, 문학, 영화 등의 순으로 차이가 있으며 대도시의 특성상 다양한 예술인들이 포진해 있음.
- 2021년 인천시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10년~19년’의 경력을 가진 청년예술인이 38.5%, ‘5~9년’이 31%로 많았음,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통계자료 분석결과 전체 인천시 신진예술인 중 ‘40대 이상’의 비율이 37.96%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시 청년예술인 활동분야 조사 결과 음악분야 예술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천시의 청년예술인 전용공간과 예술인 창작공간은 대부분 시각예술 분야 창작공간으로 음악 분야 청년예술인을 위한 전용공간이 부족함.
- 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창작활동 지원 경험이 없다고 답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원사업을 알지 못했기 때문(74.9%)으로 조사됨.

## 2. 인천 청년문화 주요 정책

### 가.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 ■ 2020.9.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개요

- 인천시 청년기본 조례 제 6조
- 청년범위: 만 19세~39세 이하 인천 거주 청년
- 2021년 시행계획: 45개 사업, 473억원

### 나. 《인천청년정책기본계획-수정계획안》

####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정 필요성 대두하여 인천청년정책기본계획-수정계획안 (2021년~2025년) 수립

#### ■ 정책변화 대응: 《한국판 뉴딜 2.0 청년정책》 발표에 따른 정책 조율 필요

- 2020년 8월 「청년기본법」 시행
- 2020년 12월 정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 2021년 8월 《한국판 뉴딜 2.0 청년지원 정책》
- 2022년 7월 18일~8월 26일 《청년삶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sup>28)</sup>

#### ■ 인구변화 대응: 청년인구 감소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 마련 필요

- 인천시 청년인구 감소 예상: 2015년 897천명(전체대비 30.7%) → 2020년 839천명(전체대비 28.5%)
- 인천시 합계출산율 0.83명, '20년 최초로 전국평균 0.84명보다 낮게 조사됨.

#### ■ 사회문제 대응: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청년 지표 악화에 따른 삶의 질 개선

- #### ■ “잃어버린 세대”: 청년실업률(통계청, 2021년 2분기) ‘전국’(9.4%), ‘인천시’(9.5%), ‘서울시’(10.5%), ‘경기도’(9.7%)
- 인구이동의 대부분이 청년층인 점을 감안할 때 인천의 청년들은 취업과 관련된 사유로 (33%) 타 시도로 진출하는 것으로 분석됨.(인천연구원, 2020)

#### ■ 청년정책 인식 변화

- 청년정책 만족도 인식: 2.8점(인천시, 2019 실태조사).
- 청년정책 중요도 인식: 일자리·교통복지·워라밸·생활안정·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28) 관계, 참여항목: 문화예술 활동, 외출 등

중요도 인식 높음(인천시 2019 실태조사).

- 인천시 시정참여 청년조직: 청년정책조정위원회(2019년 출범) 20명, 인천청년네트워크(2019년 출범) 47명임.
- 인천시 청년들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며, 전반적인 사회참여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sup>29)</sup>

■ 2021.8.26. 《한국판 뉴딜 2.0 청년정책》

- 코로나 극복: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코로나 고졸청년 지원 패키지
- 격차해소: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 한시 지원·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속·중기 재직 청년지원 강화
- 미래도약: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군장병 사회복귀지원금 지원·민관협력·청년친화적 ESG지원 신설

■ 수정계획 수립 경과

- 2021. 7.15. ‘한국판 뉴딜’ 청년정책 추진계획(8조) 발표
- 2021. 8. 4. 인천형 청년정책 발굴 지시
- 2021. 8. 5. 청년정책 발굴 TF 구성·운영계획 수립
- 2021. 8.26.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간담회(청년정책발굴 관련)
- 2021. 9. 2. 청년네트워크 간담회(청년정책발굴 관련)
- 2021. 9.10. 청년정책 발굴 공사·공단 간담회
- 2021.10. 8. 청년정책 예산 조정 회의
- 2021.11.29. ‘2030 청년과의 대화’ 청년정책 설명회 개최
- 2021.12.29. 《인천 청년정책 수정 기본계획(’21~’25)》 수립

---

29) 서봉만 외(위의 글)



다.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수정계획안 비교

<표 Ⅲ-1>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수정계획안 비교표

구분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인천청년정책기본계획-수정계획안
대상연도	2020년~2024년	2021년~2025년
비전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 행복 1위 도시, 인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자체 청년고용률 1위 달성('20년 46.8% → '22년 48% → '24 50%)</li> <li>■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활동 공간 확충('20년 2곳 → '24년 5곳)</li> <li>■ 청년 역량 강화 및 활동지원 확대('20 69,214명 → '24 81,528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일자리 창출(개)(21년 22,633, 22년 49,700, 23년 78,000, 24년 107,600, 25년 138,600)</li> <li>■ 청년주거지원(세대)(21년 200, 22년 6,550, 23년 12,900, 24년 19,250, 25년 32,650)</li> <li>■ 청년문화여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리공연(개소) 22년 30, 23년 60, 24년 90, 25년 120</li> <li>• 문화여가(명) 21년 160, 22년 930, 23년 1,710, 24년 2,590, 25년 3,480</li> <li>• 문화축제(회) 22년 2, 23년 4, 24년 6, 25년 8</li> </ul> </li> <li>■ 청년시설 공간구축(개소) 21년 3, 22년 8, 23년 9, 24년 10 25년 11</li> </ul>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진출 지원 및 취업촉진-자립</li> <li>■ 창업지원 및 역량강화-도전</li> <li>■ 청년 네트워크 참여 확대- 동행</li> <li>■ 사회서비스 제공 및 생활지원-힐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창업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li> <li>■ 주거 생활지원 지역사회 안착</li> <li>■ 문화 참여지원 일과 휴식의 균형</li> <li>■ 4차 산업 인력 양성 청년인프라 구축</li> </ul>
전략과제	<p>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확대.                      청년 구직활동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 확대.                      청년 사회진출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창업정보 제공 및 사업화 지원 확대.                      청년 창업 인프라 조성(신규).                      예비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유도 확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정책발굴 확대.                      참여형 프로젝트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신규).                      청년예술인 지원 및 육성 확대.                      청년센터 설립 및 운영(신규).</p>	<p>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확대.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 확대 / 청년 창업 육성(소셜 벤처, 청년농업인 등)(신규) / 창업 벤처파크 조성(신규)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신규).                      청년 월세 지원 확대 /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지원(신규) / 청년대상 전월세 임대 확대 /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비 지원(신규) /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확대.                      청년 문화예술특화거리 조성(신규) / 청년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콘서트(신규) /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신규) / 청년센터 구축(신규) / 청년공간 유유기지</p>

	<p>체계적인 건강관리 교육과 지원(신규).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프로그램 운영 확대.</p>	<p>확대 구축 확대. 직업계고 학생 MRO 교육 지원(신규) /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육성(신규)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확대 / AI 전문기술인력 양성 확대 / 탄소중립 등 환경관련 청년 참여 지원.</p>
<p>분야별 추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5.30)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문화예술과)</li> <li>- 3-6 e스포츠 등 게임콘텐츠산업 육성(문화콘텐츠과)</li> <li>- 3-7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신진예술가 발굴지원)(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로 그 지원(청년예술가)</li> <li>• 바로 그 기획(청년기획자)</li> <li>• 바로 그 지원 홈 커밍데이 등</li> </ul> </li> <li>- 3-8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유망예술가 활동지원) (문화예술과)</li> <li>- 4-1 청년센터 설립 및 운영(청년정책과)</li> <li>- 4-2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및 추가구축(청년정책과)</li> <li>- 4-12 청년학교 프로그램 운영(청년정책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량집중(통폐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 지역기반형 청년 문화 활성화 사업: 사업비 확대, 사업내용 확대(청년문화거리 조성, 청년친화 민간기획공연 지원, 청년문화활동가 지원 커뮤니티 지원)</li> <li>- 3-7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li> <li>- 3-8 인천형 예술인 지원사업</li> </ul> </li> <li>■ 역량집중(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 청년 사회참여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2 인천 청년 네트워크 운영, 지원대상 확대</li> </ul> </li> <li>- 4-2 청년공간 확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2 청년공간 유유기지 구축 및 운영, 사업규모 확대 3개소 → 9개소 군, 구별 1개소(옹진군 제외)</li> </ul> </li> </ul> </li> <li>■ 일몰(사업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6 e스포츠 등 게임 콘텐츠산업 육성 / 3-9 청년취업 공작소 / 청년학교 프로그램</li> </ul> </li> </ul>
<p>신규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 청년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투자창업과)</li> <li>•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운영지원(문화콘텐츠과)</li> </ul> </li> <li>■ 3-1 문화여가분야: 8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예술인 양성</li> <li>• 청년문화거리 조성</li> <li>• 퇴근 후 문화 향유</li> </ul> </li> </ul> </li> <li>- 청년 예술인 육성 및 문화생활 지원</li> <li>- 지역기반형 청년 문화 활성화 사업(문화예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문화특화거리 조성</li> <li>• 민간문화시설 공연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문화활동가 지원</li> <li>• 청년문화축제 개최</li> <li>- 청년문화창작소 운영(문화예술과)</li> <li>• 청년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활동 지원</li> <li>- 청년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콘서트(아트센터인천)</li> <li>- 청년 활동공간 제공(인천교통공사)</li> <li>• 지하철 역사 내 공실을 청년에게 제공</li> <li>- 제물포지하도 청년문화공간 제공(인천시설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광 크리에이터 육성</li> </ul> </li> <li>- 청년 로컬라이저 육성(청년정책과)</li> <li>- 청년 참여형 인천관광 활성화 사업(관광진흥과)</li> <li>- 마이스 유니크베뉴 청년 체험단 프로젝트(마이스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2 참여소통분야: 7개 사업</li> </ul> </li> <li>- 청년조직 확대</li> <li>-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li> <li>• 청년참여 기반 강화</li> <li>• 온·오프라인 청년 플랫폼 확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참여 공간 사업</li> </ul> </li> <li>- 청년센터 구축(청년정책과)</li> <li>• 인천청년종합지원센터 설립(인천시 동구 송현동 도시재생활성화 지역)</li> <li>• 청년센터마루: 인천, 부평, 동구</li> <li>- 청년공간 유유기지 확대(청년정책과)</li> <li>- 청년정책 포털정비(청년정책과)</li> </ul> <p>인천청년포털:  <a href="https://www.incheon.go.kr/youth/index">https://www.incheon.go.kr/youth/index</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청년정책 지원(데이터혁신담당관)</li> </ul>
--	--

30) 각 사업의 번호는 사업 구분을 위한 “코드”로 앞의 숫자는 사업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 사업을 연번으로 나눔

라. 제1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1) 수정계획안의 특징

- 청년세대 요구와 시대정신을 반영한 비전 수립 및 전략과제 설정
- 중앙정부 신규사업 반영 및 중복사업재원 대체 등 재구조화
- 인천시 전략과제별 신규사업 발굴 반영
- 정책개발 추진체계 마련 및 전략과제 추진
  - 인천시 청년정책 발굴 TF 구성 운영함.
  - 정책의제별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 설정: 3대 목표·4대 전략·8대 실행과제·80개 단위사업, TF전략회의 3회, 청년층 간담회 3회, 전문가·시민단체 간담회 2회.
  - 인구구조 변화가 유발하는 지역경제 및 청년노동시장 영향 등을 고려한 대응전략 수립.
  - 청년인구의 이동경로(인천주거-인근직장, 인근 주거-인천 직장) 파악하여 정주여건 개선 등 다각적 맞춤형 정책개발.

2) 인천청년정책기본계획-수정계획안 추진방향

-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명료화 및 정책영역 설정.
- 청년층 요구도가 높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사업화.
- 4차 미래산업·바이오·항공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청년창업 지원.
- 산업단지·항만 대개조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배가.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정책 대폭 확대 및 중점 추진.
- 청년 문화여가분야 정책개발 확대.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등 지역정착 연계 청년정책 개발.
- 청년센터·청년공간 등 활동 인프라 구축.
- 청년네트워크·청년조직 등 청년협업체 확대 육성.

3) 인천청년정책기본계획-수정계획안 정책방향

- 청년특성
  - 사회진입, 미래대비 이행기.
  - 연령 구간별 정책수요 차이.
    - 19~24세: 교육(인재양성)
    - 25~29세: 취업(양질의 일자리)
    - 30~34세: 결혼·독립(주거·자산)
    - 35~39세: 지역정착·생활안정(문화·여가)

- 다양한 분야 관심, 사회 직접 참여 등 인식 변화.

■ 환경변화: 새로운 고용형태(비정형·비임금 노동)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등 감염병 확산 / 4차 산업혁명 / 기후변화

■ 제도정비: 조례정비, 청년조직, 공간 확충, 청년 참여기회 확대 등

■ 맞춤형 정책: 시대변화와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필요

■ 균형적 지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정책 사각지대 발굴, 지원

#### 4) 3대 중점 추진방향

■ 미래산업 분야 취업지원

- 스마트혁신기업 청년일자리 사업 /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사업 / 디지털혁신 분야 청년일자리 사업 /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

■ 주거생활 안정지원

- 청년 월세 지원 확대 / 소규모 주택매입 청년 임대 / 산단 청년근로자 기숙사 지원 / 검단신도시 청년 주거단지 조성 / 드림For청년통장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 마음건강 지원.

■ 일과 휴식의 균형

- 청년문화특화거리 조성 / 청년 문화창작소 운영 / 청년예술인 문화활동 지원 / 직장인 퇴근길 콘서트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 / 청년공간 권역별 확대 구축.

#### 5) 전략수정

■ 비전 전략 및 성과목표 수정을 통한 중점전략과제 설정

- (세분화) 영역별 전략 세분화.

- (명료화) 추진전략과 평가관리 체계 간 연계성 확보.

- (수정내역) 기존 4대 전략 → 4대 전략 8대 세부전략.

■ 기존사업 병합·확대·일몰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 정책 내실화

- (확대) 영역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과제 확대.

- (수정내역) 기존 12대 중점과제 → 20대 중점과제.

■ 시정 전반에 걸친 청년지원 신규사업 발굴 반영

- (과제분류) 기존과제 중요도 및 만족도 등을 검토 구분함.
  - 역량집중과제: 통폐합과제, 확대과제
  - 일몰과제: 사업종료, 청년정책 제외과제
- (재구조화) 기존 54개 추진과제 → 80개 추진과제.
  - 통폐합 7개 → 3개, 확대 6개, 일몰 15개, 신규 45개

### 3. 인천 청년문화 주요 지원사업

가. 인천청년포털 문화지원(<https://www.incheon.go.kr/youth/YO050201>)

※ 인천 청년정책 전체 포털 사이트로 문화지원 분야는 6개 사업이 소개되어 있고 변경사항이나 공모사업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주관기관으로 연결해야 함.

#### 1) 청년 로컬라이저 육성 지원(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생태계팀)

- 인천 시정(문화·정책·관광 등)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를 위한 실비 지원.
  - 청년의 SNS 활동(콘텐츠 제작)지원
  - 콘텐츠 제작 참여 청년에게 실비 보상금 지원(건별 20만원)
    - ※ 제작분야: 문화·관광·원도심·전통시장·골목상권·도시재생·청년정책 등
  - 콘텐츠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 실비 지급(1인 1개)

#### 2) 청년이 만드는 인천여행(인천관광공사 국내관광팀)

- 청년들의 인천 여행 체험 및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청년 여가활동 활성화 및 관광 향유권 증진.
  - 청년들의 인천 여행 체험 및 콘텐츠 제작 지원
  - 관광명소, 맛집 등 인천 여행 장소(시설) 모니터링
  - 여행 코스 개발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 및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3) 청년문화활성화 사업(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팀)

-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문화산업을 인천 전역에서 추진.
  - 청년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 청년문화예술 기획자 및 창작자 양성
  - 청년을 위한 기획 공연프로그램 발굴 및 문화향유기회 제공

#### 4) 청년문화창작소 시작공간 일부(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팀)

- 시작공간 일부 웹사이트. <https://space1bu.ifac.or.kr/>
- 청년창작자의 창작활동 지원 및 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공간.

- 청년문화창작소 공동운영단 운영
- 청년문화창작소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 청년 문화창작소 활성화 사업

#### 5) 인천유니크베뉴 청년체험단(인천관광공사 MICE부로)

- 인천유니크베뉴 체험을 통한 청년 여가문화 활성화 및 인천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 마이스 크리에이터 양성 · 지원조건: 인천거주자 및 인천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지원규모: 예비 크리에이터 30명, 유니크베뉴 및 마이스얼라이언스 중 30개소.
  - 예비 크리에이터 범위: 인천 활동 유튜버 또는 인플루언서, 대한민국 청년
    - ※ 유니크베뉴(Unique Venue): 컨벤션센터 등 전문회의시설이 아닌 마이스 개최 도시의 독특한 매력을 가진 장소. 인천 유니크베뉴 27개소 지속 확대 예정
  - 참여 유니크베뉴 선정 및 예비 크리에이터 모집 · 운영, 체험프로그램
  - 마이스 관련 집적시설(유니크베뉴) 체험을 통한 마이스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 예비 마이스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기획컨설팅 및 사전교육(소셜미디어용 촬영 · 제작 · 편집 등)
    - ※ 체험프로그램 예시: 전등사 템플스테이 체험, 해든뮤지엄 전시 관람 및 예술 체험, 가상스튜디오 프로필 촬영, BMW 드라이빙 체험, 왕산마리나 요트 · 낚시 체험, 루빅 공연 관람 및 다이닝 체험, 아트센터 인천 공연 관람, 크로마 풀파티 체험, 트라이보울 재즈 페스티벌 참가, 달빛축제공원 락 페스티벌 참가, 현대크루즈 선상 파티 참가, 인천아트플랫폼 오픈스튜디오 관람, 케이스24 식사 및 실내 공연 관람, 새라새 미식 경험, 파노라믹65 바&다이닝 체험 등

#### 6) 제물포 지하도상가 청년특화 문화공간 운영(인천시설관리공단 상가주차사업단)

- 청년들의 문화적 갈증 해소와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제물포 지하도상가에 청년 문화공간을 운영.
- 미디어 아트 전시 공간 및 공연 무대 운영.
  - 인천시설관리공단 생활시설 지하도상가 대관 신청 후 이용
  - 인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예약 후 이용(아래 신청사이트 참고): 상시
    - ※ 예약기간 별도 없음, 1건 예약 시 2시간 이용
  - 이용가능 시설
    - 중앙무대: 자체행사 및 이벤트 진행
    - 댄스실(1~3): 청소년 및 지역 예술인들의 댄스활동
    - 스튜디오(1~2): 유튜브 촬영 및 입점상인 온라인 쇼핑제품 촬영
    - 스테디룸(1~2): 청소년을 위한 공유오피스 개념의 스테디 공간 및 토론장
    - 열린공간(1~3): 청소년을 위한 공유오피스 개념의 스테디 공간 및 발표 공간
    - 커뮤니티실: 청소년 및 지역 시민들을 위한 교육 · 화합의 공간
    - 미디어아트: 문화컨텐츠 및 홍보용 영상 등 표출

#### 7) 청년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콘서트(아트센터 인천 운영과 공연기획팀)

- 청년들의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위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 제공.
- 사업기간: 2022.4.21. / 7.28. / 10.27.
- 지원내용: 공연관람료 할인혜택 전석 2만원.

나.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사업

1)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 지원사업

<표 Ⅲ-2>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 지원사업 총괄표(2022.10. 기준)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1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청년문화팀	
2	공동운영단 운영			
3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워크숍		
4		항해일지		
5		3기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6	청년창작활성화	인천청년별별학교		
7		인천청년바자르		
8	네트워킹활성화	인천청년한달레지던시		
9		인천청년문화살롱		
10		인천청년동네탐구생활		
11	청년예술가 기획지원			
12	청년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13		청년문화공간 활성화		
14	청년문화축제 지원			
15	지역기반형 청년 문화활동가 지원-청년활동가 탐구지원			
16	지역기반형 청년 문화활동가 지원-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			
17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18	청년문화특화거리 조성(청년 점점점)			창작지원팀
19	민간 문화시설 청년친화 기획공연 지원			지역문화팀
20	지역기반형 청년 문화활동가 지원-청년예술가 탐구지원			인천예술인 지원센터
<b>총액</b>			<b>2,468,450,000원(위탁수수료 포함)</b>	

■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팀 분장 사무

- 청년예술인 창작환경 구축
- 청년 창작 및 기획 역량 강화사업 운영
- 청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 기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업무



2) 2022 시작공간 일부(인천청년문화창작소) 운영 사업 세부내용

■ 역량강화사업

- 공동운영단 운영: 청년협의체인 시작공간 일부 공동운영단 운영(4인 구성, 격주 정기회의 진행)
-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 <워크숍>: 지역 청년 창작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항해일지>: 인천지역 및 청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출판기록물 수집, 홍보 지원
  - 3기 공동운영단 기획사업: 3기 공동운영단 자체 기획사업 <화르-룩(발화점에 다다르기)> 추진, 청년예술인 협업 지원

■ 활성화사업

- 청년창작활성화
  - <인천청년별별학교>: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단계별 청년 지원사업
  - <인천청년바자르>: 청년 창작자 및 활동가를 위한 청년 창작자 플랫폼 구축, 예술 상품 제작 지원
- 네트워크활성화
  - <인천청년한달레지던시>: 지역 레지던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창작 기회 및 청년 네트워크 확대 지원
  - <인천청년문화살롱>: 청년 창작자 및 기획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 <청년동네탐구생활>: 인천지역 탐구와 리서치 위한 프로젝트 활동 지원

■ 청년예술가 기획지원

- 2022 청년예술가기획지원사업 <바로 그 ○○>: 청년층에 특화된 예술 지원구조 마련, 청년예술가·기획자의 창작활동 지원

3) 2022년 청년문화활성화사업 세부내용

■ 청년문화활성화사업(총 6개 사업)

- 주요내용
  - 청년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 청년문화예술 기획자 및 창작자 양성
  - 청년을 위한 기획 공연프로그램 발굴 및 문화향유기회 제공
- 사업대상: 인천 거주 또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청년 및 청년예술인(인천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표 Ⅲ-3>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활성화사업 세부내용

구분	주요사업명	예산액(원)	담당부서
사업비	청년문화특화거리 조성(청년 점점점)	450,000,000	창작지원팀
	청년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청년극장) - 공간 조성 및 파일럿프로그램 - 청년문화창작소 공간활성화	300,000,000	청년문화팀
	청년문화축제 지원	200,000,000	청년문화팀
	민간 문화시설 청년친화 기획공연 지원	400,000,000	지역문화팀
	지역기반형 청년 문화활동가 지원	400,000,000	
	청년예술가 탐구지원	160,000,000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청년활동가 탐구지원	210,000,000	청년문화팀
	지역 기반 청년 문화예술네트워크	30,000,000	청년문화팀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100,000,000	청년문화팀

■ 창작지원팀 청년문화특화거리 조성(<청년 점점점>)

- 사업방식: 공모
- 사업목표: 청년예술인 전용 문화예술 공간 확보를 통한 청년 창작자의 거점 마련
- 사업내용
  - 사업 권역(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 내외) 내 청년 예술인과 창작자를 위한 공모 지원(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 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사업 단위 내 예술인 / 창작자간 협력 프로젝트 실행(시민 향유)
  - 아카이브 프로그램 운영

■ 청년문화팀 청년문화공간조성 및 운영(<청년극장>)

- 사업방식: 기획 및 공모
- 사업목표: 청년 공연예술인의 창작 발표 거점 운영을 통한 과정 중심의 실험적 예술활동 지원
- 사업내용
  - 공간 확보 및 조성
  -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등 시범 사업 실행
  - 청년문화공간인 청년문화창작소 공간 활성화

■ 청년문화팀 <청년문화축제 지원>

- 사업방식: 기획 및 공모
- 사업목표: 청년예술인이 주도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으로 다양한 공간(공연장·민간시설 등)에서 과정 중심의 축제활동 지원

- 사업내용
  - 인천 청년 문화예술 축제 공동협의체 구성
  -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공모
  - 축제 홍보 및 청년중심 프로그램 참여 홍보
  - 축제 프로그램 실행 및 현장 기록(영상 제작)

■ 지역문화팀 <민간 문화시설 청년친화 기획공연>

- 사업방식: 공모
- 사업목표: 민간문화시설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향유·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 공연 프로그램 활성화
- 사업내용
  - 인천 지역 내 민간문화시설 대상 청년 향유 공연 프로그램 지원 및 청년 중심의 기획 공연 지원 등
  - 사업 공모 대상: 인천 지역 내 민간문화시설(민간공연장·라이브카페·복합문화공간 등) 및 청년 주체
  - 지원금 규모: 1개 공간 당 금500~3,000만원 범위(지원금 신청 범위는 공간 및 공연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 상이)
  - 지원사업 심의 및 지원금 교부, 정산 진행

■ 청년문화팀 / 인천예술인지원센터 <지역기반형 청년 문화활동가 지원>

- 사업목표: 청년 활동가의 인천 지역 탐구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청년 문화예술 기획자·창작자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청년들의 문화프로젝트 활동 지원
  - 연구 리서치·문화프로그램·예술 창작 등 다양한 형태의 탐구 지원
  - 청년예술가(창작자)·청년활동가 2개 영역의 공모 진행
- 세부사업내용
  - 인천예술인지원센터-청년예술가 탐구지원: 인천 연고 청년 예술인(창작자) 개인 1인당 금1,000천원(월 500천원, 2개월), 150인 지원
  - 청년문화팀-청년활동가 탐구지원: 인천 연고 청년 그룹(팀) 또는 개인 1인당 금3,000천원(월 500천원, 6개월), 60인 지원
  - 청년문화팀-지역 기반 청년 문화예술네트워크: 인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방향 및 목표·정책 과제 발굴

■ 청년문화팀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

- 사업방식: 공모 지원
- 사업목표: 지역 내외 청년들의 문화예술 분야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향유 기회 확대 및 전국 청년 네트워킹 활성화

- 사업내용
  - 지역 내외 청년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동 지원
  - 공모대상: 인천 연고 청년 문화예술 커뮤니티 그룹
    - ※ 2인 이상의 청년 모임으로 1인 이상 인천 연고 필수

#### 4. 인천시 특성과 시사점

가. 인천시 각종 현황 및 청년문화 주요 정책의 시사점

##### ■ 인천 청년정책 환경 분석 효과

- 인천시 청년 인구구성 특징 및 청년문화 환경을 다각도로 조사해 정책 대상을 특정함.
- 정책대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음.
- 정책성과 평가의 기준이 됨.
- 인천 청년예술인에 대한 각종 조사는 청년문화정책의 공급자에 대한 조사 기반이 됨.

나. 인천시 청년 특징

1) 인천시 청년 인구구성의 특성

##### ■ 타 시도(~35세)에 비해 연령대를 39세까지 확대

- 청년정책 대상 인구수 확대 효과가 있음.
- 청년정책 대상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35세 상한으로 변경 시 기존 지원 대상인 만 35세~39세의 연령대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 발생함. 정책사업 이행 중 연령대 이탈 등 변화에 관한 정책적 배려가 미비함.

##### ■ 20년(만 19세~39세)에 이르는 기간 안에 각 연령대 차별적인 특성의 정책반영 곤란

- <인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연령대별 정책수요 차이를 구분하기는 하였으나 현재의 청년인구 특성은 이러한 연령대 구분에 꼭 부합하지 않음. 또한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35세 이후 청년만이 문화와 여가생활을 위한 정책대상자로 구분되는 모순이 발생함.
- 과거와 달리 생애주기와 연령차이가 확정적이지 않음. 신진예술가는 20대~30대 초반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40대 이후의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것과 같이 단순히 나이로 정책대상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임.

##### ■ 인천지역 청년인구 구성의 변동

- 인천은 2020년까지 순유출 인구가 더 많았으나, 2021년 순유입으로 전환되어 172.5%

증가율을 보임. 집값과 일자리가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됨. 교육·주거환경·자연환경 등 인프라적 요소는 하위권에 위치.

- 강화군의 청년인구 비중이 16.1%임에 반해 연수구는 30.6%에 이르러 군구별 청년인구의 비율에 차이가 많이 있으나 인천시 전체 청년정책에서 이에 대한 세분화된 정책비중은 미흡. 다문화 가구원 증가에 따른 정책적 배려도 필요.
- 인구이동의 대부분이 청년층인 점을 감안할 때 인천의 청년들은 취업과 관련된 사유로(33%)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것으로 분석됨(인천연구원, 2020)
- 인천시 합계출산율 0.83명, '20년 최초로 전국평균 0.84명보다 낮게 조사됨.
- 경인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은 주간인구 지수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음.

## 2) 인천 청년(예술인) 문화활동 현황 조사

### ■ 현황 조사실태조사 항목 구성 변경 필요

- 정책 환경 및 정책제안, 정책성과평가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청년문화예술 활동·문화예술 향유·문화예술 기반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함. 현재 조사된 질 문항목은 세밀하지 못하고 연령대별·지역별 특징을 알기 어려움.
- 조사 기관에 따라 조사 항목이 달라 정책대상 전체에 대한 조사 이루어지지 못함.
- 인천시는 정책 환경변화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기반이 되어야 함.
- 인천시 청년정책, 나아가 청년문화지원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청년정책이 모든 인천시 청년들에게 와 닿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임.

### ■ 정기적 실태조사

-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정기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나 정책구성 시점과 조사 시점의 간극으로 인해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함.
- 향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항목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정책 수립 및 성과 평가에 적합한 실질적인 정보로서의 기능을 할 것임.

### ■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 청년예술인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 및 전체 예술인 대상 실태조사 중 청년연령층 응답을 재가공한 형태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태조사 항목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한계가 있음.
- 각 실태조사 대상과 시점에 따라 응답 항목에 차이가 있어 향후 인천 청년예술인 실태조사 지표를 일관성 있게 구성·설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정책 고관여 집단이 인천 전체 청년예술인의 대표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청년문화정책 수립 초기 장르별·지역별·연령대별 형평성이 고르게 안배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3) 인천시 청년정책의 특성

#### ■ 정책 지향의 변동성

- 2020년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1년 만인 2021년 수정계획안으로 변동됨. 중앙 정부 청년정책 변경에 따른 정책 조율을 위해 수정계획안을 제시했으나 정책 지향성의 일관성이 부족함.
-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제정되었으므로, 문화 분야의 정책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청년정책으로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정책지향의 수립이 필요함.

#### ■ 정책사업의 산발성과 이에 따른 분절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인천콘텐츠코리아랩 운영·MICE분야 크리에이터 육성·마이스 유니크베뉴 청년 체험단 프로젝트 등 취창업 및 청년 육성 프로그램과, 문화여가분야 정책간의 협력 프로그램에 분절이 발생함.
- 문화여가분야 8개 사업은 운영 주체가 공간운영 주체별(아트센터인천,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시설공단)로 나뉘어 있음.
- 인천청년포털 문화지원분야<sup>31)</sup>에 제시된 7개 사업은 운영주체가 다르며, 사업 변동 상황이 실시간 반영되어 있지 않음.

#### ■ 정책사업의 성과계획 미흡

- 각 정책대상에 대한 계획이 시설·공간 개소 수, 공연 횟수, 청년지원 수혜자 수 등 수치 결과 중심의 평가만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 정책성과에 대한 계획이 미비함.
- 정책 대상이 주로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정책수요자·향유자에 대한 정책적 관점 필요하고, 동시에 지속가능성 및 실제적 문화환경 성과 계획과 평가가 필요함.
- <퇴근길 콘서트>의 경우 1인 2만원 할인·연간 1회 신청가능하고 대상공연은 3회의 사업기간에 한하는 제한사항으로 인해, 청년 근로자의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정책으로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정책목표 및 성과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청년들의 활동에 발맞추어야 할 것임.

다. 현재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 정책

#### 1) 인천문화재단의 정책 특성

##### ■ 위탁사업 중심 한계

- 청년문화사업이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인천시 청년정책사업의 일부만 위탁사업으

31) 인천청년포털 웹사이트. <https://www.incheon.go.kr/youth/YO050201>

로 운영함으로써 한계가 있음.

- 사업 성과가 예산분배에 치우쳐 성과목표가 아닌 결과목표가 강조됨으로써 정책사업의 지속가능성·과정평가·사례 벤치마킹·장르별 시범사업과 같은 질적 평가 및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문화권역별·기초자치단체·기초문화재단 간의 연계성이 미흡함.

#### ■ 청년문화팀 사업의 특징

- 총괄적 청년문화사업 운영·지역문화 관점의 사업 운영과 분리된 결과 청년문화가 아닌 청년예술지원에 한정될 가능성이 있음.
- 청년문화팀 사업을 신진예술지원정책과 명확히 차별화하지 않을 경우 중복사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큼.
- 정책 대상의 특정화·다양화가 미비하므로 다양한 층위의 청년문화지원정책이 필요함.
- 청년문화팀이 전체적인 정책 수립을 주도할 수 없고 역량이 수탁사업 수행에 소진됨.

#### 2)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사업의 이슈

##### ■ 청년문화지원정책 관점·방향성 명확화

- 인천시 청년정책 미션과의 연계성, 인천문화재단의 미션에 따른 정책적 관점이 필요함.
- 광역권 문화재단으로서의 인천 청년문화지원정책의 관점이 필요함.
- 단발성 사업이 아닌 연속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다양한 청년문화 정책 공급자·정책 수요자에 대한 현황(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연령대에 따른 정책이 갖는 한계(정책대상자의 유동성)를 감안해 예비 청년층·청년층 초과 연령대 대상의 정책, 청년문화지원정책의 연속성·연계성에 대한 설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함.

##### ■ 청년문화팀 구성 확대 및 역량 확대 필요

- 인천문화재단 모든 사업 부문에 있어, 청년대상 사업을 청년문화팀 사업으로 통합관리하거나 혹은 협업 관리가 필요함.
- 여타 기초재단과의 사업 연계성 및 협업을 갖추기 위한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함.
- 정책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청년문화지원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청년들이 청년문화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 확충 및 세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천 청년들의 문화적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필요함.

## Ⅳ. 의견수렴 및 타 지역 사례

### 1. 기존 사업에서의 인천 청년문화 의견수렴

가. <<인천청년문화예술 지원사업 중장기 로드맵 제안>><sup>32)</sup>

#### 1) 인천 청년문화예술 지원사업

##### ■ 2021 예술표현활동 지원사업 결과

- 인천지역 예술활동증명 청년예술인 총 4,930명 중 2,938명(전체 대비 59.6%).
- 총 145건 중 40대 미만 선정건수 44건(전체 대비 30%).
- 장르별: 문학 0% / 시각 33%(13/39) / 무용 33%(2/6) / 연극 42%(8/19) / 음악 38%(10/26) / 전통 33%(4/12) / 작은예술공간 33%(2/6) / 연구지원 0% / 국제교류 0% / 역량강화 83%(5/6).
- 2020 예술창작지원사업(기획지원사업-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부 내 지원사업에 한함) 선정건수: 총 370건 중 40대 미만 선정건수 139건(전체 대비 37%).
- 사업별: 예술정거장 100%(2/2) / 신진예술가기획지원-바로 그 지원 100%(32/32) / 인천미술은행 36%(44/122) / 인천형예술인지원 32%(20/63) / 공연예술홍보콘텐츠 31%(10/32) / 창작공간지원 26%(28/108) / 서해평화예술 33%(3/9) / 예술인연구지원 0%.

#### 2)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참여 데이터 분석결과

-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과 같은 전통적인 지원사업 영역에서는 청년예술가들의 선정 비율이 높지 않으며, 특정 분야(역량강화)에서 청년예술가들의 약진이 돋보임.
- 기획지원사업 영역은 전통적인 지원사업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나 실험이 일부 시도될 수 있는 영역임.
- 연령대 혹은 창작생애주기를 제한하고 있는 <신진예술가기획지원>, <인천형예술인지원, 유망예술인>을 제외하면 322건 중 91건, 28%로 다소 낮은 선정 비율임.

#### 3)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업 수혜자에서 사업의 주체성을 지닌 당사자로의 청년문화예술 정책 부족함.
- 행정 중심 문화예술 정책에서 청년을 대상화 혹은 타자화 하는 경향 지속: 단발성, 예술노동의 도구화
- 정책사업 파트너로 청년 예술가·창작자를 마주하는 제도적 시선의 변화 필요
- 청년 대상 사업의 유연한 제도적 장치 필요: 과정 중심, 장기적 대화 창구(플랫폼), 청년 예술인이 예술 활동과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도시의 관점으로 정책적 방향을 수립,

32) 인천문화재단(2021), 인천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 중장기 로드맵 제안-인천문화재단(2021 창작지원부)을 중심으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된 청년 당사자로서 정책과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지속가능한 정책구조 안에서 꽃피우는 청년문화예술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예술가상 제시

#### 4) 청년문화예술 거점 공간의 안정성 확보 필요

- 인천 문화예술분야 청년을 위한 거점 공간의 지속가능성 논의 구조 미흡
- 물리적 공간의 안정성을 넘어서 사업 구조의 안정성을 위한 방안 시급-인천청년문화 창작소의 한계 → 청년문화예술 거점 공간의 안정성 확보
- 청년의 상상을 현실로: 넉넉하고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공간 확보 및 운영
- 3년 단위 재위탁 구조 탈피
- 청년예술인거점(문화예술특화거리 <청년 점점점>)-중구 원도심

#### 5) 지역 내 청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발굴 노력

- 느슨한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관계 구축 방안 모색
  - 주거·생계·사업·도시재생·마을 등 지역에서의 청년활동을 고민하는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으로 교류, 타 영역(기관)과의 협업 제안함.
- 청년예술인의 창작생애주기를 고려해 다양한 세대 간 다양한 교류와 사업의 환류체계 마련 필요
- 지역 내 청년사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발굴
- 고립에서 협력으로: 네트워크 사업 영역 개발 및 확대-인천청년한달레지던시 사업, 후속세대와 자유로운 연계와 연대

#### 6) 청년예술가의 창작-발표-유통에 이르는 문화예술 선순환 구조 필요

- 창작지원 영역에 한정된 사업 구조에서 예술창작 전 과정에 이르는 제도적 방향 필요
  - 청년예술가의 창작-발표-유통에 이르는 문화예술 선순환 구조 제안함.
- 예술 창작의 건강한 선순환 체계로 창작에서 향유까지
  - 청년 바자르 사업.

#### 7)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사업 방식 모색 필요성

- 도전과 시도·실험이 가능한 청년 맞춤형 사업의 부족
- 창작활동 진입과 창작활동 경력 단절이 동반되는 청년예술인의 현황 연구 필요
- 예술인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미흡
  - 청년예술인의 창작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사업 방식 모색 제안함.
- <실패해도 괜찮아>: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지원사업 모델 제시
  - 리빙랩(lab)으로 제안된 사업의 파일럿 지원을 개발 제안함.
- 상시적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동반성장
  - 워크숍 시리즈범위 확장 및 지속성 확보 제안함.

나. 2022년 지역기반 청년 문화예술 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1) <2022년 지역기반 청년 문화예술 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주제

<표 IV-1> 지역기반 청년 문화예술 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회차별 대상

회차	대상	참석자	일자
1	청년 논의 범주 - 예술대학 학생 등 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 꿈꾸는 청년	이영근(기획), 김한솔이(문학), 최윤미(공연), 오연주(공연), 신용남(공연), 김푸르나(시각), 채경식(인천시), 최찬노(인천시), 인천문화재단(태지윤, 최선미, 송소민)	6. 8. 수
2	청년 논의 범주 - 예술 활동을 시작한 청년	이영근(기획), 김한솔이(문학), 최윤미(공연), 오연주(공연), 선우은실(문학), 김푸르나(시각), 채경식(인천시), 최찬노(인천시), 인천문화재단(태지윤, 최선미, 송소민)	6. 21. 화
3	청년 논의 범주 - 청년의 기점을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 청년 - 나이 기준	이영근(기획), 김한솔이(문학), 최윤미(공연), 오연주(공연), 신용남(공연), 선우은실(문학), 김푸르나(시각), 채경식(인천시), 최찬노(인천시), 인천문화재단(태지윤, 최선미, 송소민)	6. 30. 목
4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 사업에 대한 의견 - 청년문화예술인 연대, 네트워킹관련 의견 - 다년지원사업	이영근(기획), 김한솔이(문학), 최윤미(공연), 오연주(공연), 선우은실(문학), 김푸르나(시각), 채경식(인천시), 최찬노(인천시), 인천문화재단(태지윤, 최선미, 송소민)	7. 5. 화
5	분야별 청년예술가 및 기획자에게 필요한 사업 의견수렴	이영근(기획), 최윤미(공연), 오연주(공연), 선우은실(문학), 김푸르나(시각), 채경식(인천시), 최찬노(인천시), 인천문화재단(태지윤, 최선미, 송소민)	7. 11. 월
6	청년기획자 지원방안, 청년문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이영근(기획), 김한솔이(문학), 최윤미(공연), 오연주(공연), 선우은실(문학), 김푸르나(시각), 채경식(인천시), 최찬노(인천시), 인천문화재단(태지윤, 최선미, 송소민)	7. 20. 수
7	인천 청년기획자 및 예술가 지원방안 인천 청년문화축제 지원사업 의견	이영근(기획), 김한솔이(문학), 최윤미(공연), 오연주(공연), 선우은실(문학), 김푸르나(시각), 채경식(인천시), 박서현(인천시), 인천문화재단(태지윤, 최선미, 송소민)	8. 2. 화
8	인천 청년기획자, 예술가 지원방안, 문화예술 지원사업 - 지원사업 내 수익사업 관련 논의	이영근(기획), 김한솔이(문학), 최윤미(공연), 신용남(공연), 오연주(공연), 선우은실(문학), 김푸르나(시각), 채경식(인천시), 박서현(인천시), 인천문화재단(태지윤, 최선미, 송소민)	8. 10. 수

2) 라운드테이블 흐름 및 주요 내용

■ 이슈의 흐름

- 총 8회차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는 동안 주요 이슈는 ▲청년의 범주에 대한 논의 ▲청년(정책)에 필요한 것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청년 기획자에 대한 논의 ▲인천문화재단 사업 활성화 방안 ▲청년문화축제 지원사업 등으로 수렴하였음.
- 청년문화지원정책의 본격화에 앞서서 대전제라 할 수 있는 청년의 범주, 즉 정책적 정

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미비점과 보완점, 나아가 인천문화재단 사업의 구체적인 지점까지 논의의 흐름을 요약할 수 있음.

#### ■ 청년의 범주에 대한 논의

- 청년의 범주에 관해서는, 《인천청년문화예술 지원사업 중장기 로드맵 제안》<sup>33)</sup>에서도 드러나듯이 ‘예술활동’이 주요한 기준으로 대두된 동시에 세부적인 결이 논의되었음.

- 예술대학 학생인 경우, 대학전공과 무관하게 예술활동을 시작한 경우, 예술활동을 시작한 연령대가 청년기본법과 조례의 규정과 차이 나는 경우 등이 폭넓게 논의됨.
- 마찬가지로 청년기본법과 조례가 규정하는 연령대 내에서도 활동 경력에 따라 세분화하여 특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됨.
- 이 외에는 청년문화지원정책의 수요자로서 비예술가 청년에 대한 고려, 공간 운영 및 사업 참여에 있어 청년의 당사자성을 반영할 필요 등이 논의됨.

#### ■ 청년(정책)에 필요한 것

- 청년에게 필요한 것 또는 청년문화지원정책에 필요한 속성으로는, ▲경험 ▲자발성 ▲연속성 ▲지역성이 제시되었음.

- ‘경험’은 청년문화와 관련하여 청년들이 사소한 경험이라도 가능해야 하며, 실패와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가 요구됨.
- ‘자발성’은 청년문화지원사업 참여가 재미를 동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 ‘연속성’에 대해서는 연속 지원사업과 신규사업 간 예산의 구분, 후속 기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청년문화지원정책 대상 연령대 이탈 시에 대비한 지원, 멘토-멘티와 같은 형태에 기반한 청년문화 정체성의 연속성 등이 논의됨. 특히 인사이동이나 신규 인사 등 지원기관 내부에 불가피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청년문화지원사업은 지체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지역성’은 청년 인구 역유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서, 인천에 연고만 있으면 청년문화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논의됨.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 및 육성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sup>34)</sup>를 참고하면 ▲인천 출생 ▲인천 거주자 ▲인천 소재 학교 재학·졸업자 ▲인천 소재 직장·단체 소속 등이 연고의 기준이 될 수 있음.

33) 인천문화재단, 2021

34)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2

■ 청년문화 활성화 교육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워크숍 ▲멘토링 ▲네트워킹으로 구분해볼 수 있음.

- '워크숍'은 여러 장르 간, 각 사업단위별, 예술계 현직 실무자와의 연계 워크숍 등으로 이루어짐.

- '멘토링'은 청년문화지원정책에 필요한 속성 중 연속성에서도 언급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멘토-멘티 사업의 수요가 드러남. 1:1 멘토링, 전문가 선배와의 연결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됨.

- '네트워킹'은 다양한 분야 간에 자발적인 네트워킹을 전제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실무자간 연대와 연계에 기반한 협업 및 상호교육, 평생교육 개념에서 전문경력자의 재교육 등이 필요함. 이는 인천문화재단이 교류 플랫폼으로서 기능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함.

■ 청년 문화기획인력

- 청년 문화기획인력에 관해서는 다방면의 개선이 요구되었음.

- 우선, 청년 문화기획인력의 육성과정 더욱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청년문화지원사업의 육성으로까지 확장이 이루어져야 함.

- 청년 문화기획인력에게는 활동에 기반이 되는 장소·네트워크·연구·멘토링·퍼실리티이터·동료·프로젝트·매니저 등이 폭넓게 필요한데, 특히 청년문화지원사업 예산 안에 청년예술가의 창작비와는 별도로 청년 문화기획인력의 기획비용이 별도로 책정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창작이나 출판 등을 위한 창작지원·레지던시 프로그램 못지않게 관객 또는 독자와의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중성을 담보한 기획의 역할이 중요시됨.

- 가칭 '축제 기획자 아카데미'를 설치·운영하여 출신자의 역량 강화 및 기용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임. ▲축제 기획 멘토·예술감독 섭외 ▲명함·기수제 등 운영 ▲다년간 순차적인 기획력 발전을 위한 교육 ▲소속감을 위한 워크숍 개최 ▲예술가 네트워크 캠프 개최 ▲상설 야외축제 브랜드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됨.

■ 인천문화재단 사업 활성화 방안

- 전반적으로 ▲공공성 ▲정보력 ▲홍보력 ▲수익성이 요구되었음.

- '공공성'에 있어서는 심사의 공정성, 문화정책사업에 지원하는 단계에서의 대가, 지원

사업 악용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각종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한 성과 진작 등으로 보완할 수 있음.

- '정보력' 관련해서는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정보에 접근성이 저조하고 지역연구 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이러한 정보의 아카이빙 필요성이 대두됨.
- '홍보력'은 우선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이 미흡하다고 여겨져 주간 뉴스레터 또는 다양한 SNS 채널 등을 활용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하며, 또한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인력풀 소개란을 마련해 홍보와 협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도 제시됨.
- '수익성'에 대해서는, <청년 점점점>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도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마지막 연도인 3년차에는 공간 안에 수익모델을 마련 가능하도록 하여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원사업을 통하는 경우 무료가 많아 유료공연을 확대해야한다는 제안도 있음.
- 이 외에도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문서작성 등 행정지원, 활동경험의 범위에 따른 사업대상 다각화 및 맞춤형 지원, B2B 페어 등을 개최해 활동이력을 만들어주는 사업 등이 지목됨.

■ <청년문화축제 지원사업>

-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2022년과 2023년 사업의 연속성이 요구되었음.

- 2022년 올해 진행된 <청년문화축제 지원사업> 내 공통소재나 흥미를 끄는 요소를 묶어서 내년 사업 계획(기획)에 반영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 제안됨.
- 이는 2023년 내년 <청년문화축제 지원사업>의 주제 설정에 대한 고민으로도 이어짐.
- 장차 가칭 '인천 청년 페스티벌'로 브랜딩 할 것이 제안됨.

## 2. FGI 내용 및 분석

가. 개요

### 1) FGI 대상

-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사업 참여자
- 지역 내 문화단체 청년활동가
- 청년 예술인

<표 M-2> FGI 개요

구 분	대 상	일 시
1차	권근영(공연예술가), 김푸르나(시각예술작가), 김한솔이(문학작가), 박지선(시각예술작가), 오석근(시각예술작가)	22.9.30. 오후 2시~4시 30분
2차	김은별(인천민예총), 김정민(품물패더눔), 박기훈(시각예술-판화), 송희근(공연예술-연극), 이소미(서구 민중의 집) 이현호(시각예술-한국화), 최효정(인천 자바르떼), 황문정(시각예술-조각),	(1) 22.10.17. 오후 6시~7시 40분,  (2) 22.10.21.~22.10.25. 서면

### 2) 주요 질문

<p>1. 인천의 청년세대가 전반적으로 역외유출이 많고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것이 지역의 문화적 어메니티<sup>35)</sup>와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p> <p>2. 최근 인천을 포함한 전국의 중앙,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이 많아지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정책도 많아졌다. 이에 대해 인천에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간단한 인상평을 부탁드립니다.</p> <p>3. 어떤 경로로 인천 거점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인천문화재단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인천시 다른 사업과 재단사업과의 차별성이 있는지?</p> <p>4.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팀 조직의 사업을 구상하는 관점에서 청년'예술'과 청년'문화'</p>
---

각각의 시사점이나 접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5. 청년 입장에서 인천 라이프스타일의 주요 요소, 예술가 입장에서 인천에서 창작활동하기 위한 주요 요소는 무엇인지?

6. 5번 질문 관련하여 생활권이나 활동반경은 어떻게 되고, 혹시 가능하다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도 있는지?

7. 이번 '2022 청년문화축제지원 지원사업'은 지원금 규모도 상대적으로 증액되고 선정된 주제도 다양하다는 의견이 있다. 꼭 이 사업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흐름이 인천청년문화 정책사업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을지? 혹은 다른 의견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3) FGI 주요 내용

#### ■ 논의의 흐름

- 논의는 대체로 문화적 특징 및 사업·시설·공간·인프라 등 인천지역에 대한 것, 청년문화 본연의 변화 및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등 청년문화에 관한 것, 그리고 인천의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으로 이루어졌음.

#### ■ 인천지역의 문화적 특징

- 현재 인천지역의 문화적 특징에는 서울과의 관계성이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인천지역에서의 청년문화에 대한 수요와 욕구, 가능성도 일부 드러났음.

- 서울에 교육기관·공연·전시·네트워크·문화정책 등 각종 자원이 밀집해 있고 고도화된 반면, 인천은 수도권 대도시임에도 지방 순회공연이나 전시 등도 잘 개최되지 않아 서울에서 문화적 수요를 해결함.

- 이와 같은 편리함을 감안할 때에는 인천 청년인구가 서울로 이동하고 서울에서 생활하는 게 더 자연스럽기도 한데, 반면 인천은 서울에 비해 경제적 환경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음.

- 인천에서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고 현실적으로도 본업 활동으로 인해 여유가 없음.

- 인천이 문화적 특색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지역이 넓어서 권역별 구획은 가능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강화도에서 청년들의 활동이 돋보임.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35) 어메니티(amenity): 인간이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쾌적함이나, 쾌적함을 불러일으키는 장소. 어떤 지역의 장소, 환경, 기후 따위가 주는 쾌적성. 아름다운 경관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함을 포함하는 미(美), 감(感), 쾌(快), 청(靑)으로 표현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멀고 교통사정이 좋지 않아 접근성이 제한됨.

- 동시에 FGI 시점 무렵 특정 주간에는 인천의 모든 공원에서 축제가 있었을 만큼, 지역 내 문화적 수요와 욕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진단도 있음.
- 청년들이 인천 출신, 인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인천의 성공한 예술사업들이 다른 지역에 본보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서 지역예술에 대한 자발적인 욕구가 보임.

■ 인천지역의 문화적 인프라

- 대체로 시설·공간 등 인천의 문화적 인프라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차츰 청년문화지원사업을 포함한 문화정책 및 사업 개선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었음.

- 인천 문화시설에 대한 홍보와 정보가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도 많아 전반적으로 오래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한계로 다가옴. 역사적 건물과 명소 등이 주로 외관에 치중하다보니 방문 시에는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도 많으며, 따라서 스토리텔링과 예술적 관점이 더욱 요구됨.
- 인천 내 문화시설 활용도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연습공간·창작공간 등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인천에는 예술고등학교나 예술대학이 부족하고 설립시기도 늦은 편이어서 서울을 중심으로 교류가 형성됨.
-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확대되었으나 청년예술인 보다 더 전방위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타 사업·시설·공간 등도 청년예술인들의 동선 및 라이프스타일과 부합하지 않음.
- 인천의 문화적 쉼·공간이 부족한 만큼 청년들의 활동도 가시적이지 않음. <청년 점점> 사업을 유지하고 더 활성화하는 등 공간 지원이 더 확충되어야 함.
- 인천문화재단 일부 지원사업들은 규모가 작아 참여 대비 효과나 성과가 미미하다는 진단이 있는데, 전체 지원사업의 수를 줄이더라도 핵심 사업에 주력하여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을 포함한 청년들이 연구와 실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충할 것이 요구됨.
-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모니터링 시에 필히 전문요원을 파견해 피드백 하도록 해야 청년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실제적인 도움이 됨.
- 예술인지원센터와 시작공간 일부의 기능이 중복되어 분리할 필요가 있음. 예산이 한정된 만큼 복지는 복지대로 나누고, 청년문화지원사업 예산도 능력대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인천의 문화정책 및 사업이 더욱 변별력을 갖출 것임.
- 인천의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원사업 담당 직원들이 5년 정도는 연속적으로 업무를 하고 인수인계도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요구됨.



■ 청년문화의 변화

- 인천에서도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청년문화 전반의 변화가 나타났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문화에 있어 일종의 세대적 특징이 형성되었음. 개인 활동이나 운동 등 일상생활이 활성화되면서 집단적인 문화가 사라졌음. 청년들이 단체 활동이나 긴밀한 대인관계에 개입하려 하지 않음.
- 이러한 개인 중심의 활동상은 일부 단체활동 중심의 지원사업과 불일치하여 청년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함.
- 문화예술 활동 참여가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청년들의 이직·전직이 빈번해져서 활동에 단절이 발생함. 경제적 여유 못지않게 시간 여유가 없다고 체감함.
- 청년 인구·생산가능 인구·창작 및 예술활동 하는 인구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 이상 청년문화 활성화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진단 또한 존재함.
- 이 외에는 법과 제도상 청년의 연령대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청년문화의 특성이 모호해지므로 예컨대 5년 단위 정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청년문화지원사업 관련

- 이 단락에서는 문화정책 및 사업 중에서도 청년문화지원사업 및 대상에 관한 내용들을 다룸.

- 청년문화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목적성과 지역문화 관점을 설정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대상별 수요에는 차이가 있었음. 그 외에는 사업 구상 의견 등으로 이루어짐.

- 청년지원 명목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긴 했지만,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사업들은 산발적이며 주기적·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음.
- 현재는 지원 목적이 무엇인지 다소 모호함.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와 목적성을 뚜렷이 하며 평가 및 아카이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청년문화축제> 지원사업에 지역문화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 리서치 기간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 기간도 지원 가능한 구조를 도입해야 할 것임.
- 청년예술인들의 경우 예술인증명 등에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개인 작업을 위한 시간이나 과정 지원에 수요가 있음.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사업이 조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의 문화정책 동향이나 고도의 기획력을 요하는 지원사업보다는 순수예술 지원에 대한 수요도 있음.
- 청년 문화기획인력들의 경우 활동주기상 상대적으로 1월과 2월에 여유가 있는 편이라고 응답해, 이 시기에 활동가들을 위한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에 수요가 있음.
-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전반으로 보면, 사업정보·사업진행 홍보·사업 후 정산

방식 등 서류작업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 다른 지역과의 교류(한달살기·섬살기), 역량 강화를 위한 견학(해외·다른 지역·다른 사업) 프로그램, 힐링 프로그램 등에서도 수요가 드러남.

■ 인천의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 인천의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은 주로 민간영역과의 협업을 전제로 콘텐츠 개발·홍보·소비 등 경제적 관점의 의견들이 제시되었음.
- 또한 문화예술 전반의 활성화라는 점에서, 청년과 중장년의 교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인천의 지역적 특색이 있는 콘텐츠를 개발·확산·정착시키는 지원 필요함.
- 청년 등 문화소비자들이 흥미 있는 문화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SNS 등 친숙한 플랫폼을 통한 홍보가 필수적임. 각 기관 홈페이지 등 기존의 플랫폼은 사전지식 없이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문화바우처 등을 발급하여 전시·공연·축제 등 정보를 전달해 흥미를 유도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임.
- <청년 점점점> 사업과 같이 공간을 다년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함. 추후 수익을 점차 공간 운영 청년들에게로 이관하는 방향이 필요함.
- 인천에서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협회 가입을 독려하는 것은 때때로 오히려 청년 작가들의 활동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음.
- 청년들 네트워킹 사업도 좋지만 청년 및 중장년 예술인들이 협력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된다면, 청년들이 처음 시도하기에 부족한 지점에서 기존 예술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음.

### 3.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및 분석

가. 개요

#### 1) 자문회의 대상

- 청년문화정책 연구자
- 지역 청년문화정책 및 사업 기획자
- 인천 청년문화정책 연구자

<표 IV-3>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구 분	대 상	일 시
1차	김규원 (한국문화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2.9.20. 오후 5시~6시 30분
2차	김성혁 (놀라운 예술터 · 뜻밖의 미술관 센터장)	22.9.22. 오전 10시~12시
3차	최영화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장)	22.9.22. 오후 2시~4시

#### 2) 질문

<공통 질의>

1. 최근(2010년대 중반 이후) 청년세대에 대한 공공정책의 관심이 커지면서 청년정책과 청년문화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제시, 사업화가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전반적 의견은?(방향 설정에 관하여)
2. 청년문화정책이 중앙과 지역, 광역과 기초, 시 정부와 중간지원조직(문화재단 등)에서 각각 만들어지면서 다소 산발적이거나 소모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업이나 시너지에 대한 고려와 대안에 대한 의견은?
3. 청년정책의 대상이 「청년기본법」(만 19~34세), 지역조례와 행정관행(인천 19세~39세)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있고 이런 연령 구분에 따른 정책 운영이 “청년문화”의 정체성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도 하다. 이런 연령주의적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설정은?

<개별 질의 1>

4. 청년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선생님의 연구에서 드러나신 부분이 있다면? 변화하는 측면과 지속되고 있는 측면의 양 측면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5.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청년문화정책(사업)이 있다면 어떤 방향에서 설계될 수 있을지?

<개별 질의 2>

지금까지 여러 지역의 청년문화와 정책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했다. 청년들은 '데뷔/등단 후 전업 예술 활동' 하기보다 (1) 서울 이탈 및 지역 정착 (2) 창업 등 활동 기반 마련 (3) 각종 정책사업 참여, 비슷한 상황의 청년들 사이에 협력 등 성과 확산. 순서로 활동을 전개해왔다.

1. (1), (2), (3)의 단계를 거치셨다면 각 단계에서 유효했던 정책사업, 개선이 필요한 정책사업, 새롭게 필요한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혹은 각 단계에 부합하지 않으시다면 '지역에서의 청년문화 기획·활동·정책'에 대해 직접 경험하고 느끼셨던 고유한 점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예시 질문은 참고하시면서, 답변이 가능한 경우에 부탁드립니다.

- ex. 1) 이 연구는 배경이 인천이어서 활동하시는 전주와 차이가 예상된다. 주제와 관련해 유의할만한 전주의 고유한 특징 또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 2) 성악, 오페라로 예술을 시작해서 문화기획과 정책으로 분야를 넓히셨다고 들었는데, 기존 예술계 및 제도(장르별 데뷔·등단·전업활동 등)과 청년문화 활동·사업·정책 등을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 ex. 3) 청소년은 장차 청년이 되고, 청년은 장차 중장년이 된다. 이렇게 주요 행위자가 변화하는 중에도 청년문화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개별 질의 3>

1. 온라인공간과 지역청년문화정책의 관계 쪽으로 선행연구의 중점을 내리셨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청년문화 관련 온라인플랫폼 형성할 때 (인천)지역성에 대한 고유성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지?
3. 현재 온라인 플랫폼이 지원사업 신청의 형태로만 되어 있는데, 향후 방향성은 어떻

게 되어야 할 것인지?

4. 재단 내 청년문화팀이 신설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인천시 청년문화관련 부서들(영역별)이 각각 주도하는 사업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인천청년포털문화지원(<https://www.incheon.go.kr/youth/Y0050201>)

후첨자료 18P

- ① 청년 로컬라이저 육성 지원(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생태계팀)
- ② 청년이 만드는 인천여행(인천관광공사 국내관광팀)
- ③ 청년문화활성화 사업(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팀)
- ④ 청년문화창작소(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팀)
- ⑤ 인천유니크베뉴 청년체험단(인천관광공사 MICE부로)
- ⑥ 제물포 지하도상가 청년특화 문화공간 운영(인천시설관리공단 상가주차사업단)
- ⑦ 청년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콘서트(아트센터 인천 운영과 공연기획팀)

5. '추진전략'대로 실현되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체감하시는지?(실태조사·제도 변화·인력양성·청년문화사업 다양화)

6. 청년 수요(향유자·고관여계층)에 대한 전략방안은 무엇이 더 추가될 수 있을지?

### 3) 자문회의 주요 내용

#### ■ 논의의 흐름

- 3차례 자문회의를 거치는 동안 논의는 주로 ▲청년 세대 구분 ▲지역 간 청년 교류와 생활인구 관점 ▲대학 및 대학생 관련 ▲중앙·인천·지역에서의 청년문화정책 등을 골자로 수렴하였음.

#### ■ 청년 세대 구분

- 청년문화와 청년들의 세대 구분은 주로 대학 졸업시기를 기점으로 2~4년 정도 기간으로 구획되는 가운데, 경제적 전망에 따라 문화정책과도 일정한 관련을 맺으며 인천의 경우에는 지역기반산업의 역할이 부각되었음.

- 세대 구분 연령범위가 짧아졌으며 대학생들 졸업시기가 중요 시점임. 학점·스펙 관리 등으로 인해 재학기간 동안에는 청년문화와 큰 관련이 없음. 대학문화와 청년문화가 더 이상 상통하지 않음.

-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대졸자들은 공공기관 입사를 선호하고 특히 문화도시 사업에 종사함.

-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대졸자들은 공공기관 입사 후 문화도시 사업에 종사하는 선배들을 목격하고 비관함. 이 시기에 20대의 창업률 높고 영끌족·부동산 경매 증

가함.

- 2020년 이후 대졸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대학시절을 보내 외로움을 절감함. 영끌족 선배들의 고난을 목격했으며 교통비(지역 내/지역 간)·식비 등 생활비 문제에 직면함.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선후배 관계를 갈망함.
- 최근 청년들의 주요 화두는 공공 기금 및 행정이 투입되는 정책 사업에 관한 것이든, 본인의 돈과 시간을 들이는 것에 관해서든, '가성비'라고 할 수 있음. 무조건 공공 기금을 소모하고 수혜자 수만 많으면 족하는 '성과주의'는 이 가성비에 부합하지 않음.
- 청년들은 실제 목소리 내지 않지만 문화정책 및 사업이 실행되는 순간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함. 나가서 목소리 내기를 선호하지 않지만 지켜보니 피해가 있다고 느낌.
- 청년주기별로 단계적 지원이 필요함. 법정 나이 제한을 넘어서 청년문화지원사업으로부터의 아름다운 졸업을 맞이하는 방향이 필요함.
- 서울시는 연령대를 기준으로 지원하지 않음. 청년예술인을 규정할 때 나이·장르·경력 등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미래문화예술인 관점을 도입함. 그 정책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평가가 필요함.
- 인천 청년 중 30대 이상은 산업단지 제조업 기반 근로자들이 꽤 많음. 30대 중 고급 인력은 일자리 없어서 떠나지만 제조업·산업단지의 경우 청년들이 인천에 계속 거주하고 들어옴.

#### ■ 지역 간 청년 교류와 생활인구

- 최근 공공정책에서 '생활인구' 관점의 접근이 부상함에 따라 청년문화지원정책 등 문화정책에서도 이를 참고할 수 있음. 이는 정주인구 또는 고유성 등 고정적이고 결정적인 지역적 관점을 다소간 탈피해 청년이 경제적 전망을 확보하는 가운데, 지역의 문화적·경제적 자원이 순환하는 구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수도권을 제외하면 청년들 사이에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하고 수요가 있음. 지역 청년들 사이에 교류가 더욱 촉진되어야 함. 그동안 지역에서 진행해온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몰> 등 사업에는 종료 후 청년들의 '자립 구도'가 부재함.
-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정주인구가 아니라 '생활인구'에 착안함. 정주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이 소멸한다는 주장은 행정적 관점이 강하며, 앞으로는 유동인구에 따른 지역 생활인구에 주목해야 할 것임.
- 그러한 점에서 <더 큰 내일>, <청년마을>이 주목할 만함.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더 큰 내일> 사업의 효과로 '웬만한 제주 기업에는 신뢰할만한 선배가 있다'는 생각이 청년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음. <청년마을> 사업은 1기~3기 기수 간의 네트워크가 원활하고 지역 간에 서로의 사업을 홍보해줌.
- 문화예술 공모사업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은 본인들에게 할당량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오히려 공공이 청년들의 발목을 잡기도 함. 따라서 청년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동해 다녀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성은 결국 같이 살자는 것임.

- 지역별로 청년의 정체성이 다 다르지는 않을 것임. 직접 참여하고 싶고 기획하고 싶은 또래 세대의 문화나 특성이 서울 다르고, 인천 다르지는 않을 것임.
- 관광 관련 정책사업 관점을 지나친 수익 추구가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활동하는 방향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희공간을 문화시설이 아닌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해 지역 간 청년 교류에 있어 숙박을 해결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음.
- 지역의 고유성으로 한정하기보다, 지역 청년들이 선순환 구조 안에서 창작과 향유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현재 주로 서울에서 향유가 이루어지는 구조의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청년이 향유를 위해 경제적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문화예술 수요자로서 지역의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함.

#### ■ 대학생 관련 사업

- 현재 자문회의의 논의에서 대학생은 비교적 청년문화와 접점이 요원한데, 따라서 오히려 대학 및 대학생 관련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 대학에서는 공학 계열과 산학협력 사업 등으로 <링크(LINC)3.0> 사업과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을 대표적으로 참고할 수 있음.
- 일본 교육부는 지역 공헌 여부를 대학교 평가지표로 두고 있음. 이렇게 하면 지역 대학교의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많은 사업이 가능할 것임.
- 예술대학은 예술가를 양성하기만 할 뿐 지역에 대해 알려주지 않음. 따라서 공모 사업으로 생계를 해결하라는 건 무책임하고 정책이 방안을 만들어줘야 함.
- 사회에 나오기 전에 미리 예술장르 일자리나 방향성 보여주는 특강이 수요가 있었음. 전공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 나한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보려면 자기탐구를 해야 함. 대학 교육에서 자기탐구 할 시간이 없음.

#### ■ 중앙·인천·지역에서의 청년문화정책

- 청년문화지원정책은 현재 인천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더욱 정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방향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음.
- 공공공간, 재정확보, 사업기획, 사업대상 등 여러 관점에서 청년들의 상황과 수요·취향이 요구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기관 등 공공영역에서도 세부적인 접근과 전략과 요구되었음.

- 현재는 중앙에서는 청년문화정책 및 계획이 없는 상태로 방향 설정과 동시에 지역별 불균등한 청년예술·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함. 인천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이나 시에서 추진의지를 갖는 방향이 결국 청년문화를 만들 것임.

어떤 형태든 공론화 작업이 꼭 필요함.

- 인천시가 앞으로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강화한다면 현재 여러 갈래의 사업들 사이에 정책목표가 명확해야 할 거고, 신규사업이 늘어날수록 다른 지방자치단체 평균 수준 정도로는 인력 충원을 해야 할 것임.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온라인 소셜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협력해서 자생적 재원을 조성했음. 제주도 청년예술인들이 콘텐츠를 만들 때 텀블벅에서 모금 성공한 정도에 따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다양한 매칭을 제공함. 펀딩 플랫폼은 지원자격 자체가 없으니 여러 상황의 청년들에게도 참여의 폭이 있음.
- 인천시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참고한다면 경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존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신진 예술인도 참여가 가능하며 청년 취향에 맞는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임. 모금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다른 예술인들의 기획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될 것임. 인천의 청년 예술인들이 서로를 알게 되는 홍보·네트워킹 효과도 기대됨. 인천문화재단이 자체 청년문화 플랫폼을 만들기 전에 이를 통해 먼저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해볼 수 있을 것임.
- 청년들에게는 같은 세대가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한데 공공정책 및 사업에서는 유연한 활동에 한계가 있음. 누군가는 계획·정산을 맡아야 하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함.
- 공공정책은 상향식도 중요하지만 하향식도 적절하게 중요해서 지방자치단체·각종단체 경영자가 갖춰야하는 역량임. 청년들 역시 예컨대, <청년문화축제>라고 한다면 우선 참여하는 축제가 선행이 되고, 이때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자기주도형 축제로 바뀌나갈 수 있을 것임.
- 청년예술인과 청년시민문화를 구분해볼 수 있음. 그러나 청년예술인과 청년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섞일 경우라면 시너지도 있겠지만 사업 내에 서로 융화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할 것임.
- 기존 공간에도 청년 교류 공간을 확충하면 좋을 것임. 청년들만의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예컨대 그들이 원룸에 살 경우 면적·설비 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라면 주도적으로 편안하게 동료를 초대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음. 결국 마음대로 어울려서 활동을 모색해볼 만한 공공 공간이 없음.



## 4. 타 지역 사례와 시사점

가. 개요

### 1) 사업대상

- 청년문화의 개념과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청년문화정책 사업의 잠정적 대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청년예술인
  - 청년문화기획자(활동가)
  - 문화친화 청년층
- 타 지역 문화예술지원기구(문화재단 등)의 사업 사례를 별도로 조사함.

### 2) 사업 방향, 목표

- 청년문화정책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사업 대상자 간의 상호연계와 협업구조 정교화
  - 청년예술인과 청년문화기획자가 지역문화 생태계의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
  - 문화친화 청년층이 지역 청년계층 전반의 문화적 리터러시를 담당하도록 도모
- 공공 문화재단 등 예술지원기구는 각 대상의 전체 사업에서 청년문화 관련 목표와 지향이 분명한 것들을 분석함.

### 3) 정책의 지향

- 청년문화정책 사업을 포괄하는 지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청년 당사자성 · 자발성 · 자율성
  - 예술인에 국한하지 않는 보편 · 포괄성
  - 각 영역 실행사업, 지속 프로그램, 공간 정책 사이의 연계성 · 일관성
  - 학습 · 자기개발 · 취업 및 창업 · 주거 등 일상적 사안과 연계된 문화 사업의 확장성
  - 생애주기 상 청년세대 인구가 새롭게 유입 · 이탈하는 특징을 감안한 역동성과 지속성
  - 타 지역으로 이주, 온라인 문화 참여, 취향 공동체 구축 등 청년세대 문화의 시공간적 소통

### 4) 타 지역 사례 개요

- 사업대상, 방향과 목표, 정책 지향 등을 바탕으로 했을 때 타 지역 사례는 대체로 미래 사회정책으로서, 그리고 지역문화 생태계의 지속성 · 선순환 구조로서 청년문화지원정책과 정확히 부합하지는 않음.
- 이는 청년문화지원정책이 아직 청년정책과 문화정책 사이에서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 정책 범주로 충분히 안착되지 않았기 때문임.




- 국가 단위의 청년문화정책 연구를 보면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따라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를 보면 청년문화는 가변적인 특징이 있음.
- 결과적으로 청년정책·문화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갈래의 정책사업들이 여러 지역에서 청년문화 사례에 개입해 있음.
- 여기서 다루는 사례들 또한 청년문화지원정책이라는 범주에 정확히 부합한다기보다는 ‘지역 청년문화의 양상’, 그리고 이때 ‘정책의 종류와 특징’을 거꾸로 파악하려는 것임.
- 타 광역문화재단의 사례를 통해 광역문화재단의 청년관련 사업과 단위 사업별 사업비, 각 사업의 담당자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함.
- 각 문화재단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청년대상 문화사업은 아직 시작 단계로 여겨지고 각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업이 계획되어 있음.

나. 타 지역 현장 사례

1) 통영 인디 페스티벌

- <통영 인디 페스티벌>은 ‘티페스타협동조합’이 주최하는 지역문화 축제임.
- 티페스타협동조합은 통영 구도심 카페 ‘삼문당커피로스터스’ 대표 등 임원진 6명을 포함 9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진행형 통영의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청년 소상공인 및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축제를 만들어 왔음.
- 축제는 ‘삼문당 커피컴퍼니’, ‘고양이쌤책방’, ‘남녘부엌 남주’, ‘245스튜디오’ 등 청년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여러 공간에서 치러지며, 독립영화 상영 및 감독-관객 대화, 인디밴드 및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공연, 문학·수필 등 작가들의 강연 등으로 구성됨.
- 2020년 3회 차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젊은 축제”로 소개되었음.
- 2021년 4회 차에는 통영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시민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사전예매만으로 모든 공연 입장권이 매진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음.
- 2022년 5회 차 올해에는 경남도 <공동체지원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5년의 성과를 기록하는 아카이브 작업을 수행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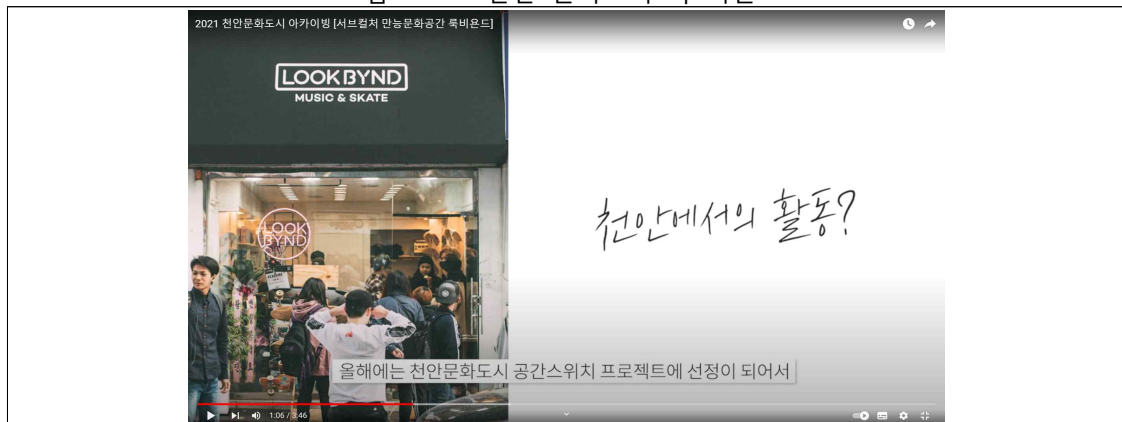
<그림 M-1> 중소벤처기업부-통영 인디 페스티벌<sup>36)</sup>

□ 경남	
사진	소개
	<p>&lt;해태로토피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해군 유흥공간 돌참고 + 재생 + 지역색이 묻어나는 예술적 체험’</li> <li>- 남해군의 양극을 적정하기 위해 활용하던 돌장고를 문화공간으로 재형하여 곁은층이 향유가능한 문화 인프라 구축</li> </ul>
	<p>&lt;newtb-2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쓰레기인 조개껍데기로 만든 업사이클링 디자인 제품 ‘Sea Stone’</li> <li>- 넘쳐나는 해양쓰레기 조개껍데기로 만든 100% 친환경 신소재 디자인 제품 상용화</li> <li>- 폐기물인 조개껍데기에 해조부산물을 첨가시킨 100% 친환경 신소재에 디자인적 심미성과 활용성을 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한 업사이클링(Upscycling) 리빙(living) 제품 및 관광 상품 생산</li> </ul>
	<p>&lt;삼문당 커피로스터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영 지역내 문화콘텐츠 상점을 한자리에 모으는 ‘통영 T-페스타’</li> <li>- 1~2회를 거처온 통영인디페스티벌을 독립 문화 복합 축제로 성격을 규정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젊은 축제로 성장</li> <li>- 구도심에서 영업 중인 작은 가게들의 문화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펼쳐 보일 수 있는 지역문화 축제</li> </ul>

## 2) 천안 룩 비욘드

- 천안시는 2021년 법정 문화도시 2년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도시로 선정되었음.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이전 2014년부터 천안역 인근 문화동 도시재생 지역에 청년들의 문화기획 활동이 집약되었으며 천안문화도시센터 등과 협력해 활발히 사업을 펼쳐 왔음. 천안시에 여러 다양한 청년문화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보드/켄다마 샵 ‘룩비욘드’가 대표적임.
- 2017년 무렵 ‘지방에는 썬이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아트큐브 136의 <시민문화 지원 사업 프로젝트>를 계기로 천안에서 공연기획을 시작하였음.
- 2018년 지역 아티스트들을 연결하는 공간이자 무대로서 ‘룩 비욘드’ 샵이 개점하였음.
- 2018년 11월의 <천안 인디뮤직씬 구축 프로젝트> 4회차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음악 공연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출연진이 천안·아산지역 밴드들로만 구성되었음.
- 2021년에는 <천안 문화도시 문화 공간스위치>(장소기반 시민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서브컬처와 스트리트아트를 융합한 새로운 기획공연 <커넥팅 더 다츠>를 기획해 지역 아티스트들과 총 8회의 공연을 개최하였음.

<그림 IV-2> 천안 문화도시-룩 비욘드<sup>37)</sup>



## 3) 대구 더 폴락

- 더 폴락은 다섯 학생의 아지트로 2012년 시작해 대구에서는 처음 설립된 독립서점임.
- 2015년부터 매년 독립출판물 축제 <아마도 생산적 활동>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이를 대구광역시·한국문화예술위원회·대구문화재단 등이 후원해오고 있음.
- 2016년 경 대구의 여타 독립서점들과 협의체 ‘대책마련’을 함께 구성하는 등 활발히 활동해오고 있음. 특히 대책마련은 2022년 올해 대구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예술창작·창업실험공간 아트랩범어(ArtLab:범어)를 독립출판물 기반 커뮤니티 공간 ‘창창더하기 -

36)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 이끌어 갈 로컬크리에이터 140개 과제 선정”, 보도자료, 2020.6.5.

<https://bit.ly/3etek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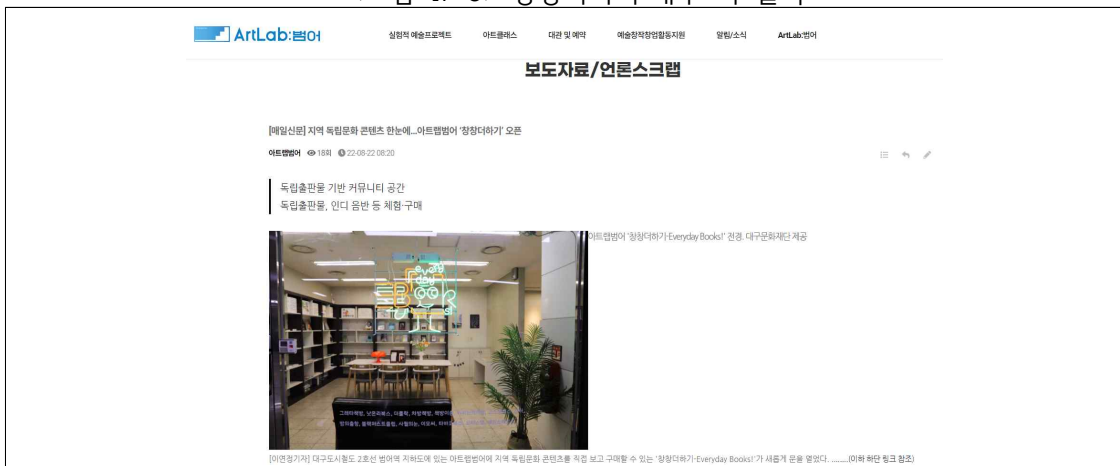
37)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1 천안문화도시 아카이빙 [서브컬처 만능문화공간 룩비욘드]”, 유튜브, 2022.1.25.

<https://youtu.be/2Jh95D9rtQ8>

에브리데이 북스'로 기획 조성하였음.

- 2016년 대구광역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역 사회 및 공동체 활성화 취지를 확립 하였음.
- 2021년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제7회 대구청년주간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획포럼 <로컬청년단체 잡담회>에 패널로 출연하였음.
- 2021년 대구광역시청년센터 <다모디소(所) 시즌5> 사업의 지원을 받아 공간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확충하였음.
- 2020~2021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사회의 지식문화 발전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음.

<그림 IV-3> 창창더하기-대구 더 플라자38)



#### 4) 속초 칠성조선소

- 칠성조선소는 원래 1952년 문을 연 조선소였으나, 조선업이 점차 쇠퇴하자 가업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2018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하였음.
- 지역 고유 건축유산과 자연환경 등을 그대로 보존하는 '에코뮤지엄'을 콘셉트로 하여 공장과 주거 공간을 박물관·카페·서점 등으로 바꾸었음. 로스팅 사업을 통해 자체 원두를 출시하는 한편, 음악 공연·전시 프로그램 등 문화행사도 개최하고 있음.
- 2017년과 2018년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되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비용은 물론, <오래된 미래>(공연)라든지 '칠성조선소 서체' 등 콘텐츠 개발 부분에도 지원을 받았음.
- 뜻밖에 해당 조선소 부지가 속초시 도시계획도로 건설계획(1977)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2019년부터 속초시와 규제 개선을 논의 중임.
- 2020년에는 4월 중에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최한 <로컬의 미래: 기술, 연결, 성장> 포럼이 칠성조선소에서 개최되어, 이 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해

38) 아트랩범어, "[매일신문] 지역 독립문화 콘텐츠 한눈에...아트랩범어 '창창더하기' 오픈", 웹사이트, 2022.8.22. [http://artlabbeomeo.kr/pg/bbs/board.php?bo\\_table=board\\_news&wr\\_id=470](http://artlabbeomeo.kr/pg/bbs/board.php?bo_table=board_news&wr_id=470)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로컬크리에이터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음.

- 2021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는 칠성조선소와 5천만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해 강원도 대표 로컬 벤처로 적극 지원할 것을 밝혔음.

<그림 IV-4> 중소기업 옴부즈만-속초 칠성조선소<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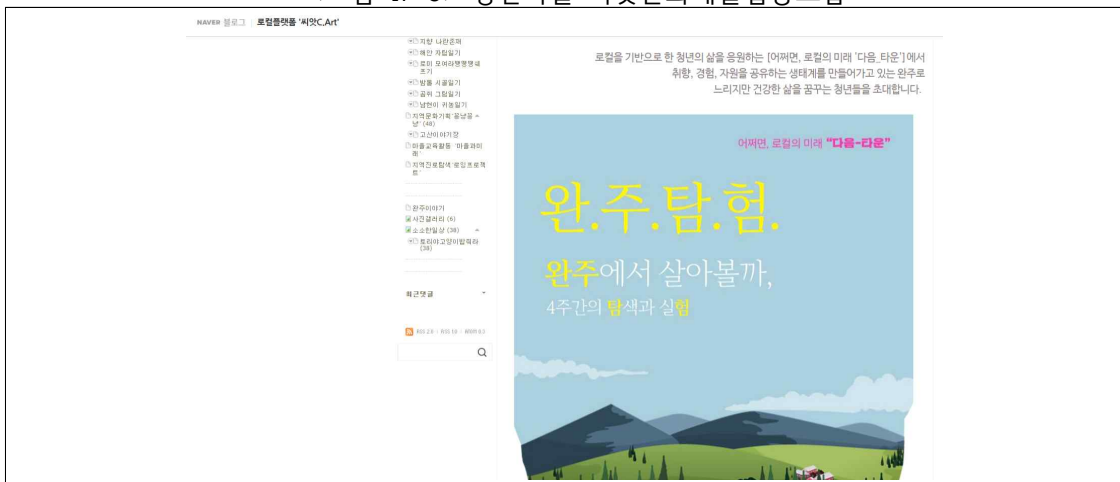
#### 5) 완주 청년마을

- 2021년 전국에 완주를 포함해 12곳이 <청년마을>(행정안전부) 사업에 선정되었음. 이 사업은 인구 유출되는 지방 소도시에 도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을 지원함.
-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이 운영한 완주의 청년마을 <다음타운>은 청년들이 지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주거 못지않게 ‘삶의 질 향상’과 ‘도전과 실험 기회 제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 고산면 일대를 거점으로 <완주탐험>, <비빌언덕 중개사무소>, <고산청년만나장페스티벌> 등 사업을 운영하였음.
- 완주탐험에서는 전국 각지의 청년들에게 신청을 받아 4주간 완주에 머무르며 청년들이 지역살이의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하였음.
- 비빌언덕 중개사무소는 고산미소시장 내에 위치하였으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정착 및 탐색을 돕고 문화기획과 창업을 돕고자 하였음.

39) 아주경제, “[옴부즈만이 바꾼 기업] "속초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폐조선소... 철거 위기서 지켜냈죠"”, 2022.2.16. <https://www.ajunews.com/view/20220215140038464>

- <고산청년만나장페스티벌>은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외에도 더문스페이스·온누리살이 사회적협동조합·청년마을목수협동조합·완주공동체미디어 등이 공동 주최하였으며 전시와 만찬·리폼하우스·단체 게임 등으로 꾸러졌고 제3회 <완주농한기영화제>·<돛자리도서관>·<완주청년마을포럼>·<고산버스킹> 등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었음
-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은 <청년마을>을 2021년으로 마무리한 가운데, “청년을 환대하고, 지역을 연결하고,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라는 취지의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음.
- 2022년 올해에는 귀농귀촌종합센터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 <고사리 탐험 - 지역상생 로컬기획자>를 운영하며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숙박·활동비·멘토링·네트워킹 등을 지원함.

<그림 IV-5> 청년마을-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40)



6) <좋은직허여>(2018), <맑은 날, 제주>(2019)

- 제주문화예술재단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은 2018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민간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이후에는 청년예술인·창작자들에게 1:1 전문컨설팅·사진영상촬영·배송비·수수료·교육·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음.
- 이를 통해 기획전 <좋은직허여>(2018), <맑은 날, 제주>(2019)를 개최함.
- 결과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청년예술인 및 청년 문화기획인력에게는 자생적인 수익창출을, 문화친화 청년층에게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와 취향을 충족함.

7) 타 지역 청년문화 사례 분석

- 대체로 청년들은 지역문화를 탐색 또는 서울의 문화에 대한 반작용 심리를 갖고 있음.
  - “지금 현재진행형 통영의 문화란 무엇인가?”
  - ‘지방에는 썬이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을까?’

40)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초대] 완주에서 살아볼까, 4주간의 탐색과 실험 ‘완.주.탐.험’”, 블로그, 2021.5.17. <https://blog.naver.com/cart3355/222354244103>

- 서울의 독립서점을 주로 참고
  - 지역유산과 건축 환경 등을 보존한 '에코뮤지엄' 컨셉 활용
  - 지방 소도시에 청년들 주거와 창업 지원하는 청년마을 사업
- 청년들이 「청년기본법」의 연령 구분(19세 이상 39세 이하)에 정확히 부합하는지는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나, 대학 졸업·사회 진출·창업 등의 생애주기 과정 중에 있으며 정책 안에서 젊은이, 청년, 벤처 등으로 호명됨.

<표 IV-4> 타 지역 청년문화 사례와 관련 정책사업

사 례	정책사업
통영 인디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li> <li>• 통영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시민문화 활성화 지원사업'</li> <li>• 경남도 '공동체지원공모사업'</li> </ul>
천안 록 비욘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아트큐브 136 '시민문화 지원 사업 프로젝트'</li> <li>•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음악 공연 지원사업'</li> <li>• 문화도시 천안 '천안 문화도시 문화 공간스위치'(장소기반 시민 문화 활동 지원사업)</li> </ul>
대구 더 폴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광역시 마을기업</li> <li>• 대구광역시청년센터 '다모디소(所) 시즌5'</li> <li>•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사업'</li> </ul>
속초 칠성조선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li> <li>•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2019년부터 속초시와 '도시계획도로 건설계획(1977)규제 개선 논의</li> <li>•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 계약</li> </ul>
완주 청년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 '청년마을'</li> <li>• 귀농귀촌종합센터의 '농촌에서 살아보기'</li> </ul>
<좋은직허여> (2018), <맑은 날, 제주>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 민간 후원금 모금</li> <li>• 제주문화예술재단 1:1 전문컨설팅, 사진영상촬영, 배송비, 수수료, 교육, 홍보마케팅 등 지원</li> </ul>

- 최근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은 예술 장르별 데뷔 및 등단 이후에 전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우선 카페·서점·식당·스튜디오·보드샵·박물관·협동조합 등 소상공인으로서 창업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관련 문화경제 활동으로서 지역 특화산업과 반드시 부합하지는 않음.
- 이후 독립영화·독립출판·서브컬처·스트리트 아트 등 대안적 문화, 예술 활동을 시작하여 지역 내에서 유사한 실천을 하는 단체 및 청년들과 협업하는 등 활동과 확장함.
- 이후에는 주로 지역문화·시민문화·문화도시·도시재생·청년문화 범주의 정책사업을 폭넓게 활용하고 성공적인 경우 지역 및 도시에 특화된 사례로서 브랜딩에 상당 부분 성공함.

## 다. 청년문화-거버넌스

### 1) 타 지역 사례 청년문화 속의 경제적 자립과 거버넌스의 중요성

- 앞서 수원시, 인천시의 선행연구를 돌아보면 지역문화 생태계의 지속성이라는 점에서 청년문화 활동의 경제적 자립은 중요함.
- 수원 청년들도 활동 중 상당 부분을 공적 지원에 의지하며, 인천시 경우에도 창작을 위한 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 청년예술의 '창작-발표-유통'의 선순환 구조가 지역문화의 '생산-매개-소비'의 재생산 구조와 연결되기 위해서도 문화의 생산적 관점·경제적 자립이 중요함.
-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타 지역 사례들은 각각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 활동을 지속하면서 실제로 경제적 자립에서도 성과를 획득한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아직 청년문화지원정책이 정책 범주로 충분히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의 청년예술인·청년문화기획자(활동가)·문화친화 청년층이 당장 활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전망은 전적으로 낙관할 수만은 없음.
- 따라서 청년계층이 경제적 자립 및 지역문화 생산에 도달하기까지 청년문화지원정책 차원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앞서 청년문화의 개념적 논의 중 미래사회정책이자 대안적 청년문화정책의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것부터, 인천시 청년문화지원정책 및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통영 인디 페스티벌>의 경우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들, '대구 더 폴락'의 경우 여타 지역 독립서점들과 협의체를 통해, '완주 청년마을'의 <고산청년만나장페스티벌> 또한 여러 단체들 간의 공동주최를 통해 활동과 정책사업을 수행해온바 있음.
- 다음 장에서 청년문화정책의 거버넌스를 위한 사례로서 서울문화재단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인천문화재단 시작공간 일부 공동운영단과 대조해 시사점을 도출함.

### 2)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 ■ 공동운영단 개요

-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예술지원 역할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민관 거버넌스 공동운영단을 시작함.
- 흥대앞의 상업화·젠트리피케이션 심화 과정에서 서교예술실험센터가 불안정한 소유-운영구조로 폐관 위기에 직면했던 것이 민관 거버넌스 공동운영단 출범 배경임.
- 공동운영단은 기본적으로 참여자 간 권한과 책임을 동등하게 나누며 다음 지향을 가짐.<sup>41)</sup>

41) 김나현 외(2021),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모델 개발 연구, 서울문화재단



첫째, 앞으로의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시스템이 단순한 예술가 지원사업을 넘어 창작지원제도의 한계를 답습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현재의 상황과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평이한 갈등 봉합용 거버넌스가 아닌, 협력적이지만 갈등 상황을 감추지 않고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시도와 도전을 통해 기존 제도와 시스템에 일종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소위 전환의 시대라 불리는 2020년 현재와 이후, 예술가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담은 결과가 반영된 예술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 예측하지 못했던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이로 인한 보다 더 폭넓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급증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예술가상의 지속가능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현실에서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위상과 가치에 대해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함과 대응력을 가진 정책과 제도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기존 시스템이 가진 사회적 통념, 기준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여,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의 운영시스템과 사업은 예술가들의 창의성, 독창성,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야 할 것이다.

- 공동운영단은 모집을 통해 총 6인으로 이루어지며 주 1회 의무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시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에 따른 직무수행비가 지급됨.

#### ■ 공동운영단 도입 이전과 이후의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청년·신진예술가 중심의 '상대적으로 젊은 느낌의 예술지원공간'으로 인식됨.
- 공동운영단 도입 이전인 2009년부터 2012년 동안 서교예술실험센터 프로그램은 기획사업·대관사업·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2009년 25건, 2010년 56건, 2011년 27건, 2012년에는 78건을 진행함.
- 2013년부터 공동운영단이 도입되어 2020년 현재까지 기존 사업 영역에 외부연계사업 등이 더해진 가운데, 작은예술지원사업 <소액多컴> 및 공간지원사업 <쉐어 프로젝트>가 가장 꾸준하게 운영됨.
- 사업 최종발표 형태에 따른 장르별 사업 건수는 전시(총 108건)·축제(총 46건)·공연(총 43건)·교육(총 41건)·창작지원(총 35건)·워크숍(총 19건)·네트워킹(총 10건) 순임. 프로젝트 및 투어 등 12개 형태의 '기타1' 분류가 총 79건, 회의 및 연습 등 단발성 모임의 '기타2' 분류가 총 39건임.

#### ■ 공동운영단 주요 의제

- 서교예술실험센터는 마포구 소유 공간을 서울문화재단·공동운영단이 공동운영하는 체

제에 따른 사안이 붙어져 왔음. 1기의 경우 폐관 위기, 5기의 경우 마포구의 시설 공개 매각 및 철회, 7기의 경우 서울문화재단 측의 일몰 및 이관 논의 및 마포구 측의 '지역 공공시설 복합화' 진행 통보 등을 겪었음. 공간 소유와 운영은 시급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임.

- 공동운영단 기획사업은 홍대앞과 서울 문화예술 생태계에 걸쳐 해당 기수의 비전과 지향을 드러내 왔으며, 서교예술실험센터 정체성 형성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 내부적으로도 기획사업이 직무수행비의 책정 근거가 되지만 매해 공동운영단 활동이 계획을 초과함에 따라 노동 강도 및 직무수행비 적절성이 재고될 필요가 있음.
- 공동운영단 직무수행비는 8년 동안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1회 인상되었으며, 정기회의도 주 1회에서 월 2회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실제 활동량이 직무수행비 범위를 초과하는 문제가 있음. 정원 6인·연임 3인·임기 1년 등 현 제도는 물론 동료심사제 사안도 포함해서 공동운영단 체제에 전방위적인 질문이 준비되어야 함.
- 서울문화재단의 인사이동·조직개편이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음에도 그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민관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책임·권한·의무의 분배에 있어 여전히 과제가 많으며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 결과적으로 공간 소유주인 마포구의 책임감 있는 자세, 민관 거버넌스 운영단 상호 책임성, 공동운영단의 새로운 운영 방식, 신규 거버넌스 참여자들과의 연계 및 확장 등이 요구됨.

### 3) 인천청년문화창작소 시작공간 일부 공동운영단

#### ■ 공동운영단 개요

- 인천문화재단 또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 역량강화 시범 사업 개발'을 위해 시작공간 일부에서 1기(2019년 6월~2020년 12월), 2기(2021년)를 거쳐 2022년 올해 3기 공동운영단을 운영해오고 있음.
- 시작공간 일부는 다음 '공동 약속문'을 지침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sup>42)</sup>

- a. 시작공간 일부는 청년 창작자 및 기획자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환영해주세요.
- b. 시작공간 일부는 공동운영단과 인천문화재단이 함께 운영하며, 다양한 청년 창작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머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합니다.
- c. 우리는 나이, 성별을 비롯한 모든 배경과 관계없이 동등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차별 발언도 하지 않으며 서로의 삶을 존중합니다.
- d.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쉽게 단정 짓지 않습니다.

42) 시작공간 일부 웹사이트. <https://space1bu.ifac.or.kr/promise/>

e. 공동약속문을 어기는 언행에 대하여 즉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공동운영단은 모집을 통해 총 4인으로 이루어지며 격주 정기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시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에 따른 활동비가 지급됨.

■ 시작공간 일부 사업 및 공동운영단 활동

- 공동운영단 1기는 2019년 ‘워크숍’ 총 3회·세미나 1회를 진행한 뒤, 2020년에는 시작공간 일부와 각 공간의 명칭을 결정하였고 SNS 계정 개설 및 리플렛 제작하여 홍보작업을 시작하였음. 또한 <워크숍>(포토숍 3회·디자인숍 10회·비디오숍 3회·애드숍 4회), <나알람>, <항해일지>, <어쩌면 기획일지 몰라> 등 사업을 진행하였음.
- 2021년 공동운영단 2기 동안 시작공간 일부에서는 ▲역량강화사업(<워크숍>·<항해일지>·<어쩌면 기획일지 몰라>) ▲청년문화 활성화사업(<인천청년별별학교>·<인천청년한달레지던시>·<인천청년문화살롱-나알람>·<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융합예술지원사업>·<청년 동네 탐구생활>) ▲기타 지원사업(<신진예술가기획지원>)가 진행되었음.
- 2022년 1월 3기 공동운영단이 선출되어 기획사업 <화르-룩(발화점에 다다르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음.

■ 시작공간 일부에 관한 청년문화예술네트워크 및 예술지원본부의 논의

- 인천 청년문화 활성화 및 시작공간 일부의 운영 전반에 관해서, 인천문화재단의 《인천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 중장기 로드맵 제안》(2021) 및 <지역기반 청년문화 예술네트워크>(2022년) 등이 중심이 되어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 이를 통해 ‘청년의 범주’, ‘청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 제안’, ‘청년대상 창작지원(직접지원)에 대한 수요’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음.
-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시작공간 일부 공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공간 확충’, ‘물리적 개선’, ‘전문성 확보’, ‘청년이 직접 운영과 사업을 주도하는 방향’ 등이 강조되기도 하였음.

■ 서교예술실험센터와 시작공간 일부

- 시작공간 일부와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참석·사업 수행·직무수행비(활동비) 지급 등 공동운영단 운영에 있어서 공통 사항들을 갖추고 있음. 청년·신진 예술가 중심의 사업을 운영해온 점에서도 유사함.
- 공동운영단 인원은 서교예술실험센터 6인, 시작공간 일부 4인으로 시작공간 일부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임.
- 그러나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시작공간 일부에 비해 공동운영단 운영 기간과 기수가 더 장기간 누적되어 왔으며 20여개에 달하는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 중 하나인 점에서 인

천문화재단 운영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년 참여의 폭이 넓을 것으로 여겨짐.

- 이러한 사항들을 인지하는 가운데, 시작공간 일부 운영위원장단 청년들이 공간 운영부터 청년문화 정책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임.

마. 광역문화재단 청년문화지원 정책 사례

- 2022.11.10. 기준 타 광역문화재단 청년문화지원 정책 사례 조사<sup>43)</sup>
- 사업비 단위는 “원”.

1) 서울문화재단

<표 IV-5>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팀 2022년 추진사업 및 2023년도 추진 예정 사업 목록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담당자수
라운드 SAPY	청년예술청 공간기반 주제별 기획사업 운영	170,000,000	1명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정책 담론 추진	100,000,000	1명
안전한창작환경 조성 플랫폼	문화예술 내 성평등 탈위계 관련 논의확산	90,000,000	1명
뉴미디어 매체확장활성화	예술현장의 미래기술 기반 교육 및 워크숍	100,000,000	1명
청년예술청 공간운영	청년예술청 내 공간대관 및 운영	500,000,000	1명(중복)
(예정)청년예술지원사업	진입단계 청년예술인 지원	460,000,000	1명(중복)
(제휴)포르쉐-드리머스온	미디어아트 제작 및 상영(삼성동 K-POP스퀘어)	100,000,000	1명

2) 경기문화재단

<표 IV-6> 경기문화재단 2022년 청년문화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담당자 수
생애 첫 예술활동 지원	신진예술가 육성을 위한 도내 생애 최초 또는 신진 예술활동 지원 - 67건 468,000,000원 지원	500,000,000	3명(정규직)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청년예술인(19~만34세) 자립준비금 지원 (300만원, 200명) -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대관료 지원 - 영감(Young感)님들의 2022 청년관 운영	1,260,000,000	5명(정규직1, 계약직4)
경기 청소년 공연예술지원	경기청소년 공연예술 경연대회 및 축제	400,000,000	3명(정규직1, 계약직2)
경기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경기틴즈뮤지컬 지원	300,000,000	2명(정규직1, 계약직1)
경기 미술창고 운영	경기도 청년 예술인 작품 구입 및 교육	100,000,000	2명(정규직1, 계약직1)

43) 각 재단에 직접 연락하여 자료 취합한 경우와 온라인에서 자료를 수집한 경우가 있음.

3) 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지원 사업 현황<sup>44)</sup>

■ 부산시 청년 관련 조례

- 2013년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년 폐지.
- 2013년 「부산광역시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조례」: 2017년 폐지.
- 2017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2019년 일부 개정.

■ 부산시 청년문화 활성화 정책

- 2014년 «부산지역 청년문화 활성화 및 지원방안»(부산발전연구원).
- 2015년 「청년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안」(부산시 청년문화위원회).
- 2017년 ‘청년정책네트워크’ 설립.
- 2018년 «청년문화 육성지원 - 청년문화 연구조사»(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 연령 39세 이하로 조정.

■ 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 육성지원 사업

- 부산문화재단은 2016년부터 ‘청년문화 육성지원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대범주로 하여 세부 사업들을 배치함.
  -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
  - ▲다양한 청년문화 인력 양성
  -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 ▲청년문화 인프라 및 공간지원
  - ▲청년문화홍보
  - ▲청년연출가작품제작지원

■ 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팀

- 2015년 부산시의 「청년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안」을 기본 틀로, 부산문화재단 내 ‘청년문화 TF팀’ 발족.
- 2017년 부산문화재단 예술진흥본부에 정규팀으로 포함됨.
- 2022년 현재 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팀에는 복합문화시설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인력 포함 총 9명이 속해서 업무를 수행.
- 2022년 부산문화재단은 정부 청년정책 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표 IV-7> 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팀 조직 및 시설

구분	담당업무	담당자수
청년문화팀	청년문화팀 업무총괄	1명

44) 부산문화재단 연차보고서 자료

	청년예술가 작품제작지원 사업 청년예술가 자율기획 사업 아트페어 사업 청년문화육성지원 사업 및 예산관리 등	1명
	청년 유니버시티 사업 청년브랜딩 사업 청년문화 포럼 사업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사업	1명
	민락 인디트레이닝 센터 운영 지원 기업협력형 창작활동 사업 원도심 빈집 활용 청년마을놀이터 사업	1명
	청년 예술작품 구독사업 청년 문화포럼 사업 지원	1명
사상인디스테이션	사상인디스테이션 공연사업 그래피티 프로젝트 사업 사상인디스테이션 사업 및 예산관리 등 사상인디스테이션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등	1명
	사상인디스테이션 공간 활성화 사업 청년 유니버시티 업무지원 청년브랜딩 사업 지원	1명
	사상인디스테이션 공연사업 지원 아트페어 사업지원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사업 지원	1명
	사상인디스테이션 공연사업 지원 원도심 빈집활용 청년마을놀이터 사업 지원	1명

<표 IV-8> 부산문화재단 청년문화 육성지원 사업 목록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청년문화 육성지원 사업	청년예술가 창작활동지원- 기초예술(공연, 시각, 문학)	170,000,000
	청년예술가 창작활동지원- 생애첫창작	50,000,000
	청년연출가 작품제작 지원	74,000,000
	청년예술가 자율기획	50,000,000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지원 청년예술가 3인전 운영(1인당-400만원): 신세계백화점 갤러리공간 무상임대 및 전시 연출 지원	12,000,000
	청년예술작품 구독- 시각예술전분야 15명, 작품전시 지원금 100만원 지원, 총3회차 회차당 5개 기관	15,000,000
	청년 모꼬지사업	940,000,000
	청문청답 백서발간 및 청년문화릴레이 축제 개최	
	청년문화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청년 UNIVERSITY' 운영	
	청년문화 컨설팅 연구 지원사업 관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청년인디문화활성화 사업	75,000,000

	청년 인디 뮤지션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40,000,000
	도심 속 힐링콘서트 <역전인디, 수고했어 오늘도>	
	청년아트페어 'UNDER 39' 운영-(시각분야/ 개인) 우수예술가 상금 천만원, 작품판매, 전시 지원 및 작품 운송지원금 50만원(20명),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몰	20,000,000
	민락 인디 트레이닝센터 운영	150,000,000
사상 인디 스테이션 운영	지역문화사업 2개 과목 12강 진행 및 콘서트 진행	
	입주 단체 창작 지원(공연, 앨범, 뮤직비디오 제작지원)	
	입주단체 특강, 역량 강화 세미나	
	거리형 뮤직페스티벌 뮤직스트리트 서면 기획 개최	
	MADE IN 사상	
	도심 속 힐링콘서트 <역전인디>	
원도심 빈집활용	원도심 내 빈집을 활용한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청년마을 놀이터	마을기반 커뮤니티 및 프로젝트 운영 지원	20,000,000
창업지원	문화로공간 창업지원	78,000,000
	부산문화예술 플리마켓 운영 8회	
	청년 브랜딩-리부트- <청년 플래그십 스토어> 공간제공	30,000,000

#### 4) 대전문화재단

<표 IV-9> 대전문화재단 2022년 청년문화지원정책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담당자 수	비고
청년예술인 지원	청년예술인(단체)의 창작·발표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사업비 일부지원 및 기획사업 추진	520,000,000	1명	예술지원팀
차세대 artiStar 지원	차세대 예술인 역량강화, 창작활동 지원 및 기획사업 운영	150,000,000	1명	예술지원팀
청년예술인 대관료 지원	청년예술인(단체)의 발표 활동에 필요한 대관료 항목 지원	40,000,000	1명	예술지원팀
청년기획자 양성프로젝트	대전지역 청년예술인 대상 시각 또는 공연예술분야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역량 배양	50,000,000	1명	예술지원팀
해외 레지던시작가 파견지원	해외레지던시 파견 중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사업비 일부 지원(항공비, 체제비, 재료비등)	40,000,000	1명	예술지원팀
청년작가장터	미술 작품 직거래 장터(전시, 유통, 판매)	80,000,000	1명	예술경영복지팀

5) 울산문화재단

<표 IV-10> 울산문화재단 2022년 청년문화지원정책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담당자 수
생애처음-청년예술 지원	공공지원금 수혜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 장벽 해소 및 다양한 창작 활동 기회 제공(10명 지원)	40,000,000	1명
울청아티스트 지원	단기 예술경력을 보유한 청년예술가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현장 정착 지원(14명 지원)	80,000,000	1명
울산청년문화 기반구축 울산문화다음	청년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문화기획자들의 실험적 활동 장려 지원(7건 지원)	51,000,000	1명
울산청년문화 기반구축 청춘&상상	울산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울산의 문화적 매력을 찾아 다양한 콘텐츠로 결과물 제작 및 성과 공유 활동 지원(10건 지원)	10,000,000	1명

6)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표 IV-11>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2022년 청년문화지원정책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담당자 수
청년문화예술 프로젝트 예술있슈 Issue	도내 청년 소모임들이 지역문제, 청년문제를 문화예술, 문화기획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 지원	50,000,000	1명

7) 충북문화재단

<표 IV-12> 충북문화재단 2022년 청년문화지원정책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담당자 수
청년예술단체 지원사업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을 위한 청년예술단체 활동비 지원	80,000,000	1명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역량있는 충북도내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	90,000,000	

8) 경북문화재단

<표 IV-13> 경북문화재단 2022년 청년문화지원정책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담당자 수
경상북도 온라인 홍보단 G토리	도내 청년 크리에이터(홍보단 G토리) 양성 및 경북 홍보 콘텐츠 제작	100,000,000	1명
청년예술인 발굴지원사업	청년예술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비 혹은 창작 준비에 필요한 직접 재료비 지원	300,000,000	



9) 전남문화재단

- 전남문화재단의 경우 별도의 청년문화 지원사업은 없으나,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청년예술가활동>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음.

<표 IV-14> 전남문화재단 2022년 청년문화지원정책 추진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담당자 수
청년예술가활동	1~2년차로 구분하여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며, 2022년도에는 총 15명을 지원함	134,000,000	1명

10) 광역문화재단 청년문화지원정책 비교분석

<표 IV-15> 광역문화재단별 청년문화지원사업 개요

(단위: 원)

재단	사업수	총 사업비	인원	인당 사업비	사업별 사업비
서울문화재단	7개	1,520,000,000	6명	253,333,333	217,142,857
경기문화재단	5개	2,560,000,000	15명	170,666,667	512,000,000
대전문화재단	6개	880,000,000	6명	146,666,667	146,666,667
울산문화재단	4개	181,000,000	4명	45,250,000	45,250,000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1개	50,000,000	1명	50,000,000	50,000,000
충북문화재단	2개	170,000,000	1명	170,000,000	85,000,000
부산문화재단 <sup>45)</sup>	20개	1,447,000,000	9명	160,777,778	72,350,000
경북문화재단	2개	400,000,000	2명	200,000,000	200,000,000
전남문화재단	1개	134,000,000	1명	134,000,000	134,000,000

- 2022년 광역문화재단 별 청년문화지원사업 수 현황은 위의 표와 같음.
- 담당 인원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문화재단이고 담당 인원당 사업비는 서울문화재단이 2억5천만원 대로 가장 많고, 울산문화재단이 4천5백만원대로 가장 적음.
- 사업별 담당 인원은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계약직까지 포함하여 사업별 3명 정도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어 가장 많고, 대부분의 재단에서 하나의 사업에 한 명의 담당 인원이 배정되어 있음.
-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팀이 사업비 규모로는 서울문화재단보다 크고, 경기문화재단과 차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가 많고, 담당인원 수가 크게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사업별 계약직 인원수를 확장하여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함.

45) 청년문화 육성지원 예산액으로 제시된 금액만 산출함. 문화공간 활성화 등 예산이 동시에 사용되었을 수 있음.

■ 공간운영

<표 IV-16> 광역문화재단별 청년문화시설운영 현황

(단위: 원)

재단	사업성격	사업비	인원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청 기획사업	170,000,000	1명
	청년예술청 공간운영	500,000,000	1명(중복)
경기문화재단	창작공간 임차료·대관료, 청년관 운영	660,000,000	5명
대전문화재단	대관료 지원	40,000,000	1명
부산문화재단	사상인디스페이스 운영 및 기획사업		4명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예술발전소 운영 및 기획사업		7명
	가창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 청년 전용공간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는 청년예술청·청년동과 같은 별도의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형태, 그리고 청년예술 지원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연장·연습장의 임차료·대관료를 지원하는 형태가 있음.
- 별도 공간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운영 인력이 별도로 배정되어야 하며, 공간의 특성에 맞는 기획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각 광역 문화재단에서는 청년예술인의 창작지원을 위한 인적 지원 외에도 대관료·임차료 지원과 같은 청년들의 문화활동 공간 지원이 병행되는 사업을 운영 중임.
- 서울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청년예술청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공간을 조성·운영하는 것 외에 청년공간의 특성을 활용한 기획사업이 운영되어야 함. 특히 청년예술청은 그레이룸·화이트룸·회의실·미디어실·연습실·카페형 공유오피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관적으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함을 표방하며, “청년예술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함.
- 부산문화재단은 사상인디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청년문화 육성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도심 빈집을 활용한 청년마을놀이터를 입주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민락인디뮤직 트레이닝 센터를 위탁운영 하여 인디음악 활성화의 근거지로 제공함.
- 계속해서, 시각예술분야에서는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의 갤러리(3인전)·지하 중앙광장(<청년아트페어 ‘UNDER 39’>)을 제공받아 전시와 아트페어를 개최하고, 청년 예술작품 구독 프로그램의 경우 회차당 5개의 공간(공공기관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 내) 청년 예술가의 작품을 일정기간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 내 차단봉 설치와 같은 작품관리를 지원함. 이 외에도 전시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 온-오프라인 작품 홍보지원 및 작품 캡션 및 공간 안내문 제작을 지원하는 대안공간의 제공 및 연결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이루고 있음.
- 또한 <청년 플래그십 스토어> 공간을 <청년 브랜드-리부트-> 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제공하여 청년예술가들의 예술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어 보다 활발한 창작활동의 발판 마련을 위한 지원함.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2022년 11월 대구문화재단 등 기관과 통·폐합한 이후 대구문화발전소·가창창작스튜디오 등 시설 운영을 맡아 오고 있음. 대구예술발전소는 기성작가

들이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청년다움”을 방향성의 하나로 설정해 청년예술가 발굴 및 육성 거점공간이자 신진작가들의 등용문 기능을 자임함. 전시실·아트플랫폼·예술정보실·공연장·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음. 이 외에도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운영하는 가창창작스튜디오는 특히 지역 유희공간인 폐교를 활용해 현대미술 분야의 젊은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 창작공간으로 활용됨. 인큐베이팅 강화 트랙과 창작환경 안정화 트랙으로 시설 운영을 체계화하는 한편 해외 및 타 지역 교류의 거점공간으로도 활용됨.

- 현재 인천문화재단의 시작공간 일부는 공간을 특성화하고 활용도를 재고해야 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 청년문화 지원사업의 사례 분석

- 청년문화 지원사업을 거버넌스, 공간 기획·운영지원, 교육 프로그램, 창작지원, 청년예술인 지원, 청년과의 협업 등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유통·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유형화 함.
- 각 재단에서도 청년관련 사업으로는 청년예술인 지원사업과 청년예술인의 창작지원 사업이 주로 이루어짐.
- 서울문화재단은 청년관련 정책담론 사업이 있는데 청년문화지원사업의 장기적 연속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음.
- 울산문화재단·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서는 청년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문화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도함과 동시에 미술창고나 청년 작가 장터와 같은 사업을 통해 작품의 전시·유통·판매가 가능한 사업을 도입하기도 함.
- 청년 전용 공간의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문화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간운영을 위한 예산 및 인원 배정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조성된 공간을 통해 청년공간 특유의 기획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 부산문화재단의 경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과 연계한 아트페어·갤러리 전시회는 물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영화의 전당)·교육기관(동래고등학교)·민간기업(동일DNB) 공간을 활용해 전시 서비스를 2개월간 3회차 제공하는 등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에 공간 제공을 중요한 지원 유형으로 삼고 있음.
- 청년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히 예술가 지원이 아니라 최초 진입단계의 청년과 신진예술가 지원으로 구별하여 지원하여 청년예술인의 특성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뉴미디어 활용 도입 교육, 해외 레지던시 작가 파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음. 청년 협업 프로그램들은 사업 과정의 참여를 통해 청년예술인들의 다양한 사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표 IV-17> 광역문화재단별 청년문화지원사업 목록

분류	재단	사업명	사업내용
거버 년스	서울	서울청년예술인회의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정책 담론 추진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 플랫폼	문화예술 내 성평등 탈위계 관련 논의확산
	부산	청년 모꼬지 사업	청년 모임 활동 지원 네트워크
		청문청답 백서발간 및 청년문화릴레이 축제 개최	청년문화백서 발간, 라운드테이블, 청년문화활동가 발굴
공간	서울	라운드 SAPY	청년예술청 공간기반 주제별 기획사업 운영
		청년예술청 공간운영	청년예술청 내 공간대관 및 운영
	부산	사상인디스페이스 운영	사상인디스페이스 기반 청년문화예술 활동 거점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재단 위탁 운영시설
		문화로공간 창업지원	문화예술기반 창업을 위한 임대료, 운영비 지원
		원도심 빈집활용 청년마을놀이터 조성 운영	원도심 내 빈집 호라용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 마을기반 커뮤니티 및 프로젝트 운영 지원
	경기	예술창작공간 지원	예술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대관료 지원
		청년관 운영	영감(Young感)님들의 2022 청년관 운영
	대전	청년예술인 대관료지원	청년예술인(단체)의 발표 활동에 필요한 대관료 항목 지원
	교육	대전	청년기획자양성 프로젝트
부산		청년문화컨설팅 연구	지원사업 관리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뉴미디어 매체확장 활성화	예술현장의 미래기술 기반 교육 및 워크숍
창작 지원	경기	경기 청소년 공연예술지원	경기청소년 공연예술 경연대회 및 축제
	부산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기초예술분야, 생애 첫 창작활동 지원 45건
		청년연출가작품제작 지원	쇼케이스, 최우수, 다년도
		청년인디문화활성화 지원	공연, 제작지원, 기획프로그램 진행
	대전	차세대artiStar지원	차세대 예술인 역량강화, 창작활동 지원 및 기획 사업 운영
	충북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	역량있는 충북도내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지원
	전남	청년예술가활동 지원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경기	경기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경기틴즈뮤지컬 지원	
청년 협업	경기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지원	청년예술인(19~만34세) 자립준비금 지원
	부산	경기 미술창고 운영	경기도 청년 예술인 작품 구입 및 교육
		부산문화예술 플리마켓 운영	부산 청년작가들의 작품 및 아크상품 전시, 판매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연계
		기업협력형 창작활동 지원	청년예술가 전시 개최 지원
	청년 브랜딩-리부트-	청년예술가 주도형(창업 청년예술가), 청년예술가 지원형(청년예술가+협업단체/기업)	
	대전	청년작가장터	미술 작품 직거래 장터(전시, 유통, 판매)
	서울	(제휴)포르쉐-드림스온	미디어아트 제작 및 상영(삼성동 K-POP스퀘어)

청년 예술인 지원	울산	울산청년문화기반구축 청춘&상상	울산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울산의 문화적 매력을 찾아 다양한 콘텐츠로 결과물 제작 및 성 과 공유 활동 지원(10건 지원)
	전라 북도	청년문화예술프로젝트 예술있슈 Issue	도내 청년 소모임들이 지역문제, 청년문제를 문화 예술, 문화기획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 지원
	울산	울산청년문화기반구축 울산문화다음	청년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문제를 해결 하고 청년 문화기획자들의 실험적 활동 장려 지원
	경북	경북온라인 홍보단G토리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및 경북홍보콘텐츠 제작
	서울	청년예술지원사업	진입단계 청년예술인 지원
	경기	생애 첫 예술활동 지원	신진예술가 육성을 위한 도내 생애 최초 또는 신 진 예술활동 지원
	부산	청년 유니버시티	청년예술가(단체) 역량강화 지원
		청년 예술작품 구독	5개 기관에 3회차 2개월간 전시 지원
	대전	청년예술인지원	청년예술인(단체)의 창작·발표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사업비 일부지원 및 기획사업 추진
		해외레지던시작가파견지원	해외레지던시 파견 중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사업비 일부 지원(항공비, 체제비, 재료비등)
	울산	생애처음-청년예술 지원	공공지원금 수혜경험이 없는 청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장벽 해소 및 다양한 창작 활동 기회 제공
		울청아티스트 지원	단기 예술경력을 보유한 청년예술가의 지속적인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현장 정착 지원
	충북	청년예술단체지원사업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을 위한 청년예술단체 활동비 지원
	경북	청년예술인 발굴지원사업	청년예술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비, 재료비 지원

## V. 인천시 청년문화지원정책 방향

### 1. 주요 이슈 분석

#### 가. 주요 이슈

#### ■ 인천시 청년문화 현황: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인구 이탈과 문화적 어메니티(환경·여건) 부족

- 인천시 사회지표와 관계자 FGI에서 드러나듯 인천의 청년 계층은 역외 이탈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성장 기반과 이에 따른 산업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음.
- 개항과 근대화 이후 “경인지역”의 개념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인천은 서울과의 관계성이 뿌리 깊게 내재하고 있으며, 이는 한편으로는 지역 내에 문화적 환경이 부족하고 서울 의존성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임.
- 산업적 변화에 따른 청년인구 문제는 신성장산업 활성화·일자리 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 내에 많이 만들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동시에 문화적 어메니티를 개선하여 지역 내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다양한 활동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는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문화 분야는 지식정보에 기반한 신성장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지점이 많으며 실제로 유럽·북미 등 앞서 산업변화를 경험한 국가들도 포디즘에 기반한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이 사양화되는 시점에서 문화도시·창조도시 담론에 기반해 문화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산업을 활성화 시켰던 전례가 있음.
- 문화도시 및 창조도시 담론에서 지속적인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창조계급(creative class: 창의인력)으로,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지역 안에서 지속적인 활동의 계기와 기반을 줄 수 있을지는 지역의 미래에 중요한 관건임.

#### ■ 기존 청년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청년문화정책 전환 필요성

- 소위 “88만원 세대”<sup>46)</sup>로 대표되는 2000년대 후반부터 불거진 청년 빈곤과 일자리 문제, 미래 전망 부재는 2010년을 전후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음.
- 그러나 2010년을 전후한 시기의 청년정책은 당대의 또 다른 사회문제였던 실업 문제와 맞물리며 청년창업지원 등의 지원금 정책에 치중하였고 현재까지도 <청년몰> 사업 등의 방식으로 반복 진행되고 있음.
- <청년몰> 등 청년창업지원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실패했다고 규정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예산대비 효과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으며 실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기업·청년몰이 많지 않음. 청년창업이 지원금을 받아 브랜드 런칭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으나 공적지원이 종료된 이후 지속되지 못하고, 기존 지원대상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다시 지원받는 일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음.
- 단기적 지원금 중심의 청년정책이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지속력에 문제가

46) 2007년 우석훈·박권일이 ≪88만원 세대: 절망의 시대에 쓰는 희망의 경제학≫에서 취업난과 더불어 비정규직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20대를 가리켜 부르는 말로 등장

발생하면서 사업대상(청년층) 사이에서도 일부가 자원을 독식하는 데에 불만과 불신을 누적시킨 구조의 원인이 되기도 했음.

- 청년문화지원정책을 둘러싼 사업들은 특히 지속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안정적 활동의 장을 형성하고 내부적인 재생산과 인적 구성의 개방적 유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년층 생애주기의 다양성에 따른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함.

#### ■ 연령군에 따른 청년의 다양성

- 청년은 한편으로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며 특히 인천 같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 규모와 다양성이 매우 크고 문화적 지향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 점에서 청년의 범주 안에 굉장히 다양한 개체들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현재의 청년정책 대상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로 구획하건, 현재 인천시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범위로 구획하고 있는 만 19~39세로 보건 간에 하나의 연령대로 묶어서 정책을 펼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는 만 19~39세(혹은 만 19~34세) 시기는 생애주기가 학업·사회진출 준비·취업(창업)·독립·결혼·출산 및 육아 등 다양한 변곡점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임.
- FGI와 전문가 자문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들에서도 현재 청년정책 대상인 만 19~39세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으며 그 안에서의 차별적인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특히 관심, 이슈, 문화적 지향, 생활환경, 필요로 하는 자원의 성격이 4~5년 주기로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함.
- 19~24세 정도의 20대 초반 청년들은 과거에 비해 인구 고령화가 현저히 심각하고 부모의 양육 기간이 늘어난 현 시점에서는 과거의 청소년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 성인으로서의 의식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사회진출자들의 경우 공공기관 입사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문화 분야의 경우 문화도시 사업 등 공공에서 만들어지는 사업의 스텝으로 진출한 경우가 많음.
-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의 사회진출자들은 공공기관·문화도시 사업 등 앞 세대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많이 느낀 세대로 개인 창업에 대한 열망이 높고 경제적 이해타산에 민감하여 소위 “영끌족”이나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음.
- 2020년 이후 사회진출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학창시절을 보내 고립감이 심하고 바로 앞 세대의 부동산 등 경제적 투자에 몰두했던 (영끌족) 선배들의 고난을 목격함. 당장의 교통비(지역 내/지역 간)·식비 등 생활비 문제에 더 심각하게 시달림에 따라 선배 세대의 자원 독점에 비판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선후배 관계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나타남.

#### ■ 청년문화지원정책의 정책 대상

- 청년문화지원사업에는 기존의 청년예술 활동이나 청년문화기획자·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포함되지만 광의의 문화개념에 따라 지역 청년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적극적인 공공지원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음.
- 다만 현재의 대부분 공공문화정책이 그렇듯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책대상을 설정할

경우 정책의 목표 역시 추상적이게 되며 이럴 경우 효율적인 정책의 구현이 불가능해져 사업의 성과목표를 도출할 수 없음.

- 따라서 청년문화지원정책과 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크게 청년 예술인 · 청년문화기획자(활동가) · 문화친화 청년층으로 나뉘볼 수 있음.
- 다만 청년층의 연령적 특성상 아직 사회적 정체성이 확정된 시기가 아니며 정책 대상들 간의 관계도 유연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청년예술인들 중에는 청년문화기획자를 겸하고 있거나 전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며, 문화친화 청년층 중에는 예술인이나 문화기획자로 자기 전망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흔하게 있음.
- 기본적으로는 정책대상에 따른 각각의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청년문화의 불확정적 · 유동적 특성 때문에 각각의 사업들이 갖는 유기적 연계성을 구현할 필요가 있음.

<표 V-1>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지원정책 정책 대상

구분	주요 이슈	정책 목표
청년예술인	진입 장벽의 문제. 예술 활동 자원 부족. 경력 축적 문제. 활동 공간의 부족. 성장.	특화된 창작지원. 포트폴리오의 축적. 예술인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청년문화기획자 (활동가)	경험 축적의 문제.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 창업과 안착.	내실있는 인턴십 지원. 여가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멘토링과 비즈니스 기반 제공.
문화친화 청년층	문화친화 청년층의 확대. 문화적 리터러시.	다양한 형태의 문화향유 · 체험. 자기주도적 청년문화축제.

■ 인천의 도시 특성에 기인한 지속성의 방향

- 거대도시(Metropolis)라는 특성에 대한 고려 필요하며 특히 많은 인구와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도심과 도서지방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두 가지 키워드로 지역문화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
- 인천시는 개항과 근대 이후 “경인”이란 개념 하에, 서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급격한 성장한 지역으로 주로 항구와 산업단지의 기능으로 성장한 탓에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의존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산업도시이자 관문 도시의 특성에 따라 형성된 문화적 특성과 국내외로 열린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며 인구적 다양성 또한 충분히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적 시도가 가능한 도시이기도 함.



- 이런 점에서 인천시가 문화 기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관문 도시로서의 개방성을 살려낼 수 있다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문화허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음.

■ 청년문화 활동 공간의 부족

- 인천시 문화기반시설의 부족은 청년세대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반복 받아들여지고 있음.
- 청년들의 주요 활동이나 동선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발신하는 공간적 거점이 부족하여 청년인구가 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지역 기반의 다양한 활동을 만들고, 보여지고, 축적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뚜렷함.
- 2020년 3월 인천문화재단이 청년문화창작소 “시작공간 일부”를 개관했으나 인천의 다양한 청년·청년예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는 협소하며, 특히 공간의 일부는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팀의 사무공간(사무판)으로 이용되어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서의 활용성에 한계가 있음.
- 청년문화는 특성상 개방성이 내재하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용도 활용목적의 공간이 필요함. 특히 문화 활동의 특성상 소음 발생 시 인근으로부터 자유롭고, 많은 인원을 수용 가능한 공간 규모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제한적으로나마 야외활동도 가능한 공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이런 청년문화 거점 공간의 확보를 전제로 인천의 10여개 기초자치단체(구, 군) 단위에서는 청년문화 활동의 내실을 채울 수 있는 소규모 공간거점도 필요함.

■ 대전제: 지역 청년문화의 지속적 활성화의 지향점은?

- 지역 전반의 보편적인 청년문화의 어메니티 개선.
- 청년예술인·문화기획자(활동가)의 성장.
- 문화친화 청년층의 양적확대와 문화적 리터러시 성장.
- 청년문화 활동공간의 양적 질적 확대.
- 청년문화 쉼(활동장+공론장)의 형성.
- 지역청년문화의 지속성을 위한 재생산과 축적(아카이브) 구조화.
- 청년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문화적 활동의 연계.
- 다양한 청년층의 생애주기를 반영하는 정책 설계.
- 내외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청년문화의 질적 성장과 외화.

나. 이슈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표 V-2> 인천 청년문화 활성화 SWOT분석

<p><b>S(강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도시·많은 인구로 다양한 청년 보유</li> <li>◆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li> <li>◆ 잠재적으로 높은 문화적 소비력</li> <li>◆ 꾸준히 이어져온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li> <li>◆ 지원조직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li> </ul>	<p><b>W(약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에 치중된 도시 성장으로 인한 문화적 기반 환경의 부족</li> <li>◆ 문화 분야에 있어서 높은 서울 의존성</li> <li>◆ 지역문화 정체성 대한 공감 부족</li> </ul>
<p><b>O(기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의제의 제도적 진화(청년기본법 등)에 따른 정책의 다각화·심화</li> <li>◆ 민선 8기 인천시정부의 문화에 대한 투자 증가</li> <li>◆ 지역내 산업구조의 변화와 문화도시 전략 등에 따른 청년문화 활성화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성</li> </ul>	<p><b>T(위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화 활동의 전반적 침체</li> <li>◆ 경제적 위기 국면 장기화에 따른 여가 활동의 침체</li> </ul>

■ 문제점 ①: 청년계층의 다변화와 정책적 디테일의 보완 필요

- 정책 대상인 청년층이 15년(만 19~34세)에서 20년(만 19~39세)의 긴 기간에 걸침에 따라 내부에서 정책적 니즈의 격차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 또한 정책대상이 청년예술인·청년문화기획자(활동가)·문화친화 청년층으로 나뉘는 측면도 존재하여 각각의 영역에 대한 정책사업의 균형 있는 배분과 연계가 필요함.
- 청년문화지원정책에 대한 목표 지향적으로 설계를 위해서도 정책대상에 대한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설계하여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표 V-3>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지원정책 정책 대상 분류체계

구분	청년예술인	청년문화기획자	문화친화 청년층
성장기 (약 19~26세)	예술대학생. 예술 입문청년.	문화 활동 참여. 동아리 활동, 취향의 발굴과 개발.	
사회유입기 (약 27~33세)	예술 활동 입문 시기. 데뷔와 경력 만들기.	문화 활동 입문. 인턴쉽과 전문성 배양.	적극적 문화향유와 참여. 문화적 리더로서의 성장.
청년주도층 (약 34~39세)	본격적 예술활동. 예술활동과 경제활동의 조화.	전문 기획자로 성장. 창업과 자기 분야의 개척.	일상과 문화적 활동(향유, 참여)의 조화.

<대응 방안>

- 기존의 청년문화지원사업의 세밀화.
- 기존의 정책 사업에 배제된 층위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
- “대상별” 사업을 만드는 방식의 해결이 아닌 각 영역별 사업 설계에서 적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는 코드 체계 개발.
- 이 역시 연령주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방식은 아니지만 경과적인 사업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지양.

■ 문제점 ②: 지역 내 청년층을 위한 문화적 어메니티 개선 필요

- 지역의 문화 기반 환경이 청년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앞선 여러 사회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문화적 활동 공간이 부족하거나 편중되어 있으며 존재하는 공간들마저도 지역 청년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음.

<대응 방안>

- 기존 청년문화공간(“시작공간 일부” 등)의 기능 조정.
- 확장성 있는 유희 공간의 발굴을 통한 본격적 청년문화복합공간 조성.
- 민간 문화공간이나 문화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 공간, 유희공간 발굴 및 활용.
- 공간의 양적 확대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 공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동시에 활용 가능한 공간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

■ 문제점 ③: 청년예술 지원사업의 전문성·특성화 부족

- 오랫동안 예술지원 구조 안에서 신진·청년 집단에게 진입의 어려움이 존재했음.
- 최근 청년문화사업이 확대되면서 청년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대상층을 한정하고 공모방식을 일부 간소화했음에도 여전히 청년예술인들에게 접근이 쉽지 않게 체감되고 있음.
- 청년예술인들이 다양한 층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지원 방식 개선에 난제임.

<대응 방안>

- 기존의 청년예술지원 프로그램의 개선.
- 예술지원의 진입 장벽의 현실적 문제점 해결.
- 창작 여건·예술계에서의 위치에 따른 지원 방식의 다각화.
- 커리어를 만들어야 하는 신규 진입 예술인(예비예술인)에 맞춤형 지원 방식 개발.

■ 문제점 ④: 청년문화인력 성장 프로그램 부족

- 지역 내에 문화도시 등 다양한 문화사업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에 참여하는 청년예술인·청년문화기획자(집단)이 존재함에도 이들을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만 많고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통합적 프로그램의 부족함.
- 개별적인 강의형 프로그램은 양적으로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으나 다분히 기능 중심적이거나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 지역 안에서 성장의 동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존재함.

<대응 방안>

- 청년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학습모임에 대한 지원.
- 청년층의 복잡성을 전제로 하여 다양한 성장 국면을 고려한 학습 프로그램의 설계.
-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탐방·체험 등 여러 영역에서의 프로그램 설계로 실질적 성장에 기여.

■ 문제점 ⑤: 대내외 청년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부재

- 지역 내의 청년문화인력들 간의 교류도 많지 않거나 제한적이며 타 지역과의 교류 프로그램은 거의 부재한 상황임.
- 관문도시로서 인천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려 문화허브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문화인력이 충분한 교류 체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 교류와 협업의 경험은 지역 내 청년문화 활성화에도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음.

<대응 방안>

- 인천의 청년예술인·청년문화기획자들을 외부 지역으로 보내 다양한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타지의 청년문화인력들 또한 인천으로 초대하여 인천의 청년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한편 그들 본래 지역에서의 체험을 인천에 남기게 하는 교류 사업 개발.
- 문화예술공간·축제 탐방 프로그램.
- 교류에 중점을 둔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개발.

■ 문제점 ⑥: 청년문화 활동 성과의 사회적 확산 부족

- 청년문화지원정책의 성과를 사회적 효과로 환류하기 위한 사업 구조가 취약함.
- 일자리·주거·자기 성장·결혼(육아) 등 청년들에게 일상에서 주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다각적인데 이런 각각의 영역이 현재의 청년문화지원사업에는 충분히 녹아있지 못함.

<대응 방안>

- 기존의 청년문화 네트워크 사업을 '지역 기반'과 '취향 기반'으로 이원화하며 협의의 문화예술이 아닌 일상적 차원에서의 광의의 문화개념으로 확대.
-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 이슈를 문화적 실험과 시도로 해결해나가는 청년 걸쳐 소셜랩을 사업화하여 제시.

■ 문제점 ⑦: 청년문화지원정책 사업 추진 체계의 미성숙

- 청년문화지원사업이 급격하게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업의 양·종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고 있음.
- 인천시의 청년정책 담당자·문화정책 담당자·인천문화재단의 청년문화팀·기초문화재단 간의 소통이나 협업의 단계도 아직 충분한 상황이 아님.

<대응 방안>

- 청년문화정책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 사업 체계 구축.
- 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지원사업은 청년문화팀을 중심으로 한 일원화를 골자로 추진.
- 광역·기초·민간이 포괄되는 정책협의테이블 마련.

■ 문제점 ⑧: 청년문화 “씬Scean”(네트워크·공론장·협력모델)의 부재

- 공공의 청년문화지원사업이 초창기인 탓에 아직은 “인천 청년문화”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는 협력의 소통공간·공론장·네트워크가 부재한 상태임.
- 씬(Scean) 혹은 협력의 공론장이 구조화될 수 있다면 공공의 청년문화지원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자율성·자기주도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정책기구 및 지원조직과의 협업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음.

<대응 방안>

- 거점 공간과 그 인접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한 공간적 씬(Scean)의 형성.
- 사업과 활동을 중점에 둔 협력모델 형성과 경험 축적.
-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취향의 네트워크 지원.

## 2. 정책 비전과 목표

### 가. 비전 설계의 방향

- 앞선 검토들을 토대로 인천의 청년문화지원정책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로 정리됨.

- ① **(다양성)** 청년이란 개념 안에 포함되는 다양한 주체들의 특성을 반영하며,
- ② **(자기주도성)** 청년이 일방적인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주도할 수 있으며,
- ③ **(창의성)** 지역에서 이어져오는 문화적 자산들을 새롭게 해석하여 새로운 예술적 창작과 문화적 실천을 시도하며,
- ④ **(사회적 확산)** 앞선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청년문화예술 활동의 성과가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지역 청년들의 일상적인 문제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함.

- 위와 같은 4가지 방향에서 인천의 청년문화예술 생태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하며 이를 하나로 축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 <인천의 청년문화 활성화 VISION>(가)47)

“자기주도적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47) “시작공간 일부”의 슬로건 “모두가 응원 받는 안전한 시작공간”과 공동약속문과의 연계성을 고려함.

#### “시작공간 일부” 공동약속문

- a. 시작공간 일부는 청년 창작자 및 기획자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세요.
- b. 시작공간 일부는 공동운영단과 인천문화재단이 함께 운영하며, 다양한 청년 창작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머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합니다.
- c. 우리는 나이, 성별을 비롯한 모든 배경과 관계없이 동등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차별 발언도 하지 않으며 서로의 삶을 존중합니다.
- d.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쉽게 단정 짓지 않습니다.

나. 인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의 목표

1) 목표 1: 지역 내 청년문화 의제 확산

■ 주요 내용

- 지역 내에 고질적 문화인프라 부족과 서울의 문화적 자장 때문에 독특한 청년문화가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이 지속됨.
- 인천이 갖고 있는 지역문화의 특성을 재생산할 수 있는 청년문화에 대해서, 지역적 관심과 의제를 상징적으로 외화시킬 필요 있음.
- 청년문화를 둘러싼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소통 구조를 개방적으로 활성화함.

■ 전략 1: 경과적 사업을 통한 지역 내 청년문화 인지·관심 확산

- “인천 청년문화”라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과적 청년문화지원 사업의 전략적 제시(가칭 <인천 청년문화의 발견>).
- <인천 청년문화의 발견> 사업을 연차별로 구조화하고 이를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
- 홍보와 브랜딩을 연동시켜 사업의 전체 청년문화지원사업의 큰 줄기를 형성.

■ 전략 2: 청년문화 의제 확산에 따른 공론장 활성화

- 청년문화 의제에 따른 지속적이고 실질화된 공론장 구조를 형성.
- 청년문화예술공론장이 청년문화창작소·<청년문화축제> 등 다양한 청년문화지원사업의 주요한 파트너 및 행위자로 역할과 권한을 연차록할 수 있도록 구조화.

<표 V-4> 인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목표 1 세부 과제

[세부 과제]				
1. <인천 청년문화의 발견>(가제)				
- 기존 사업과의 연계: <청년활동가 탐구지원>(청년문화팀)의 심화 및 확대				
- 기존의 지역 탐구 및 리서치를 청년문화의 틀에 맞춰 인천의 청년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발견 프로젝트 진행				
- 지역 청년문화에 관한 탐구 활동				
- 청년문화관련 소논문 공모				
연도	2023	2024	2025	2026
주요 사업	지역 탐구 소논문 공모.	지역 청년문화 연구 소논문 공모.	지역 청년문화 연구 소논문 공모. “인천청년문화의 발견” 책자 기획.	“인천청년문화의 발견” 책자 발간. 인천청년문화 컨퍼런스 개최.

- 추정 예산: 146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계
소논문 지원	15 (300만원 * 5개팀)	21 (300만원 * 7개팀)	30 (300만원 * 10개팀)	30 (300만원 * 10개팀)	96
책자 발간 컨퍼런스			20	30	50

2. 인천 청년문화 공론장

- 기존 사업과의 연계: <지역 기반 청년문화예술 네트워크>
- 청년문화예술 공론장의 상시 진행
- 청년예술인·청년문화기획자(활동가) 등 영역별 공론장 구성
- 공론장에서 종합된 의견들을 중심으로 연중 2회 기획 포럼 진행
- 3년차 이후로 청년문화예술인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공론장과 포럼의 운영을 이끌어 감

연도	2023	2024	2025	2026
주요 사업	청년문화 공론장. 기획 포럼1 진행.	청년문화 공론장. 기획 포럼 2,3 진행.	청년문화 공론장. 인천청년문화예술 인협의체 구성.	인천청년문화예술 인협의체 가동. 인천청년문화 컨퍼런스 개최 (위 사업과 공동).

- 추정 예산: 2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계
공론장 운영	20	20	25	30	95
기획포럼	15	30	30	30	105

■ 기대효과

- “인천 청년문화”에 대한 지역 사회와 지역 청년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의제화.
- 청년의 문화적 탐구를 통한 지역에 내재해온 문화 정체성을 새롭게 발굴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 청년문화 공론장의 활성화를 통해 인천 청년문화지원사업의 자발적 자생력을 성장시켜 인천시 청년문화사업·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지원사업의 주요한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게 함.



2) 목표 2: 지역의 청년문화 환경(어메니티 개선) 개선

■ 주요 내용

- 공공 청년문화 활동 공간 활성화.
- 청년문화 활동 공간의 다양화.
- 문화활동 공간의 지원 및 연계 강화.

■ 전략 1: 청년문화창작소(시작공간 일부)의 허브 기능 강화

- 청년문화창작소 “시작공간 일부”가 2020년 조성되었지만 접근성과 물리적 한계가 있으며 광범위한 확장이 가능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을 살리면서 기능을 특화.
- 청년문화창작소를 인천의 청년문화 공간네트워크의 허브로 기능을 조정하고 지원 프로그램 개발·공론장·역량강화(교육기능) 등의 파생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집중.
- 현재 공간에 청년문화팀이 입주해 있다는 점에서도 네트워크와 지원기능으로 창작소의 기능을 특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 부평구의 캠프마켓·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 등 지역에서 문화적 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여 실내와 야외공간이 모두 활용 가능한 청년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 요망.

■ 전략 2: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청년문화 공간화 전략

- 민간에서 청년들이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여 인증·지원하는 방안 도입.
- 공공의 공간(청년공간)에 대한 문화적 활용의 확대.

<표 V-5> 인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목표 2 세부 과제

**[세부 과제]**

3. 공공 청년문화공간의 기능 강화 및 조정·활성화

- 기존 사업과의 연계: <청년문화창작소>
- 청년문화창작소의 허브 및 지원 기능 강화
- 대규모 청년문화복합공간의 조성(장기 과제)

4. 자율형 청년문화공간 인증제

- 기존 사업과의 연계: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 인천 각 구를 대상으로 자율형 청년문화공간 공모
- 공간이 확보되었거나 확보 예정인 곳의 운영계획을 심의하여 선정
- 첫 해 년도는 예비사업을 진행하게 하며 이 결과를 평가하여 인증 결정
- 운영비와 임차료 등에 대한 지원 하되 예비사업 단계에서는 운영비만을 지원하여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주요 사업	자율형 청년문화공간 공론화(홍보).	자율형 청년문화공간 예비 사업(공모).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개소당 2,000만원). 연말 평가 및 인증.	자율형 청년문화 공간 사업(인증/지속). 프로그램 운영비, 임차료 지원 (개소당 5,000만원). 자율형 청년문화공간 예비 사업(공모).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개소당 2,000만원).	자율형 청년문화 공간 사업 (인증/지속). 프로그램 운영비, 임차료 지원 (개소당 5,000만원). 자율형 청년문화공간 사업 평가.

- 추정 예산: 1,01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계
운영 지원		160 (2,000만원 * 8개소)	350 (5000만원 * 5개소, 2000만원 * 5개소)	500 (5000만원 * 10개팀)	1,010

5. 공공·청년시설의 청년문화 활용 확대

- 신규 사업
- 공공·청년시설에 대한 청년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공모)
- 공공 공간, 청년 공간, 청년문화예술인(단체)이 공동기획으로 공간의 청년문화 활용을 기획하여 지원하게 하며, 이 중 5~10개 팀(공간)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

■ 기대효과

- 인천 청년문화 활동의 공간적 기반 조성.
- 다양한 청년문화 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능의 강화.
- 기초단위에서의 지역별 청년문화 활동공간의 활성화.

3) 목표 3: 청년예술지원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 및 특성화

■ 주요 내용

-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지원 사업이 많지 않음.
- 청년예술인의 경우 예술지원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며 지원 과정과 활동 후 정산 등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청년 시기의 특성상 청년예술인의 지원 대상에는 청년예비예술인과 청년예술인이 모두 포함됨.
- 청년예술인으로 묶여있지만 경력이나 활동의 업력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 예술인들과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예술인(예비예술인)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함(이에 대한 연령적 구분이 불가능함).
- 장르별 구분은 어렵겠지만 활동방식(개인 창작·단체창작·시연 등)에 따른 지원방식의 차별화도 필요함.

■ 전략 1: 기존 청년 대상 예술지원 사업의 통합 및 개선

- 기존의 <인천형 예술지원사업>의 개인-신진·유망 트랙과 <청년예술가 기획지원사업>의 통합.
- 통합된 청년-신진 예술인지원의 대상 세분화.

■ 전략 2: 대상 특화 새로운 예술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청년예술인 관련 사회적 이슈와 연계된 지원프로그램 개발.
- 이슈의 유동성에 따라 설계되는 지원 프로그램도 유동성을 갖으면서도 그 성과가 환류될 수 있는 체계 구축.

<표 V-6> 인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목표 3 세부 과제

**[세부 과제]**

6. 청년 대상 예술지원 사업의 통합 및 개선

- 기존 사업의 통합: <인천형 예술지원사업>의 신진·유망 트랙 + <청년예술가 기획지원사업>("바로 그 ○○")
- 청년예술인의 넓은 연령·활동 분포를 감안하여 활동경력이 부족한 예술인(예비예술인)·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신진급 청년예술인·청년예술인 단체를 지원하고, 동시에 이들과 청년문화기획자(활동가)를 포함한 문화기획인력들의 실험적 활동 지원까지 4가지 카테고리로 설계
- 통합설명회 개최와 지원 컨설팅 운영으로 지원사업에 낯선 청년 및 신진예술인·문화인력의 이해를 도움

사업명	지원대상	특징
청년 예비예술인 지원	생애 첫 지원을 받는 청년예술인(예비예술인).	소액다건. 지원 서류 및 정산 간소화. 예술인활동증명 불필요. 전시·공연 등에 대한 간접지원과 컨설팅.
청년/신진 예술인 지원	활동경력이 5~10년 사이의 신진급 청년예술인.	기성 예술인 지원에 준하는 지원. 기존의 유망 트랙에서 청년예술인 연령대를 분리.
신규 예술단체 지원	설립2년차 이하에 청년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	기존 유망 트랙에서 청년예술인 연령대를 분리.
청년문화예술 실험 지원	청년예술인 및 문화기획인력으로 구성되어 실험적인 시도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	단년지원으로 출발하여 성과가 입증될 경우 다년 증액 지원이 되는 구조로 구성.

7. 대상 특정형 신규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청년예술인 공론장 등에서 발굴되는 청년예술인의 사회적 의제·이슈와 연계된 특화지원
- 예산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의제와 이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원프로그램 개발
- 예시: 예술로 창업하는 청년예술인 지원, 청년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지원

- 추정 예산: 58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계
청년 특성화 공모 지원	100 (500만원 * 20개팀)	140 (700만원 * 20개팀)	140 (700만원 * 20개팀)	200 (1,000만원 * 20개팀)	580

■ 기대효과

- 지원사업과 사업주체(팀)별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예비예술인·청년예술인·신진예술인·유망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엮어 청년세대 전반에 대한 예술지원 기능을 특화함.
- 단순한 예술지원금 배분이 아니라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며 경력의 시작과 개발을 함께 지원하여 지역에서 젊은(청년·신진·예비) 예술인들이 성장에 이점이 있음을 부각시킴.
- 청년의 일상적 의제와 결부된 특화된 지원으로 청년예술의 특성화된 콘텐츠를 발굴함.

4) 목표 4: 청년문화 인력의 성장과 교류

■ 주요 내용

- 청년기에는 자기발전과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정체성이 한가지로 고정되기 힘들다는 특성을 갖고 있음.
- 지역의 청년예술인·청년문화기획자(활동가)·문화친화 청년층은 각각 다른 정책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유동적으로 오가는 관계이며,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역의 인적자산으로 자리할 수 있음.
- 기존의 청년문화창작소 교육프로그램(<워크숍>)을 강화하는 한편, 체험과 교류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청년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함.
- 청년문화축제의 개선 및 자기주도성을 강화함.

■ 전략 1: 청년문화창작소 교육프로그램 강화

- 현재의 실무 교육 위주의 청년문화예술인 교육프로그램 다변화·확대.
- 청년예술인·문화기획인력·문화친화 청년층 등 다양한 대상을 염두에 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략 2: 체험형 청년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

- 강좌형 프로그램에서 해소할 수 없는 청년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경험과 체험을 줄 수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 축제 탐방·타 지역과의 교류.
- 지역 내에서는 청년공간(<유유기지>) 등과 연계하여 청년층이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 전략 3: 자기주도적 청년문화축제 활성화

- 현재의 청년문화축제는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청년예술인들이 단순 출연 이상으로 축제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한계.
-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주도하는 자기주도형 축제로의 전환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적 경과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경과적 프로그램을 연차별로 도입하는 이행기간이 필요.

<표 V-7> 인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목표 4 세부 과제

<b>[세부 과제]</b>		
8. 청년문화예술 역량 교육의 다변화·강화		
- 기존 사업과의 연계: 청년문화창작소 <워크숍>, <청년문화살롱>의 확대 개편		
<b>영역</b>	<b>대상</b>	<b>주요 내용(예시)</b>
예술 역량	청년예술인.	중견 이상 예술인과 함께 하는 해당 분야별 워크숍.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

실무 역량	청년예술인. 청년문화기획자.	기획실무워크숍. 예술 관련 법제도(저작권 등).
문화 리터러시	문화친화 청년층.	취향의 발견, 예술·미학 입문. 문화예술과 사회·지역.

- 추정 예산: 5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계
워크숍	50	100	150	200	500

9. 체험형 청년문화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 기존사업과의 연계: <인천청년 한달레지던시>, <청년커뮤니티 활동 지원>
- 해외 문화예술축제 탐방 지원
- 타 지역 교류 프로그램: 타 지역 문화재단·지역 청년공간(<유유기지>) 등과의 연계교류,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문화예술인의 상호 교류형 레지던시

- 추정 예산: 56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계
체험형 역량강화 (축제 탐방 등)	20	50	50	100	220
외부 교류	40	100	100	100	340

10. 자기주도형 청년문화축제

- 기존사업과의 연계: <인천 청년문화축제>
- 청년문화축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평가의 환류
- 연차별로 자기주도형 축제로 갈 수 있는 경과적인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자연스러운 이행을 유도함
- 인천시와 문화재단의 청년문화지원사업의 다양한 트랙에서 만들어진 활동의 결과물들이 외화 될 수 있는 장으로서 축제의 위상을 정립
- 주요 지원사업(예술지원·문화활동)에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예산과 연계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

■ 기대효과

- 청년예술인들의 예술적 성장과 청년문화기획자(활동가)·문화친화 청년층의 문화적 역량의 동반 성장.
- 인천 외부에서 벌어지는 청년문화 활동의 다양한 역량을 흡수하는 한편 인천의 청년문화를 대외적으로 외화.
- 지역의 청년문화지원사업의 성과를 발신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지역의 청년문화의 성장을 제화하는 축제의 활성화.

5) 목표 5: 청년문화의 사회적 확산과 선순환

■ 주요 내용

- 청년문화예술 활동이 청년예술인·청년문화기획자(활동가) 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계층 전반에 문화적 영향력을 끼치며, 지역사회의 문화적 역량 전반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
- 청년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고용불안·주거불안정·결혼과 육아·자기 성장 등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이슈들과 맞물리는 청년문화지원사업을 설계함.

■ 전략 1: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소통 활성화

- 지원사업 형태의 <청년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통합과 정례화.
- 협의의 문화예술 개념이 아닌, 광의의 문화 개념에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구조 개발.

■ 전략 2: 문화를 통한 청년문제 접근 방법 제시

- 청년 의제 관련한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지원.
- 기존 문화예술지원 포맷과 다른, 사회 혁신에 대한 문화적 실험들을 지원.

<표 V-8> 인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목표 5 세부 과제

<b>[세부 과제]</b>	
<p>11. 청년문화 네트워크 지원 사업 통합적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사업과의 연계: &lt;청년문화창작소 네트워크 지원 사업&gt;</li> <li>- 지역기반형·취향기반형으로 네트워크를 구조화</li> <li>- 지역기반형은 공간사업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취향기반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li> </ul>	
<p>12. (가칭)&lt;XX하는 문화청년&gt; 지원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사업</li> <li>- 다양한 청년 의제에 대하여 문화적 리소스를 활용한 실험에 대한 시도를 지원(공모)</li> <li>- 1년 차에는 소액 지원하여 실험을 준비할 수 있는 연구와 조사에 치중하게 하고 2년차 이후로 승급·탈락·재도전 등의 구조 설계하여 지역의 청년 이슈에 대한 컬쳐소셜랩을 사업 안에 구조화함</li> <li>- 실현 가능하게 성장한 프로젝트의 경우는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멘토링과 지원(기업·사회적경제·사단법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li> </ul>	
<p>&lt;인천 청년 컬쳐소셜랩: (가칭)"XX하는 문화청년"&gt; 지원사업</p>	
<b>대상</b>	인천에서 거주·활동하는 19~39세 청년

<b>진행 방식</b>	공모, 지원
<b>지원사업 개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차: 지역의 청년 이슈 및 청년문화 성장에 관한 프로젝트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소재와 주제에 대한 리서치, 연구에 대한 소액 지원(300만원 이하, 10개 팀 혹은 개인)</li> <li>✓ 2년차: 1년차 지원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팀, 개인을 선발하여 본격적인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2년차 지원(500만원 이하, 5개 팀 혹은 개인)</li> <li>✓ 3,4년차: 2년차의 성장을 거쳐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 성장한 경우에 대한 집중 지원(팀별 1,000~2,000만원)</li> </ul>
<b>추가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작공간 일부”와 연계하여 지원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li> <li>✓ 문화기획자, 사회적경제전문가, 스타트업 전문가 등을 활용한 멘토링</li> <li>✓ 3,4년차에 있어서는 창업과 법인화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li> <li>✓ 레벨업 구조에서 중도 탈락한 프로젝트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li> </ul>

- 추정 예산: 25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계
컬처 소셜랩 지원	30 (300만원 * 10개팀)	40 (500만원 * 5개팀, 300만원 * 5개팀)	90 (1,500만원 * 4개팀, 500만원 * 5개팀 등)	90 (1,500만원 * 4개팀, 500만원 * 5개팀 등)	250

■ 기대효과

- 청년문화지원의 결과가 지역사회에 파급력을 만들 수 있는 환류 구조 마련.
- 창업·사회적 경제 등 지역 활성화에 문화적 역량 활용 가능성 확대.
- 청년의제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청년문제의 자생적 해결 역량을 고취.

6) 목표 6: 안정적 청년문화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 주요 내용

- 청년문화지원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구조 마련.
- 시 정부·인천문화재단·기초지자체(문화재단)·청년문화예술인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 전략 1: 청년문화팀을 중심으로 한 청년문화지원사업의 일원화

- 현재 인천문화재단의 청년문화사업은 청년문화팀 이외에도 창작지원팀, 예술인지원센터, 지역문화팀 등에 산재해 있음.



- 예산과 사업 출처의 한계 때문에 사업이 흩어져있는 측면이 있으나 사업의 지속성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청년문화팀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함.
- 현재의 청년문화팀의 사업구조(인력 규모)가 팀장 포함 4인에 불과하여 현재 부여되는 사업의 진행에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sup>48)</sup> 청년문화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계적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함.
- 사업구조상 통합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업무연계를 위한 소통을 구조화해야 함.

■ 전략 2: 청년문화정책 거버넌스 형성

- 인천시 정부·인천문화재단·기초지자체 등 청년문화정책의 시행 주체도 다양.
-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문화예술인들과의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과의 개방적 거버넌스도 필요.
- 공공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조정, 민간의 청년문화 주체들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구조화 필요.

<표 V-9> 인천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목표 6 세부 과제

**[세부 과제]**

13. 일원화된 청년문화지원사업 구조 마련

- 인천문화재단의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관련 사업의 청년문화팀 이관 및 통합적 재구조화
- 청년문화팀 조직 강화 및 인력의 단계적 확대
- 이관 불가능 사업의 업무연계구조 마련

14. <(가칭)인천 청년문화정책협의체> 구성

- 시정부 청년정책·문화정책 담당자·인천문화재단 청년문화팀·기초지자체 또는 기초문화재단이 참여하는 인천 청년문화정책협의체 구성
- <(가)인천청년문화예술인협의체>(과제2)와의 정례 간담회 및 거버넌스 형성

■ 기대효과

- 인천 청년문화지원사업의 체계적·통합적 지원.
- 지역 내 다양한 청년문화 활동과 연계활동의 시너지 확대.
- 청년문화 활동의 지속력 확대를 통한 중장기적 성장 구조 마련.

48) 부산문화재단의 경우 9명

## VI.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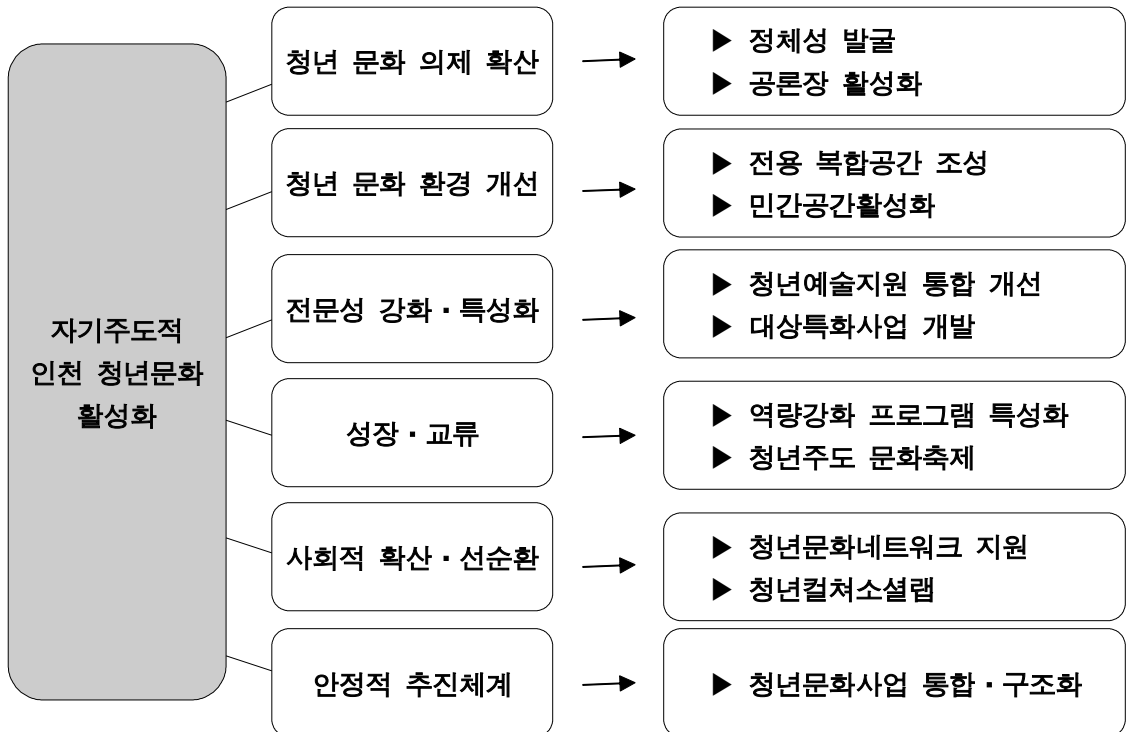
### 1. 정책 제언

가. 사업의 전략적 재구성 필요

#### ■ 기존 사업 및 신규 사업의 체계적 구조화

-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의 청년문화지원사업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하게 마련되어왔으나, 실행 사업을 각각의 단위에서 긴급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친 탓에 산발적이며 내적 연계체계와 이를 통한 정책의 상호 시너지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음.
- 개별적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딱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음에도,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떨어지며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지점에 한계가 존재함.
- 비전과 목표 체계 속에서 사업의 구조적 체계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자기주도적 인천 청년문화라는 큰 줄기 속에서 개별적 사업이 배치될 필요가 있음.

<그림 VI-1> 인천 청년문화 지원 사업 구조(안)



■ 정책 목표에 따른 사업성과 체계 구축

- 과거의 청년정책의 주요 실패 요인을 보면 성과목표가 구체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막연한 기대치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자원을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음.
- 인천의 청년문화지원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자기주도성·당사자성·개방성을 전제로 한 각 사업의 구체적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지원정책이 필요함.
- 시기별·연차별 목표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계획상 목표가 수정이 필요할 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이에 따른 유연한 정책 수행이 필요함.

나. 공간과 활동을 매개로 한 지원 체계 구축

■ 청년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한 청년문화 활동의 일상적 지원 확대

- 문화(예술)활동의 특성상 장소·공간에 기반한 지원이 지속성·역량의 집중과 축적에 매우 효과적임.
- 특히 인천이 비슷한 규모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한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문화 활성화에도 결정적 제약으로 자리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청년문화창작소 등 공간이 확장성에 있어서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보다 개방적이고 다용도 이용이 가능한 공간 조성을 권고함.
- ‘경기상상캠퍼스’(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용도가 다한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문화 활동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한 청년활동·사회혁신실험·창업지원·메이커스페이스·생활문화활동·교육활동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경우 고질적인 공간부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경기상상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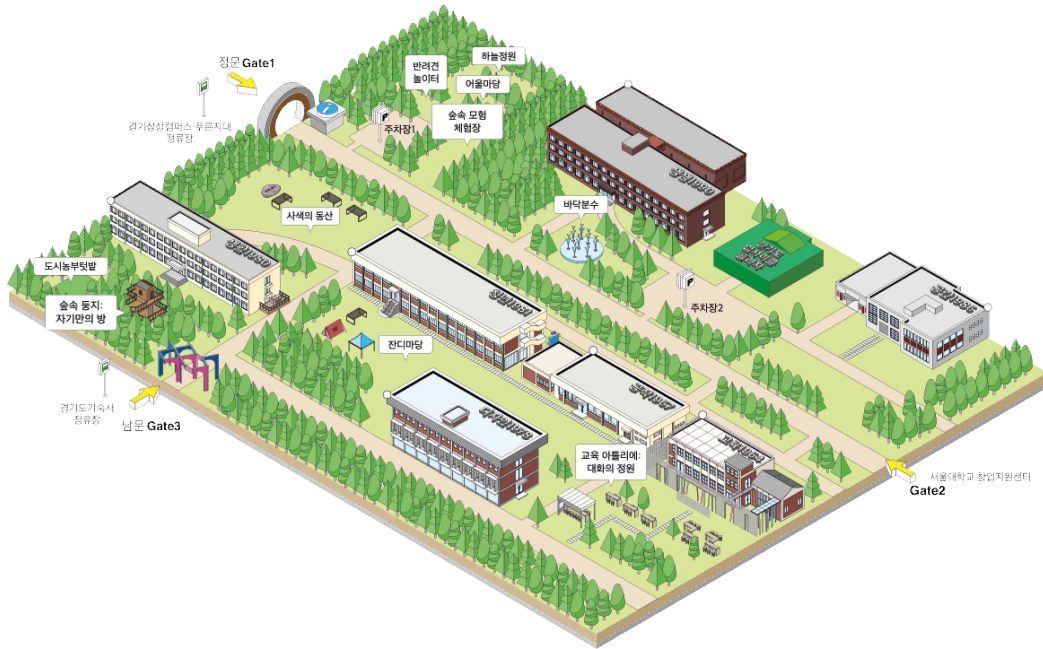
■ 개요

- 2003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유휴공간으로 남았던 교정과 건물들을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추진하여, 생활문화와 청년문화가 혼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2016년 6월 문 개관

■ 비전(VISION)

- 모두의 숲: 도심 속 문화 휴식공간
- 삶의 학교: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배움터
- 미래의 캠퍼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작공간
- 생활문화플랫폼: 함께 누리는 문화공유지대

<그림 VI-2> 경기상상캠퍼스 주요 공간 구성



- 생활1980: 구 농원예학관 건물로, 현재는 어린이 책놀이터 · 카페 · 손살이공방 등의 입주 단체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기상상캠퍼스의 중심 건물
- 생생1990: 구 농공학관 건물로, 현재는 경기생활문화센터로서 공유주방 · 상상실험실 · 생활창작공방 및 동호회 공간 · 입주단체 공간 조성
- 청년1981: 구 농화학관 건물로, 현재는 청년 문화예술 기반의 입주단체들이 활동
- 공간1986: 구 대형강의실 건물로, 융복합 관련 입주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멀티벙커 · 코워킹스페이스가 조성
- 공작1967: 구 농업공작실 건물로, 현재는 입주단체 공간 및 작업공간으로 활용
- 교육1964: 구 농업교육학관 건물로, 현재는 컨퍼런스홀 및 교육공간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 디자인1978: 입학임산학관 건물로, 현재는 전시 · 라이브러리 · 아트샵 · 디자인 스튜디오 · 입주단체가 자리한 경기도 디자인 거점공간으로 운영

■ 주요 활동

- 청년을 포함한 문화예술단체 입주로 작업실 활용
- 다양한 야외 문화행사
- 공연 · 전시 · 아카이빙 · 코워킹 스페이스 활용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경기상상캠퍼스가 입주하면서 지역상권이 살아나는 등 침체되었던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뚜렷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인천의 경우 앞서 언급 부평구 캠프마켓, 구월동 인천문화예술회관 등 접근성 및 공간 활용의 개방성이 높은 유휴공간 ·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청년문화복합공간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원 활동의 연계를 통한 성과의 축적과 성장

- 기존의 사업 중에도 지역문화 네트워크나 지역문화 정체성 탐구 활동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다른 가능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연결지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음.
- 지역문화 정체성의 탐구·청년 이슈에 대한 문화적 해석 등이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문화지원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 간의 연결망을 세밀하게 갖출 필요가 있음.
- 청년문화축제 역시 별개의 사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화지원사업 전반의 성과를 확인하고 축적하고 발신하는 과정의 연장선에서 기획될 필요가 있음.

다. 사업 수행 체계의 역량 강화를 통한 체계적 지원

■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의 청년문화지원사업의 통합 필요성

-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향으로 청년문화지원사업을 펼치고 성과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관련 사업의 통합적 운영이 필요함.
- 개별 사업의 유기적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인천 청년문화지원사업의 대외적 브랜딩과 체감되는 정책 효과에 있어서도 긍정적 효과가 예측됨.
- 사업의 통합을 통해 각각 사업적 성과의 질적 내용을 개선함.

■ 사업 지원 체계의 역량 강화 필요성

- 현재의 인천문화재단의 청년문화팀은 팀장 포함 4인 구성으로 기존 연간 16~18개의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절대적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재단의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문화지원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인천시의 청년정책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팀 구성을 단계별로 4년간 2~2.5배 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 향후 과제

### ■ 인천 청년들의 문화 여건과 역량에 관한 지표 개발

- 지역문화 여건이나 역량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함.
- 이는 인천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지만 인천시에서 선도적으로 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지표를 개발한다면 지역문화정책개발 분야에 있어서 주요한 레퍼런스로 자리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청년문화지표를 특성화하여 개발하는 것은 청년문화정책 개발에 있어서 주요한 잣대로 자리할 수 있음.
- 기존의 일반적 통계 중심의 지표가 아니라 청년문화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을 통해 발굴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특성화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 청년들의 일상과 여가·문화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체계의 필요성

- 광의의 문화개념으로 청년문화에 접근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문화지원정책이 청년을 둘러싼 일상과 여가를 아우르는 차원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기존의 문화정책체계나 지원사업이 과거 문예진흥의 기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탓인데, 현실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가치통섭적 문화” 차원으로 접근하기에는 경험과 레퍼런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정책 수정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재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청년문화지원사업은 기존 문화예술개념의 청년문화를 기반으로 하되, 통합적·통섭적 청년문화지원의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경과적인 활동지원을 일부 포함한 절충적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음.
- 향후 청년문화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통합적·통섭적 청년문화지원으로의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임.

### ■ 자생력·자율·자치에 기반한 청년문화 거버넌스 구조의 필요성

- 청년문화의 기본적 속성은 기성의 문화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실험하고, 사회적으로 입증하는 자생력·자율·자치의 가치와 구조에 있음.
- 공공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무제한의 자율을 구현할 수 없으며 일정한 균형과 책임성이 뒤따르지만, 청년문화지원정책의 구현에 있어서 만큼은 상대적으로 과감하고 실험적인 시도들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견지할 때 긴 호흡에서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인천의 청년문화를 둘러싼 환경은 정책 구현에 있어서 자생력·자율·자치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우선은 물적·내용적 기반을 형성하면서 이 과정에 청년문화 당사자들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이끌어 내어 권한과 책임을 동반하는 자율적 참여구조의 청년문화장(場)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김나현·남하나·정문식·황유태, 2021, *서교예술실험센터 운영모델 개발 연구*, 서울문화재단.
- 김선기, 2022, *세대론을 넘어서는 청년문화정책(1)*, 발표문.
- 노수경·이경진·노영순·이상열, 2021, *청년문화의 현황과 정책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서봉만 외, 2019, *인천 청년실태조사 및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 수립*, 인천광역시.
- 신민준, 2022, *세대론을 넘어서는 청년문화정책(2)*, 발표문.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
- 이동연, 2001, *10대 문화이야기 - 하위문화 관찰기록*, 디지털문화예술아카데미.  
<http://www.artnstudy.com/Olecture/Special/freeSpeLectureMain.asp?LessonId=x=dyLee01&LessonPart=Culture&asf=1>
- 이선정·최영화, 2021, *인천 청년 문화향유 실태 연구*, 인천학연구 제34호.
- 인천광역시, 2021a, *2021년 제61회인천통계연보*.  
<https://www.incheon.go.kr/data/DATA010001#none>
- , 2021b, *2021 인천의 사회지표-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보고서*.  
<https://www.incheon.go.kr/data/DATA010001#none>
- 인천문화재단, 2021, *인천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 중장기 로드맵 제안-인천문화재단(2021 창작지원부)을 중심으로*.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2,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 및 육성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 임현철, 1995, *광고사례 - X세대 화장품*, 광고학연구 제6권 1호.
- 최영화·이선정, 2020, *인천시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 최영화, 2022, *인천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방안*, -----.
- 최지연·이정수, 2018, *지역 기반 청년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수원시정연구원.

「청년기본법」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인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

《인천청년정책기본계획-수정계획안》

《한국판 뉴딜 2.0 청년정책》

경기문화재단 제공 내부자료

경북문화재단 제공 내부자료

부산문화재단(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차보고서

서울문화재단 제공 내부자료

대전문화재단 제공 내부자료

울산문화재단 제공 내부자료  
인천문화재단 제공 내부자료  
전남문화재단 제공 내부자료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제공 내부자료  
충북문화재단 제공 내부자료

경향신문, “(18) 청년문화 논쟁”, 2015.8.4.

[https://m.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508042158165#c2b](https://m.khan.co.kr/feature_story/article/201508042158165#c2b)

국제신문, “부산문화·판을 바꾸다 <4> 청년문화 기를 살리자(상)”, 2017.1.1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70118.22020184945>

뉴스페이퍼, “부산문화재단, 2019년도 청년문화육성지원사업 본격 가동”, 2019.2.18.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04>

로이슈, “‘충남’ 인구 순유입 증가율 ‘전국 1위’…전년비 1050% 늘어”, 2022.10.12.

<http://bit.ly/3TVLckR>

생활문화청년예술팀, “2019 청년문화예술 콘텐츠펀딩 텀블벅 기획전<맑은 날.제주> 개최”,  
제주문화예술재단 웹사이트.

[http://www.jfac.kr/contents/index.php?mid=070101&job=detail&ebcf\\_id=notice&eb\\_seq=1538](http://www.jfac.kr/contents/index.php?mid=070101&job=detail&ebcf_id=notice&eb_seq=1538)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초대] 완주에서 살아볼까, 4주간의 탐색과 실험 ‘완.주.탐.험’”,  
블로그, 2021.5.17. <https://blog.naver.com/cart3355/222354244103>

아주경제, “[옴부즈만이 바꾼 기업] "속초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폐조선소… 철거 위기서 지켜냈죠"", 2022.2.16. <https://www.ajunews.com/view/20220215140038464>

아트랩범어, “[매일신문] 지역 독립문화 콘텐츠 한눈에…아트랩범어 ‘창창더하기’ 오픈”,  
웹사이트, 2022.8.22.

[http://artlabbeomeo.kr/pg/bbs/board.php?bo\\_table=board\\_news&wr\\_id=470](http://artlabbeomeo.kr/pg/bbs/board.php?bo_table=board_news&wr_id=47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경제 이끌어 갈 로컬크리에이터 140개 과제 선정”, 보도자료, 2020.6.5.

<https://bit.ly/3etekBv>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1 천안문화도시 아카이빙 [서브컬처 만능문화공간 록비온드]”,  
유튜브, 2022.1.25. <https://youtu.be/2Jh95D9rtQ8>

통계청, “주간인구 (5년 2005~2015)”, 2022.7.1. <https://bit.ly/3fXKUM9>

텀블벅 웹사이트, <https://tumblrug.com/collections/jfac2019>

United Nations, “DEFINITION OF YOUTH”, 2013.1.23. <http://bit.ly/3ADCKjq>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웹사이트, <https://www.dgfc.or.kr/>

부산문화재단 웹사이트, <https://www.bsfc.or.kr/main.do>

시작공간 일부 웹사이트, <https://space1bu.ifac.or.kr/>

인천청년포털 문화지원 웹사이트, <https://www.incheon.go.kr/youth/YO050201>

청년예술청 웹사이트, <http://www.sapy.kr/>